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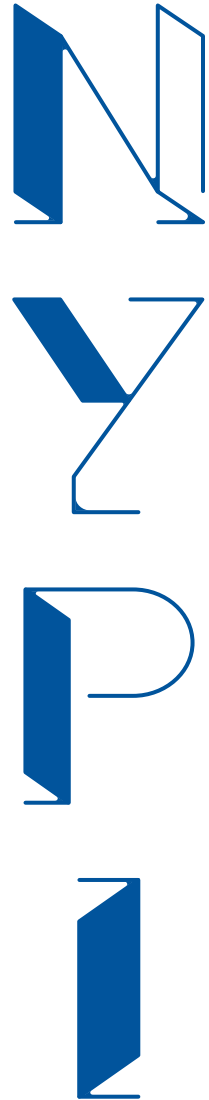
연구보고 18-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책임연구원 장근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연구보고 18-R15-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책임연구원_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 이 보고서는 2016년 IEA ICCS의 종합결과보고서인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International Report〉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grusti, G., & Friedman, T., 2018)를 기초로 주요 결과를 발췌하여 한국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기술한 모든 수치와 도표 및 참고문헌은 위 보고서에서 재인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IEA) 홈페이지 (<https://iccs.iea.nl/>)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IEA ICCS 2016”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57-01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2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ICCS 2016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3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18-57-04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부록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성은모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태준 선임연구위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홍민 연구원(HR파트너컨설팅)

국문초록

ICCS 2016은 각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결과와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배경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2009년 동일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총 24개 국가의 3800여개 학교의 교장, 94,000이상의 8학년 학생들, 그리고 37,000명 이상의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국 학교장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3대 목표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인식, 갈등 해결 역량과 기술개발 혹은 환경 보호의식 이었다. 지난 7년 사이에 거의 모든 참여국에서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 향상이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 간, 국가 내의 시민지식 편차는 여전히 컸으며 특히 국가 내에서 시민지식 수준의 성차이는 여전했고,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청소년과 가장 낮은 청소년간의 격차도 뚜렷했다. 또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 일수록 전통적인 시민참여 의지가 낮고 시민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투표 참여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이 모든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며, 남녀의 격차와 학생들 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교내 시민 참여경험이 그 학교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참여할 의지와 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내 민주화와 참여의 기회 제공이

미래 세대의 시민참여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교실내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국의 시민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갈수록 다문화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국제이민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질적 준비는 매우 시급하다. ICCS의 조사기관인 IEA에서는 본 조사의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고, 향후 2022년의 제3차 ICCS에 더 많은 주제의 포괄과 참여국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시키는 일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그럴수록 민주시민역량과 교육에 대한 유일한 국제비교연구로서 본 조사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주도하는 시민교육 비교조사로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2020년대의 미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임.
- ICCS는 각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지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에 관련된 태도, 인식, 그리고 활동 현황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조사대상 국가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조사결과에 근거해,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를 국가끼리 비교하고, 그렇게 발견된 국가 간의 차이가 학생들의 특성,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맥락, 그리고 국가 고유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이 조사의 2회 차인 ICCS 2016은 ICCS 2009의 후속 조사로서 동일문항에 대한 시계열비교와 신규문항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ICCS 2016은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맥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의 시민교육에 관련된 오래된 과제와 새로이 부각되는 과제를 모두 포괄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ICCS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이 시민지식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② 청소년들이 현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관련 활동, 그리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데 관련된 시민으로서의 자기효능감, 시민참여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
 - ③ 현시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슈(공공기관과 공공법규, 그리고 다양성, 평등, 시민의식 같은 사회적 원칙)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 ④ 각국에서 민주시민 교육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특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커리큘럼과 교수법,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와 여러 공동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법들의 현황
-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ICCS 2016은 조사 참여국가간 차이 및 그에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ICCS 2009 대비 차이를 비교하였음
- ICCS 2016 데이터는 24개 참여국에 소재한 총 3,800여개 학교에서, 해당 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총 94,000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이들의 시민 지식과 민주시민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조사자료, 그리고 이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총 37,000명 이상의 교사들과 그 학교의 교장들로부터 수집된 시민교육환경 맥락에 대한 조사결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조사에 참여한 24개국은 대부분 2009년도 ICCS에도 참여한 바 있음.

3. 주요결과

1) 각국의 민주시민교육현황

- 참여 국가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했지만 보편적인 시민 교육의 학습목표들은 유지하고 있었음. 각국 학교의 교장이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지식과 기술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3개 목표는 청소년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촉진 (64%),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61%), 갈등 해결 역량과 기술개발 (44%) 이었음. 각 학교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 목표는 자기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촉진 (61%),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향상 (57%), 환경 보호의 촉진 (51%)이었음.
- ICCS 참가국 중 민주시민교육을 별개의 과정으로 교육하는 국가는 11개국 이었음. 이들 국가중 일부를 포함한 18개 국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음. 15 개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내용이라기 보다는 학교생활의 일부라고 응답했음.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사였음. 모든 참여국 에서는 민주시민교과목 혹은 관련교과의 담당교사 대상으로 사전연수 혹은 재직중 연수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ICCS 2016 참여국 학생들은 교내, 특히 교실에서 최소한 가끔씩은 (sometimes) 개방적인 토론분위기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했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에 개방적인 편이었으나, 시민의식이나 참여관련 의견제시에는 소극적이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급 선거 나 학교 선거에 참여했으며, 약40%의 학생들은 교내 토론, 의사 결정 및 학생회에도 참여하고 있었음. 불우이웃돕기활동이나 인권프로젝트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소수였음.

2) 시민지식Civic Knowledge 측정결과

- ICCS 2016에서 시민 지식은 ICCS 2009에서 개발·사용했던 42개 문항을 포함한 총 87개 문항의 검사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음. 대부분의 검사문항은 간단한 배경설명(예 : 이미지 또는 텍스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문항 중에서 객관식은 78문항, 주관식(개방형)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지식 측정결과는 조사국가 전체 평균이 500점에 표준편차는 100점인 척도로 환산되어 제시됨. 시민지식 검사의 내용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나 규칙에서부터 해당국가 시민사회의 형태를 결정하는 더 광범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이해까지를 포괄함. 시민지식은 난이도와 복잡도에 따라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D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내용과 사례를 이해할 수 있음
 - C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원칙과 보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 B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제도, 시스템, 및 개념에서 확장된 특정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력을 보여줌
 - A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견해까지 보여줌.
- 조사결과 전체 참여 국가 청소년 중 약 3% 정도는 D레벨 미만, 약 10%는 D레벨, 21%는 C레벨, 32%는 B레벨, 35%는 A레벨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수준 편차는 국가간 차이보다는 각 국가 내에서의 차이가 더 컸음. 국가 간 시민지식 평균의 차이가 시민지식 레벨단위로 2.5단계 수준인

반면, 한 국가 내의 하위 5% 청소년과 상위 95%에 해당하는 청소년간의 격차는 레벨단위 3단계 이상이었음.

- 시민지식 점수의 전체 평균은 2009년 대비 2016년에 더 높아졌음. 비교대상 18개국에서 B레벨 이상의 학생 비율은 61%에서 67%로 증가했음. 점수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가는 11개국이었음.
- 시민지식 점수는 성별 및 생활배경에 따라 달랐음.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높았음. 총 19개국에서 여학생의 평균 시민 지식 점수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모든 국가에서 부모의 직업 및 집에 보유한 책의 수량으로 환산한 사회경제적지위(SES)가 높은 그룹의 청소년들은 낮은 SES 그룹의 청소년들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뚜렷이 높았음.
- 이민자 배경과 언어적 배경도 시민지식과 관련 있었음. 14개국에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검사도구의 언어(해당국가 표준어)인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시민 지식 점수가 높았음.

3) 청소년의 시민 참여

- ICCS에서 청소년의 시민참여는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적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나 어른들과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지, 그리고 미래 성인이 되어 기대하는 시민참여를 포함함.
- 조사결과, TV뉴스 보기와 부모와 토론하기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었음. 청소년들의 신문읽기는 2009년 보다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더 늘어났음.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참여는 여전히 제한된 수준 이었고, 국가마다 편차가 컸음.

-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경험과 정치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는 2009년 조사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났음.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관심 역시 그 주제에 대한 토론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민활동에 자신있게 참여한다는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 그러나 시민 참여와 시민지식 사이에는 일관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 청소년들의 교내시민참여 수준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교내 시민참여의 의지는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더 높았음. 그러나 교내시민참여의 의지와 시민 지식의 수준간에는 역시 일관적인 관계가 없었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수준과 미래 선거 참여에의 기대는 2009년 대비 증가했음.
- 시민지식 점수는 합법적 정치항의에의 참여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불법적인 정치항의의사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 200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발견되었음. 전통적 시민참여(선거와 투표)는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았음.

4)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ICCS 2016 조사결과, 국가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좋은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랐음. 대부분의 국가 청소년들이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관료로 고용하는 행동이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판단한 반면, 일부 국가 청소년

들이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음. 비슷한 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났음.

- 청소년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치지도자 선출, 평화적인 항의의 권리보장, 모든 민족 및 인종의 기회평등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정부를 비판할 권리의 보장, 국민들간 소득 격차의 완화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청소년들의 응답이 다른 경향이 나타났음.
-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학생들은 2009년 조사에서보다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정치사회적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변화운동참여를 더 중시했음.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 국가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음.
-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인종평등과 양성평등을 지지했음. 인종평등과 양성평등지지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09년 대비 증가했음. 여자 청소년, 정치적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양성평등과 인종평등 지지수준은 더 높았음.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세계 미래의 주요위협요인으로 환경오염, 테러, 물과 식량 부족, 전염병, 빈곤을 선택했음. 그러나 이들 요인의 순위는 국가마다 달랐으며, 특히 물 부족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졌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9년에 비해 정부, 의회 및 법원에 대한 신뢰수준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언론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음.

- 경제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공공 기관과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패 수준이 높고 정부의 효율성이 낮은 국가의 청소년들은 신뢰수준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음.
- 청소년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은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 모든 국가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집단이었음. 종교의 가치를 증시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줄어든 국가는 4개국이었음. 종교의 중요성 평가는 해당종교행사에 자주 참석할수록 높았음. 종교행사 출석빈도는 부모 교육수준과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5) 시민교육에 관련된 학교 환경

-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학급 및 학교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있었음.
- 그러나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음. 교사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참여는 중요한 영향력이 없었음.
- 대다수 국가의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 교실 분위기가 토론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응답했음. 정치사회적 관심, 미래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실 분위기가 토론에 개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음.
- 대다수 국가의 학교는 학교구성원(특히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자기 학교의 교실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자기 교실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사회적 이슈나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학교폭력 혹은 집단 괴롭힘에 관한 조사결과, 대다수 참여국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력은 언어적인 괴롭힘이었음. 각국 학교에서는 교내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음. 특히 한국의 학교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교내폭력 대책을 실시하는 편이었음.
- 대다수 국가의 학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과 같은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학습 경험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수준, 그들의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 시민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자신이 시민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한국의 시민교육 담당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들을 교육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논의와 시사점

- ICCS 2009와 2016에 참여한 국가의 약 절반에서 지난 7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향상은 시민지식 평균수준이 높은 국가 뿐만 아니라 낮은 국가에서도 나타났음.
-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기회의 평등에 관해 양성평등과 인종평등을 수용하는 비율은 더 높아졌음. 이는 시민지식의 향상이 기회의 평등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함.

- 국가 간, 국가 내의 시민지식 편차는 여전히 컸음. 어떤 국가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와 시민의식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었음. 그리고 국가 내에서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청소년과 가장 낮은 청소년간의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음.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포괄적으로 시민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요구됨.
- 교내 시민 참여경험이 그 학교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참여할 의지와 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음.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경험과 미래 성인이 되어 투표를 포함한 시민참여에의 의지는 상관관계가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내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시민지식과 미래 시민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함. 전세계적으로 청년세대의 시민참여와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황과,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전통적인 시민참여 의지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큰 의미가 있음.
- 교실내 시민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 시민교육 담당 교사들의 준비수준과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시민교육의 실현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한국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더 많은 교육·훈련과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6년 조사결과 데이터는 IEA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음. 2022년으로 예정된 제3차 ICCS 는 이민자의

증가, 시민참여의 통로로서 새로운 소셜 미디어의 확산, 글로벌 시민 의식의 중요성 증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 이 보고서는 현시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그리고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교육을 이해하고 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 다양한 국가와 사회 간의 비교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시키는 일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교육에 대한 이 연구의 가치는 매우 크며, 향후에 더 다양한 지역, 문화 및 사회의 참여가 필요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연구보고 18-R15-1

I. 국제 시민성 및 시민 의식 비교조사(ICCS) 개요	1
1. 연구 개요	3
2. NYPI의 청소년역량지표연구와의 관계	5
3. 연구문제	6
4. 조사들의 구성	8
5. 조사방법과 데이터 수집	14
II. 각국의 민주시민 교육환경	17
1.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적 환경	19
2. 교육의 자율성 수준	24
3.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와 내용	28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교육 현황	32
III.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35
1. 시민지식의 정의와 측정 도구	37
2. 시민지식 측정결과	48

IV.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61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시민참여	63
2.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	67
3.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70
4. 청소년들의 학교밖 시민참여	74
5. 청소년들의 미래 시민참여	76
V.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79
1. 민주주의에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81
2. 전통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86
3. 진보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89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	92
5. 평등한 권리에 대한 태도	95
6. 세계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태도	100
7.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	103
VI. 학교 공동체와 학교 환경	107
1. 학생들의 교내 투표 참여	110
2.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111
3. 교실의 분위기	115
4. 학교내 폭력(집단 괴롭힘)	122
5.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의 실천기회	133
6.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내 활동	137
7. 교실내 시민교육 실태 및 교사의 준비수준	141
VII. 결론	151
1. 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	153
2.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69

표 목차

표 I - 1	청소년 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 비교	4
표 I - 2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5
표 I - 3	조사도구에서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내용 영역이 차지하는 문항 수	8
표 I - 4	맥락적 틀의 변인 배치(예시)	14
표 I - 5	조사 내용, 대상 및 조사 단계별 시간	15
표 I - 6	ICCS 2009 및 ICCS 2016 주요 조사 도구의 문항 수 및 비율	15
표 II - 1	ICCS 2016 참여국들의 사회인구지표 및 경제적 특성	21
표 II - 2	ICCS 2016 참여국들의 정치적 환경 특성 (HDI순)	22
표 II - 3	ICCS 2016 참여국의 교육환경 특성 (HDI순)	23
표 II - 4	ICCS 2016 참여국의 학교 자율성 현황(HDI순)	25
표 II - 5	시민교육 관련 계획수립시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대한 학교장 응답 결과(HDI순)	26
표 II - 6	각국의 중2학년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을 교육하는 형식 (HDI순)	27
표 II - 7	ICCS 2016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자국의 시민교육의 우선 목표들 (HDI순)	29
표 II - 8	교장이 선택한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3개 선택) (학생 비율%로 환산) (HDI순)	30
표 II - 9	교사들이 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택한 내용(3개 선택) (HDI순)	31
표 II - 10	조사대상 학년(중2)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이나 연수 현황(HDI순)	33
표 II - 11	시민교육 담당교사가 받은 교육이나 연수 내용(HDI순)	34
표 III - 1	예시문항1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41
표 III - 2	예시문항2 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42
표 III - 3	예시문항3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43

표 III- 4	예시문항4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을	44
표 III- 5	예시문항5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을	45
표 III- 6	예시문항6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을	46
표 III- 7	예시문항 7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을	47
표 III- 8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측정결과(점수 순) ..	49
표 III- 9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 수준 측정결과 (Level A 점수 순)	51
표 III-10	ICCS 2009 대비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변화 (변화량 순)	53
표 III-11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성별 차이 (차이 순)	55
표 III-12	ICCS 2016 참여국가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 교육수준/책 보유 수량과 자녀의 시민지식 점수 간의 관계	58
표 III-13	ICCS 2016 참여국가별 이민자 배경 및 사용언어와 시민지식 점수 간의 관계	59
표 IV- 1	매체와 대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현황 ..	64
표 IV- 2	참여국가별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참여율 순)	66
표 IV- 3	ICCS 2009 대비 ICCS 2016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결과 차이	67
표 IV- 4	부모의 교육수준, 시민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	69
표 IV- 5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71
표 IV- 6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 참여의사	72
표 IV- 7	참여국가별 성별/정치 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교내 시민참여 의사	73
표 IV- 8	ICCS 2016 참여국가별 학교밖 시민참여 경험	75
표 IV- 9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 참여 의사	77
표 I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부모 학력/정치 관심/ 시민지식 점수와 미래 투표 참여 의사	78
표 V- 1	전형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bad)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84
표 V- 2	전형적으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good)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85

표 V- 3	전통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87
표 V- 4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전통적 시민의식 중요성의 인식 차이	88
표 V- 5	진보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별 인식	90
표 V- 6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진보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91
표 V- 7	좋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인식	93
표 V- 8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94
표 V- 9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 평등 수용율	97
표 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 관련 변인들	98
표 V-11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	99
표 V-12	세계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101
표 V-13	중앙정부, 국회, 법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수준 (2016년-2009년)	104
표 V-14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기관 신뢰 수준	105
표 VI- 1	학교장이 응답한 교내 선거 학생 참여율	113
표 VI- 2	학교장이 응답한 학교 공동체의 참여 현황	114
표 VI- 3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내 토론에의 개방성 수준	117
표 VI- 4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내 토론개방성의 시민적 관심수준/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	118
표 VI- 5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수준	120
표 VI- 6	성별/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교사- 학생관계 인식 점수	121
표 VI- 7	언어적/신체적 학교 폭력 노출 경험 비율(%)	124
표 VI- 8	성별/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비율 차이	126
표 VI- 9	학교폭력 관련 상황 발생을 인지한 비율 (%, 재학생수 기준)	128
표 VI-10	교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학교의 노력	131
표 VI-11	교내 괴롭힘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 비율	132
표 VI-12	학교수준에서 민주시민 활동에 참여할 기회 인식 현황 ..	135

표 VI-13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36
표 VI-14	학교에서의 환경보호 활동 실천 현황	139
표 VI-15	교내환경보호 활동 학생과 교사 참여 현황	140
표 VI-16	교실 내 시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수준	144
표 VI-17	정치관심/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이 인식한 시민교육 경험	145
표 VI-18	교실에서 교사가 시민교육에 사용하는 교수방법	146
표 VI-19	시민교육 주제 및 기술별로 교사로서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	149

그림 목차

그림 Ⅰ-1	시민교육 관련 요인과 교육 성과의 관계 개념도	13
그림 Ⅲ-1	ICCS 시민지식 점수와 HDI 지수 간 관계	48
그림 Ⅲ-2	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level)별 분포	52
그림 Ⅲ-3	ICCS 2009 대비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변화	54
그림 Ⅲ-4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성별 차이	56
그림 Ⅳ-1	ICCS 2009 대비 ICCS 2016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결과 차이	68



제 I 장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IS) 개요

- 1. 연구 개요
- 2. NYPI의 청소년역량
지표연구와의 관계
- 3. 연구문제
- 4. 조사들의 구성
- 5. 조사방법과 데이터
수집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IS) 개요¹⁾

1. 연구 개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는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 사회에서 건강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Schultz 등, 2016, p.1).

ICCS는 현재까지 수행 되고 있는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상황에 관한 가장 엄정하고 공신력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비교 조사이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세계 각국에서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적절히 교육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ICCS 역시 세계 각국의 미래세대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단위로 시민교육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PISA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 역시 OECD 주도로 각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엄정한 표본 선정과 조사도구의 동등성 확인절차를 거친다.

1)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Schulz et al.(2018).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2018)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제시하였다.

표 1-1 청소년 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 비교

	PISA	TIMS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등4, 중등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수학·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 요인	학생들의 수학·과학 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초등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 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참여수준, 공동체 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72개국 (2015)	57개국 (2015)	35개국 (2011) 50개국 (2016)	38개국 (2009) 24개국 (2016)
조사주기	3년	4년	5년	7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PISA와는 달리, 이 조사는 2009년에 현재의 틀을 완성한 이후 7년이 지난 2016년에 2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다가오는 2022년에 제 3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2년에 실시할 제3차 ICCS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회기에 실시했던 조사 문항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이 제기된 연구문제를 포함한 신규 조사 문항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측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포괄할 예정이다.

표 1-2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수행 연도	명칭	참가국	조사대상
1999	CivED (Civic Education Study)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브 공화국,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28개국 ²⁾	학생 (8학년), 교사, 학교장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0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파라과이, 폴란드,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뉴질랜드 38개국	학생 (8학년), 교사, 학교장
2016	ICCS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유럽 16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남미 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시아 3개국) 대만, 한국, 홍콩 총 24개국 ³⁾	학생 (8학년), 교사, 학교장
2022	ICCS 2022	기존 참가국 + 아시아/유럽국가 추가예정 2021년 예비조사 / 2022년 본조사 실시	학생 (8학년), 교사, 학교장

2. NYPI의 청소년역량지표연구와의 관계

ICCS의 내용은 한국에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얼마나 잘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향후에 요구되는 역량 정책을

- 2)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조사에만 참가, 이스라엘은 데이터 일부만 제출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3) ICCS 2016 에서 수집한 한국, 홍콩, 그리고 독일의 국가데이터는 IEA에서 설정한 국가 간 비교에 요구되는 표본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IEA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표시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4차 년도 연구보고서(장근영 외, 2017, p.491)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시하고자 청소년역량지표 연구사업과 부합한다. 청소년역량지표 중 사회참여역량은 ICCS가 측정하는 시민성 및 시민의식의 내용과 영역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지표 개발 및 국제 비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ICCS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 사회참여역량의 문항구성 과정에서 ICCS의 개념구조와 문항구성 원칙을 참고하였으며, ICCS의 일부 문항은 IEA의 동의를 얻어 본 과제의 청소년역량지표에 포함시켰다.

3. 연구문제

2016년도 ICCS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문제는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현황,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의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각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맥락의 실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연구문제 1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별 정책과 체계

(a) 조사 참여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국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국가교육과정 계획, 법령 등)를 참고한 국가맥락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b) 조사 참여국의 민주시민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원칙은 무엇인가?

각국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공식자료 및 학교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했다.

(c) 2009년 대비 민주시민교육정책의 변화 여부 및 내용

2) 연구문제 2 : 국가 내, 국가 간 청소년들의 시민지식현황

- (a) 청소년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시민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성별, 가족 특성, 사회경제적 지표와 기타 배경 변인이 시민지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b)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 요인은 무엇인가? 가정 배경, 학교 특성과 시민지식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C) 2009년 대비 시민지식 수준의 변화양상

3) 연구문제 3 : 청소년들의 학교내 학교밖 참여현황과 관련 변인

- (a) 청소년들의 교내외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현황
- (b)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기대) 및 시민참여에 대한 가치부여 현황
- (C) 청소년들의 미래 시민참여 의지와 기대(behavioral intentions)
- (d) 2009년 대비청소년 시민참여현황의 변화양상

4) 연구문제 4 : 최근 시민사회의 주제들(civic issues)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태도와 평가 및 관련 요인

- (a) 공공기관(civic institutions), 제도, 사회전반에 대한 태도
- (b)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원칙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
- (C)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국가정체성, 공동체의식 등)
- (d) 2009년 대비 청소년들의 태도 변화양상

5) 연구문제 5 : 각국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민
지식 성취도간의 관계

- (a)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체계 및 교수법
- (b) 교내 청소년 시민참여 여건 및 실태 (교내참여기회, 교실개방성 등)
- (C) 학교밖 청소년 시민참여 환경과 실태
- (d)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

4. 조사들의 구성

ICCS 2016의 조사들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개념(civics and citizenship framework)과 이 개념의 배경맥락(context framework)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프레임은 아래 표 I -3과 같다.

표 I -3 조사도구에서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내용 영역이 차지하는 문항 수
(단위 : 개)

	내용영역				합계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사회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인지적 영역					
아는 것	12	9	2	0	23
추론 및 적용	24	18	19	4	65
합계	36	27	21	4	88
정의적-행동적 영역					
태도	42	21	5	5	73
참여	5	8	35	2	50
합계	47	29	40	7	133

1) 민주주의 시민의식 개념 틀

이 틀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주요 ‘내용 영역 차원’(content dimension) 이고, 다른 차원은 다시 ‘인지적 영역’ 및 ‘정의적-행동적 영역’의 두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차원별 하위영역과 그 영역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내용 영역 차원의 하위 4개 영역

- ① 시민사회와 시스템 :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맺은 시민 계약, 사회가 작동하는데 근간이 되는 형식적, 비형식적 시스템 및 작동구조를 다룬다. 하위 영역은 아래와 같다.

- 시민 : 시민의 역할, 권리, 책임, 그리고 기회
- 국가기관 : 시민사회 정부의 핵심인 행정 및 입법기관
- 민간기관 : 회사, 노조, 정당, NGO, 미디어, 시민단체, 종교, 학교 등 시민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주고 국가기관과 개별시민간의 계약관계 형성을 매개해주는 기관들

- ②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자 윤리적 원칙이다. 모든 시민들은 이 기본 원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된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시민활동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4개 영역으로 나뉜다.

- 평등 :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자유 : 신념, 표현의 자유, 공포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공동체 의식 : 사회 내 공동체와 개인 간의 소속감, 연계감, 공동의 책임과 비전의 공유
- 법치 : 모든 시민, 기관 및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③ 시민참여 :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동들로서 단순히 필요성이나 가치의 인식부터 실제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음 3개 영역으로 나뉜다.

- 의사결정 : 조직 운영참여와 투표
- 영향력 행사 : 공공 토론, 시위, 제안서 개발, 윤리적 소비 등
- 공동체 참여 : 자원봉사, 조직이나 단체에 참여, 정보 수집

④ 시민정체성 :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과 내용을 다루며, 다음 2개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 시민적 자아상 : 개인이 속한 시민 공동체에서 경험한 자신의 위치
- 시민적 유대감 : 개인이 다양한 시민 공동체와 각 공동체에서 개인이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갖는 유대감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유대감,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등)

(2) 인지적 영역(cognitive process)의 하위 2개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두 축으로 구성된다.

- ① 아는 것(Knowing) :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들을 이해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해당되는 개념을 떠올리는 능력이다
- ② 추론 및 적용(Reasoning and applying) : 시민의식과 시민성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의 개념을 넘어서는 폭넓은 결론에 도달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

(3) 정의-행동 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의 하위 2개 영역

개인적인 신념, 인식, 성향, 행동의도 및 행동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 ① 태도(Attitudes): 정의적-행동적 영역인 태도는 아이디어, 사람, 사물, 사건, 상황 또는 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사회의 기본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담고 있다.
- ② 참여(Engagement): 가까운 미래 또는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시민 활동에 참여할 의지, 그리고 정치적 주제에 대한 관심과 자신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참여지표는 다시 참여에 관련된 개인적 성향과 참여의지, 그리고 실제 시민참여행동 으로 분류된다.

2) 맥락 틀(context framework)

모든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배경맥락 속에서 학습하며 성장한다. 학교와 가정은 또한 지역공동체라는 더 큰 배경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지역공동체는 더 큰 맥락인 지역(sub-national), 국가 그리고 국제적 환경이라는 배경 맥락 속에 존재한다. ICCS에서는 이 중에서 다음 4개 수준까지의 맥락을 조사 범주 안에 넣는다.

(1) 광범위한 공동체 맥락

이 수준의 맥락은 학교와 가정을 포괄하는 배경 맥락인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수준을 말한다.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우에는 초국가적 맥락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가상 공동체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학교와 교실 맥락

이 단계의 맥락은 학생들이 받는 수업, 학교 문화, 전반적인 학교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⁴⁾

(3) 가정과 또래 환경 맥락

이 단계의 맥락은 가정 배경과 학생이 학교 밖에서 가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예를 들어 또래집단 활동)와 관련된 변인을 의미한다.

(4) 개인 맥락

이 단계의 맥락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맥락적 변인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선행 요인과 과정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 선행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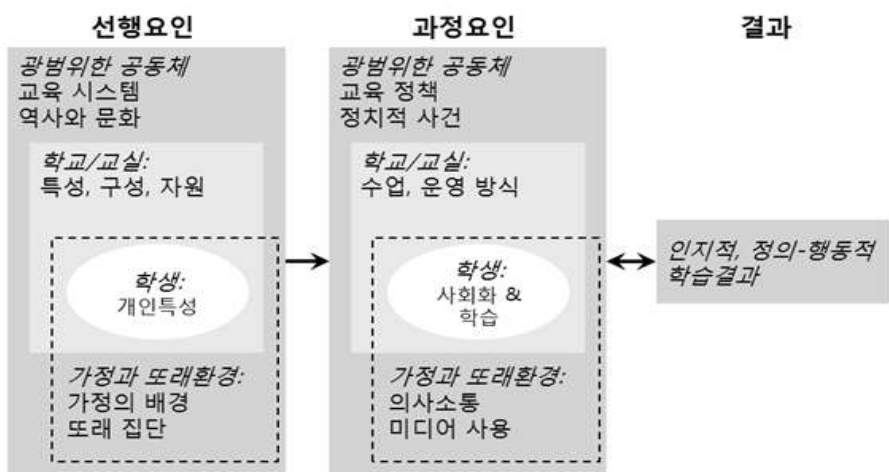
학생의 학습과 시민의식에 관한 이해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리킨다. 선행 요인은 단계별로 다르며, 상위 단계의 선행요인과 과정 요인이 하위 단계의 선행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사 교육은 역사적인 요인이나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과정 요인

시민의식에 관한 학습과 이해, 역량 및 성향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변인을 가리킨다. 과정 요인은 선행 요인의 제약을 받으며, 상위 단계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ICCS의 표집 설계 방식으로 인해 학교 수준과 교실 수준은 구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 당 한 학급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I-1은 민주시민교육 결과에 각 맥락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결과와 교육 과정 사이에 순환피드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과정과 결과는 양방향 화살표로 표기했다. 반면에 선행 요인과 과정 요인은 단일방향(unidirectional) 관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의 과정 요인은 하위 단계 선행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학습 과정의 선행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 Schulz et al.(2016). p.54.

그림 I-1 시민교육 관련 요인과 교육 성과의 관계 개념도

표 I-4는 맥락 틀에 해당하는 변인의 데이터를 어떤 경로로 수집했는지를 간략히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지역사회 맥락 데이터는 국가맥락조사와 기타 가용한 데이터를 통해 수집한다. 학교와 교실의 맥락에 관한 데이터는 학교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다. 학생 배경 설문지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가정 배경에 관련한 선행요인 정보와 과정 관련 변인(예를 들어 학습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학생용 인지 검사와 학생의 인식 설문지를 통해서 학습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학생 배경 설문지에는 학생의 시민 활동에 관한 문항 담겨있는데, 이는 내용영역 3(시민 참여)의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지표로도 활용된다.

표 I -4 맥락적 틀의 변인 배치(예시)

단계	선행 요인	과정 요인	결과
광범위한 공동체	국가맥락조사 및 기타 자원 : 민주주의 역사 교육체제	국가맥락조사 및 기타 자원 : 의도된 교육과정 정치발전	학생용 인지 검사 & 학생용 설문조사/ 지역 특수 모듈 조사 학생의 태도와 참여
학교/교실	학교용 설문 & 교사용 설문 : 학교 특성 자원	학교용 설문 & 교사용 설문 : 실행된 교육과정 정책 및 실행	
학생	학생용 설문 : 성별, 연령	학생용 설문 : 시민교육 실제 참여 경험	
가정과 또래 환경	학생용 설문 : 부모의 SES 인종, 언어, 출생국가	학생용 설문 : 가족 간 의사소통 또래 간 의사소통 미디어 관련 정보	

NCS= 국가맥락조사; ScQ= 학교용 설문조사; TQ= 교사용 설문조사; RQ: 지역 특수 모듈 조사; StQ= 학생용 설문조사; StT= 학생용 인지 검사; SES= 사회경제적 지위

5. 조사방법과 데이터 수집

ICCS 조사는 크게 두 영역을 측정한다. 하나는 시민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측정하는 성취도 검사이다. 이 검사는 실제로 학과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시간제한과 채점기준을 가지고 실시되며,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성취도 수준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두 번째 영역은 비인지적인 것이다. 이 영역의 조사는 시민성과 시민의식과 관련된 가치관, 태도, 행동, 행동의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엄격한 시간제한은 없고 정답이나 오답도 정해져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유사하다. 전체 조사내용별 조사절차와 소요시간은 아래 표 I -5와 같다.

표 I -5 조사 내용, 대상 및 조사 단계별 시간

조사 도구	응답시간	조사 대상
시민지식 검사	45분	학생
정의-태도영역설문지	40분	학생
교사용 설문지	30분 이내	교사
학교장용 설문지	30분 이내	교장
국가맥락조사지	해당사항 없음	국가별 조사책임자

실제 청소년들은 시민지식 검사의 경우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며, 8개 클러스터(cluster)로 배분하여 조합한 일부 문항에만 응답하되, 데이터 수집과 채점과정을 통해 이를 환산하여 전체 인지영역의 능력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ICCS 2016 학생용, 교사용 및 학교용 설문지에는 ICCS 2009에서 사용한 문항과 동일하거나 약간 수정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I -6〉에는 ICCS 2009와 새롭게 개발한 조사 도구(ICCS 2016)의 문항 수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용 검사와 학교용 설문지 문항의 절반가량이 새로 개발되었다. 학생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에서 신규 개발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조금 낮은 약 3분의 1이다.

표 I -6 ICCS 2009 및 ICCS 2016 주요 조사 도구의 문항 수 및 비율

구분	ICCS 2009 문항	ICCS 2016 문항	합계
시민지식 검사지	42(48%)	46(52%)	88
정의-태도영역 설문지	115(64%)	64(36%)	179
교사용 설문지	49(66%)	25(34%)	74
학교장용 설문지	57(54%)	49(46%)	106

주의 : 선택적 문항 정보는 이 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



제Ⅱ장 각국의 민주시민 교육환경

- 1.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적
환경
- 2. 교육의 자율성 수준
- 3.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와 내용
-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교육 현황



1.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적 환경

ICCS 2016 참여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표 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통해서 참여국들은 인구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개국 중 몰타는 가장 작은 국가로 인구는 431,000 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러시아와 멕시코의 인구는 1억 명 이상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컸다. 한국의 인구는 이탈리아 다음인 4위로서 참여국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국가에 해당했다.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 (HDI)는 평균 수명, 국민들의 교육수준(문맹률 포함) 및 국민총생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종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⁵⁾. 참여국 중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는 HDI가 높은 국가였고, 독일의 북 라인-웨스트팔리아 지역은 HDI에서 4위에 해당했다. HDI가 낮은 국가들은 모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다. 한국은 HDI 순위로 전체국가 중 18위이고 조사국 중에서는 7위로서 홍콩과 스웨덴 다음 순위였고 대만보다 3단계 높다.

5) 인간개발지수(HDI)는 국가별 삶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 지표 중의 하나로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차보고서에 인용되고 있다. HDI는 해당국가 국민들의 소득격차를 반영한 '소득지수', 평균수명을 반영한 '기대수명지수' 그리고 문맹율과 학령기 청소년들 중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을 반영한 '교육지수'를 각각 1/3씩 합산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HDI 지수가 .9 이상인 국가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인 국가들도 존재한다.

GDP 지수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았고, 페루가 가장 낮았다. 한국은 10위로서 참여국 중에서는 중간 수준에 해당했으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최상위인 노르웨이와 최하위인 페루의 GDP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ICCS 참여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II-2는 각국의 정치적 환경을 요약한 것이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최저연령선, 국가 총선거에서의 투표가 의무사항인지의 여부, 2016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확인된 투표율, 다당제 여부, 여성의 국회 진출비율이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반면, 한국은 투표연령이 19세로 20세인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예외인 2개 국이었다. 의무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벨기에와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4개국 뿐이었다. 최근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몰타(93%)와 벨기에(92.5%)였고, 콜롬비아(43.6%)와 의무투표 제도를 채택한 멕시코(47.7%)는 가장 낮은 국가였다. 이는 의무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016년 총선 투표율 58%로 참여국 중 18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3은 국가별 교육정책 현황을 보여준다. 국가의 기초 교육성취도를 반영하는 성인 문해력은 모든 국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가 100%로 가장 높았고 도미니카와 콜롬비아가 95% 이하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98%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16번째에 해당했으나 나머지 국가와의 차이가 매우 적어서 순위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국가총생산(GDP)대비 공교육예산의 비율에서는 큰 격차가 발견되었다. GDP의 8.5%를 공교육예산으로 투입하는 덴마크가 있는 반면, GDP의 2.1%만을 투입하는 도미니카도 있었다. 이 수치의 상위권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몰타, 벨기에 등이 있었고, 하위권에는 도미니카, 불가리아, 홍콩, 페루, 이탈리아 등이 있었다. 한국은 GDP의 4.6%를 공교육예산으로 사용해서 참여국 중에서는 15위에 해당했다. 인터넷 접속가능 인구비율은 노르웨이가 97%로 가장 높았고, 페루가 41%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90%로 참여국 중에서는 6위에 해당했다.

표 II-1 ICCS 2016 참여국들의 사회인구지표 및 경제적 특성

국가	인구	인간개발지수(HDI)			국가총생산(GDP) (USD \$)
		값	순위	분류	
노르웨이	5,190.24	0.949	1	최상	64,451
독일	17,865.52 ⁵	0.926 ⁶	4	최상	44,053 ⁶
덴마크	5,683.48	0.925	5	최상	43,415
네덜란드	16,939.92	0.924	7	최상	46,374
홍콩	7,305.70	0.917	12	최상	53,380
스웨덴	9,799.19	0.913	14	최상	45,296
한국	50,617.04	0.901	18	최상	34,387
대만	23,464.79 ³	0.882 ⁴	21	최상	47,800 ³
벨기에	6,477.80 ¹	0.896 ²	22	최상	41,138 ²
핀란드	5,479.53	0.895	23	최상	38,643
슬로베니아	2,063.53	0.890	25	최상	28,942
이탈리아	60,730.58	0.887	26	최상	33,587
에스토니아	1,314.61	0.865	30	최상	26,930
몰타	431.87	0.856	33	최상	28,822
리투아니아	2,904.91	0.848	37	최상	26,397
칠레	17,948.14	0.847	38	최상	22,145
라트비아	1,977.53	0.830	44	최상	22,628
크로아티아	4,203.6	0.827	45	최상	20,430
러시아	144,096.87	0.804	49	최상	23,895
불가리아	7,177.99	0.794	56	상	16,956
멕시코	127,017.22	0.762	77	상	16,502
페루	31,376.67	0.740	87	상	11,672
콜롬비아	48,228.70	0.727	95	상	12,988
도미니카	10,528.39	0.722	99	상	13,375

* 출처 : HDI 및 국가총생산지수는 UNDP(2016), 인구규모는 World Bank Indicators를 참고함.

- * 그 외 출처 : 1) <http://statbel.fgov.be/nl/statistieken/cijfers/bevolking/> (20/04/17)
 2) Data refers to the whole of Belgium.
 3) Data estimated for 2016. Source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w.html> (20/04/17)
 4) Estimated for 2014. Source : [http://focustaiwan.tw/news/asoc/\(201409180039.aspx](http://focustaiwan.tw/news/asoc/(201409180039.aspx) (20/04/17)
 5) Based on 2011 data. Source : <https://www3.arbeitsagentur.de/web/content/DE/service/Ueberuns/Regionaldirektionen/NordrheinWestfalen/ZahlenDatenFakten/Strukturdaten/index.htm> [17/07/17]
 6) Data refers to the whole of Germany.

표 II-2 ICCS 2016 참여국들의 정치적 환경 특성 (HDI순)

국가	투표 연령	의무투표 여부 (Y/N)	가장 최근 국민투표 참여율 (투표 실시 년도)		원내 정당 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노르웨이	18	N	78.2	(2013)	8	40
독일	18	N	59.6 ³	(2012)	5 ³	27 ³
덴마크	18	N	85.9	(2015)	9	37
네덜란드	18	N	74.6	(2012)	11*	39*
홍콩	18	N	58.0 ²	(2012)	14 ²	16 ²
스웨덴	18	N	85.8	(2014)	8	44
한국	19	N	58.0	(2016)	5	17
대만	20	N	66.0 ²	(2016)	5 ²	38 ²
벨기에	18	Y	92.5	(2014) ¹	7 ¹	44 ¹
핀란드	18	N	70.1	(2015)	9	42
슬로베니아	18	N	51.7	(2014)	8*	36
이탈리아	18	N	75.2	(2013)	7*	28*
에스토니아	18 ⁴	N	64.2	(2015)	6	24
몰타	18	N	93.0	(2013)	2	14
리투아니아	18	N	52.9	(2012)	8	24
칠레	18	N	49.3	(2013)	8*	16*
라트비아	18	N	58.9	(2014)	6	19
크로아티아	18	N	60.8	(2015)	9	15
러시아	18	N	60.1	(2011)	4*	14*
불가리아	18	N	54.1	(2014)	8	20
멕시코	18	Y	47.7	(2015)	9	42
페루	18	Y	82.0	(2016)	6	28
콜롬비아	18	N	43.6	(2014)	14*	19*
도미니카	18	Y	69.6	(2016)	10*	27*

* 출처 : IPU Parline database 그 외 출처는 이하 표기

* 그 외 출처 :

- 1) 벨기에 통계는 Flemish 지역에 국한된 자료임
[http://polling\(2014.belgium.be/en/via/results/results_start.html](http://polling(2014.belgium.be/en/via/results/results_start.html) (20/04/17)
- 2) Central Intelligent Agency(2015).
- 3) North Rhine-Westphalia 주 의회.
- 4) 단, 지자체 선거의 투표 연령은 16세임
*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하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표 II-3 ICCS 2016 참여국의 교육환경 특성 (HDI순)

국가	성인문해력 (%)	공교육 예산 비중 (% of GDP)	인터넷 접속가능 (전체 인구 대비 %)
노르웨이	100%*	7.4	97
독일	99%* ³	4.9 ³	88 ³
덴마크	99%*	8.5	96
네덜란드	99%*	5.6	93
홍콩	94%*	3.6	85
스웨덴	99%*	7.7	91
한국	98%*	4.6	90
대만	99% ¹	4.3	88
벨기에	99%* ²	6.4 ²	85 ²
핀란드	100%*	7.2	93
슬로베니아	100%	5.7	73
이탈리아	99%	4.1	66
에스토니아	100%	4.7	88
몰타	94%	6.8	76
리투아니아	100%	4.8	71
칠레	97%	4.6	64
라트비아	100%	4.9	79
크로아티아	99%	4.2	70
러시아	100%	4.2	73
불가리아	98%	3.5	57
멕시코	94%	5.2	57
페루	95%	3.7	41
콜롬비아	95%	4.7	56
도미니카	92%	2.1 ¹	52

* 참고 : 성인문해력의 기준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율

* 출처 : 성인문해력 및 공교육 예산비중은 UNDP(2016) 2005에서 2015/2014년까지 수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접속가능 인구비율은 Central Intelligent Agency(2015)를 참고함.

* 그 외 출처 : 1) CIA World factbook relating to 2015

2) 벨기에 전체

3) 독일 전체

* CIA World factbook의 2000-2004년 자료, 이후 데이터 없음

2. 교육의 자율성 수준

공식적인 국가발표 자료를 기초로 조사대상국가에서 학교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HDI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학교에게 예산배분과 교과계획수립, 교수방법, 교원/교직원채용, 학생모집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도미니카와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국가에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자율성만에 허용되었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국가로 분류되었다.

학교장에게 직접 학교의 자율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자율성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에서는 교과서와 교재선택, 학생성취도 평가도구 선택, 교과과정 설계, 교사연수 프로그램 내용, 방과후 혹은 비교과 활동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교장의 비율이 모두 90% 이상으로 참여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기관 및 협회와의 협약체결이나 타학교와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분야에서는 자율성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II-6은 각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교육법령과 같은 국가 공식 발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 노르웨이와 같이 모든 교육 장면과 채널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이나 몰타처럼 인문사회과목에 포함된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되는 국가도 있었다.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제한된 형태로 실시되는 국가 중의 하나였다.

표 II-4 ICCS 2016 참여국의 학교 자율성 현황 (HDI순)

국가	예산 배분	교과계획 수립	교수법	교사/교직원 채용	학생 모집
노르웨이	●	○	●	●	●
독일	●	●	●	●	●
덴마크	●	●	●	●	●
네덜란드	●	●	●	●	●
홍콩	●	●	●	●	●
스웨덴	●	○	●	●	●
한국	●	●	●	○	●
대만	●	●	●	●	●
벨기에	●	●	●	●	●
핀란드	●	●	●	●	●
슬로베니아	○	○	●	●	●
이탈리아	●	●	●	○	●
에스토니아	●	●	●	●	●
몰타	●	○	●	○	●
리투아니아	○	●	●	●	●
칠레	●	●	●	●	●
라트비아	●	●	●	●	●
크로아티아	○	○	●	●	●
러시아	●	●	●	●	●
불가리아	●	●	●	●	●
멕시코	○	○	○	○	●
페루	○	●	○	●	●
콜롬비아	○	●	●	○	●
도미니카	○	○	○	○	●

* 주 : ● =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
 ● = 어느 정도의 자율성 보장
 ○ = 자율성 낮음

표 II-5 시민교육 관련 계획수립시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대한 학교장 응답 결과(HDI순)

국가	교과서 및 교재 선택	학생 성취도 평가 절차 및 도구 선정	교과과정 설계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내용 결정	정교과과 외 활동	기관 및 협회의 협약 체결	국내외 타학교와 공동프로젝트 참여	인간 개발 지수
노르웨이	96 (1.7) ▲	78 (3.4) ▽	93 (2.2) ▲	44 (4.5) ▼	71 (4.1) ▼	80 (3.7)	88 (2.9)	1
독일 (r)	97 (2.0)	90 (3.2)	85 (4.5)	100	99 (0.7)	100	96 (2.8)	4
덴마크	99 (0.8) ▲	65 (4.0) ▼	87 (2.7) △	77 (3.5)	71 (3.9) ▼	94 (1.9) △	93 (1.8) △	5
네덜란드 (r)	98 (1.6) ▲	99 (1.0) ▲	100	100	99 (1.2) △	88 (3.3)	96 (2.1) ▲	7
홍콩	95 (2.3)	98 (1.5)	97 (1.8)	97 (2.0)	96 (2.0)	93 (2.6)	87 (3.4)	12
스웨덴	97 (1.4) ▲	84 (3.4)	99 (1.0) ▲	91 (2.6) ▲	88 (2.8)	81 (3.7)	90 (2.7) △	14
한국	98 (1.1) ▲	98 (1.7) ▲	98 (1.3) ▲	98 (0.9) ▲	100	89 (3.2)	71 (5.5) ▼	18
대만	99 (0.8) ▲	99 (1.0) ▲	96 (1.8) ▲	97 (1.4) ▲	100	90 (2.7)	71 (3.9) ▼	21
벨기에	100	100	27 (4.2) ▼	99 (0.9) ▲	98 (0.9) △	97 (1.4) ▲	94 (2.3) △	22
핀란드	100	90 (2.2)	89 (2.4) △	87 (2.8) △	96 (1.5) △	83 (2.6)	94 (1.7) △	23
슬로베니아	95 (1.9)	87 (3.0)	49 (4.4) ▼	83 (3.2)	96 (1.6) △	94 (2.2) △	94 (2.1) △	25
이탈리아	98 (1.1) ▲	98 (1.1) ▲	99 (0.8) ▲	98 (1.2) ▲	98 (0.9) △	98 (0.4) ▲	92 (2.0) △	26
에스토니아 (s)	88 (2.8)	79 (4.3)	76 (5.1)	83 (4.0)	98 (1.1) △	89 (3.3)	93 (2.7) △	30
몰타	49 (0.4) ▼	56 (0.4) ▼	50 (0.4) ▼	70 (0.4) ▽	97 (0.2) △	73 (0.5) ▼	80 (0.5) ▽	33
리투아니아	97 (1.6) ▲	97 (0.9) ▲	78 (2.9)	95 (1.7) ▲	97 (1.4) △	98 (1.1) ▲	98 (1.1) ▲	37
칠레	67 (3.9) ▼	91 (2.4) △	83 (3.5)	71 (3.7) ▽	91 (2.3)	80 (3.3)	74 (3.6) ▼	38
라트비아	94 (2.6) △	87 (3.1)	83 (4.0)	75 (3.7)	100	98 (1.2) ▲	97 (1.4) ▲	44
크로아티아	89 (2.7)	85 (3.1)	91 (2.9) ▲	74 (3.8)	93 (2.7)	93 (2.7) △	86 (3.1)	45
러시아	82 (3.2)	89 (2.5)	84 (2.8)	81 (3.7)	97 (1.3) △	94 (1.5) △	93 (1.9) △	49
불가리아	96 (1.6) ▲	90 (2.3)	82 (3.4)	95 (1.9) ▲	98 (1.1) △	95 (1.9) △	92 (2.1) △	56
멕시코	73 (2.9) ▼	90 (2.3)	68 (3.6) ▼	44 (3.9) ▼	72 (3.8) ▼	60 (3.5) ▼	45 (3.4) ▼	77
페루	37 (3.2) ▼	76 (2.8) ▼	79 (3.1)	60 (3.3) ▼	70 (3.4) ▼	70 (3.4) ▼	54 (3.8) ▼	87
콜롬비아 (r)	88 (3.4)	98 (1.3) ▲	98 (1.1) ▲	84 (3.1)	92 (2.6)	85 (3.4)	83 (3.9)	95
도미니카 (r)	41 (4.4) ▼	77 (3.9) ▽	66 (4.3) ▼	47 (4.7) ▼	82 (3.6) ▽	72 (4.6) ▼	59 (5.0) ▼	99
ICCS 전체	85 (0.5)	86 (0.6)	80 (0.7)	79 (0.7)	91 (0.5)	86 (0.6)	84 (0.6)	

▲ : 전체평균보다 10%p 이상 높음, △ : 전체평균보다 10%p 미만 유의하게 높음, ▽ : 전체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음, ▼ : 전체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표 11-6 각국의 중2학년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을 교육하는 형식 (HDI순)

국가	개별 교과목으로	인문사회 과목의 일부로	모든 교과목에 조금씩 통합되어	비교과 과정으로	학교생활 자체가 시민교육
노르웨이	●	●	●	●	●
독일	●	●	●		●
덴마크	●	●	●		●
네덜란드		●		●	
홍콩	●	●	●	●	●
스웨덴		●	●		●
한국		●			
대만	●	●	●	●	●
벨기에		●	●		●
핀란드	●	●	●		●
슬로베니아	●	●	●		●
이탈리아		●	●		●
에스토니아			●	●	●
몰타		●			
리투아니아		●	●	●	●
칠레		●	●		●
라트비아	●	●			
크로아티아		●	●	●	
러시아	●	●		●	●
불가리아		●	●	●	●
멕시코	●	●	●		
페루	●	●			
콜롬비아			●		
도미니카		●	●		

3.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와 내용

표 II-7은 국가수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개요했다. 한국은 시민교육의 목표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사실과 핵심개념의 전달부터, 시민사회의 핵심가치와 태도, 토론방법,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와 참여, 학교 내 의사결정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애국심과 국민의식, 참여를 통한 긍정적 태도 형성, 갈등해소 방법이해, 투표와 선거의 원칙을 모두 명시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표 II-8은 실제 학교장들이 응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들을 보여준다. 학교장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3개를 선택하도록 해서 해당 학교 재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응답한 학교전체의 학생수 대비 비율로 환산했다. 그 결과, 학교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력 증진(64%),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인식(61%), 갈등해결기술 습득 및 자기효능감 증진(44%),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보호 방법(38%) 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장들의 응답은 ICCS 평균과 약간 달랐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인식(71%), 갈등해결기술 습득 및 자기효능감 증진(64%)을 중요한 목표로 선택한 점에서는 유사했으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력 증진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선택한 학교의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보호 방법(32%) 역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대신 사회/정치/시민기구와 제도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46%)을 더 중요한 목표로 선택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학생참여 증진에 대한 중요성 평가역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표 II-9).

표 II-7 ICCS 2016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자국의 시민교육의 우선 목표들 (HDI순)

국가	기본 사실	핵심개념	핵심가치와 태도	토론으로 소통하기	의사결정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학교 내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애국심과 국민의식	참여를 통한 공정적 태도 형성	강등해소 방법이해	투표와 선거의 원칙	인간 개발 지수
노르웨이	●	●	●	●	●	●	●	●	●	●	●	1
독일	●	●	●	●	●					●	●	4
덴마크	●	●	●	●	●						●	5
네덜란드	●	●									●	7
홍콩	●	●	●	●	●		●	●	●		●	12
스웨덴	●	●	●	●	●	●			●	●	●	14
한국	●	●	●	●	●	●	●	●	●	●	●	18
대만	●	●	●	●	●	●	●	●	●	●	●	21
벨기에	●	●	●	●	●	●	●		●	●	●	22
핀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3
슬로베니아	●	●	●	●	●	●	●	●	●	●	●	25
이탈리아	●	●	●	●	●	●	●	●	●	●	●	26
에스토니아	●	●	●	●	●	●	●	●	●	●	●	30
몰타	●	●	●	●	●	●	●	●	●	●	●	33
리투아니아	●	●	●	●	●	●	●	●	●	●	●	37
칠레	●	●	●	●								38
라트비아	●	●	●	●	●			●				44
크로아티아	●	●	●	●	●	●	●	●	●	●	●	45
러시아	●	●	●	●	●	●	●	●	●	●	●	49
불가리아	●	●	●	●	●	●	●	●	●	●	●	56
멕시코	●	●	●	●	●	●	●	●	●	●	●	77
페루	●	●	●	●	●		●	●	●	●	●	87
콜롬비아	●	●				●	●		●	●		95
도미니카	●	●	●	●		●	●	●	●	●	●	99

* 주: In these countries the learning objectives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re not specified specifically for the target grade

표 II-8 교장이 선택한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3개 선택)(학생 비율%로 환산) (HDI순)

국가	사회/정치/시민 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갈등해결 기술과 효능감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증진	지역사회에의 학생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 생활에 참여 증진	인종차별 감소 전라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참여 준비
노르웨이	54 (4.1)	24 (3.6)	13 (3.1)	34 (4.0)	31 (3.7)	29 (3.7)	79 (3.7)	30 (4.0)	14 (3.2)	3 (1.5)
독일	27 (6.2)	14 (4.5)	18 (5.5)	70 (4.9)	38 (7.5)	2 (2.1)	75 (5.4)	38 (8.2)	33 (5.3)	22 (7.1)
덴마크	61 (3.8)	10 (2.4)	16 (3.0)	37 (3.7)	54 (4.0)	12 (2.3)	84 (2.9)	8 (2.0)	3 (1.0)	19 (3.2)
네덜란드	43 (5.4)	20 (4.0)	33 (4.6)	53 (5.2)	16 (4.0)	29 (4.9)	77 (3.9)	17 (3.9)	5 (2.1)	9 (3.0)
홍콩	53 (5.8)	46 (5.3)	4 (2.4)	7 (2.7)	73 (5.3)	37 (5.2)	58 (5.5)	19 (4.8)	2 (1.4)	1 (1.2)
스웨덴	23 (3.7)	30 (4.5)	14 (2.8)	29 (5.9)	73 (5.8)	3 (2.0)	83 (3.6)	17 (5.3)	31 (4.1)	4 (1.7)
한국	46 (5.9)	32 (5.6)	25 (4.1)	64 (5.5)	71 (4.0)	12 (3.1)	12 (2.8)	40 (5.9)	3 (1.5)	13 (3.4)
대만	32 (3.7)	38 (4.0)	1 (0.8)	49 (4.3)	67 (4.0)	22 (3.5)	70 (4.1)	16 (3.1)	2 (1.3)	2 (1.2)
벨기에	27 (4.0)	40 (4.4)	45 (4.3)	59 (4.7)	26 (4.5)	12 (3.1)	72 (4.2)	33 (4.2)	9 (2.4)	1 (1.0)
핀란드	34 (3.4)	52 (4.1)	12 (2.5)	50 (4.0)	40 (3.5)	11 (2.4)	79 (3.2)	22 (3.3)	9 (2.4)	3 (1.1)
슬로베니아	29 (3.8)	46 (4.5)	43 (4.8)	41 (4.5)	53 (4.3)	21 (3.8)	72 (4.4)	29 (3.7)	10 (2.9)	6 (2.5)
이탈리아	38 (3.7)	28 (3.7)	3 (1.3)	46 (4.0)	75 (3.7)	24 (3.5)	68 (3.6)	13 (2.8)	8 (2.0)	4 (1.6)
에스토니아	67 (5.0)	21 (4.4)	29 (4.6)	27 (4.7)	73 (5.1)	17 (3.8)	80 (4.1)	24 (4.1)	6 (2.5)	15 (3.8)
몰타	28 (0.4)	70 (0.3)	13 (0.4)	23 (0.3)	77 (0.3)	26 (0.3)	66 (0.4)	33 (0.4)	13 (0.2)	6 (0.2)
리투아니아	21 (3.1)	55 (4.5)	22 (3.8)	42 (4.4)	52 (3.9)	44 (3.6)	78 (3.1)	43 (4.3)	6 (2.0)	5 (1.6)
칠레	47 (4.3)	34 (4.2)	17 (3.6)	45 (4.6)	81 (3.7)	46 (4.4)	55 (4.0)	29 (4.2)	5 (2.1)	15 (3.0)
라트비아	35 (4.1)	22 (3.6)	32 (4.8)	20 (3.9)	51 (4.8)	15 (3.3)	64 (4.2)	35 (4.4)	3 (1.4)	25 (3.8)
크로아티아	31 (3.2)	40 (3.9)	30 (4.1)	45 (4.0)	58 (4.1)	29 (3.9)	59 (4.3)	22 (2.7)	5 (1.8)	4 (1.4)
러시아	39 (3.7)	28 (2.8)	34 (4.5)	33 (3.7)	78 (3.5)	22 (2.8)	40 (4.2)	33 (4.1)	5 (1.3)	10 (1.9)
불가리아	44 (4.2)	49 (4.4)	36 (4.2)	37 (4.0)	63 (4.1)	20 (3.4)	46 (4.2)	39 (4.3)	5 (1.9)	10 (2.3)
멕시코	17 (3.0)	54 (4.2)	7 (2.0)	71 (3.2)	74 (4.1)	22 (3.4)	41 (4.2)	21 (3.2)	4 (1.5)	14 (3.0)
페루	20 (3.4)	49 (3.9)	6 (1.8)	56 (3.7)	74 (3.2)	34 (3.4)	46 (3.7)	16 (2.7)	4 (1.4)	10 (2.2)
콜롬비아	35 (4.3)	41 (4.6)	11 (2.6)	78 (4.2)	66 (3.9)	33 (4.2)	34 (4.2)	29 (4.1)	9 (2.1)	20 (4.0)
도미니카	57 (5.0)	43 (4.3)	19 (3.8)	57 (4.8)	90 (2.6)	31 (4.4)	44 (4.6)	25 (4.5)	14 (3.4)	15 (3.3)
ICCS 2016	37 (0.9)	38 (0.9)	21 (0.8)	44 (0.9)	61 (0.9)	24 (0.8)	64 (0.8)	25 (0.8)	8 (0.5)	10 (0.5)

표 II-9 교사들이 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택한 내용(3개 선택) (HDI순)

국가	사회/정치/시민 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강등해결 기술과 효능감을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증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생활에 참여 증진	인종차별 감소 전라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참여 준비
노르웨이	45 (2.3)	39 (1.8)	19 (1.3)	44 (1.8)	36 (2.1)	16 (1.2)	74 (1.6)	16 (1.4)	19 (1.3)	4 (0.6)
독일	29 (0.4)	51 (0.4)	21 (0.3)	47 (0.4)	55 (0.4)	20 (0.3)	61 (0.4)	23 (0.3)	12 (0.3)	8 (0.3)
덴마크	44 (2.7)	21 (1.7)	22 (1.9)	43 (2.2)	45 (2.4)	8 (1.6)	91 (1.5)	12 (1.9)	6 (1.3)	18 (1.9)
네덜란드	23 (1.3)	34 (1.5)	38 (1.5)	56 (1.6)	23 (1.2)	21 (1.2)	70 (1.6)	17 (1.1)	13 (1.2)	9 (0.8)
스웨덴	19 (1.3)	44 (1.3)	13 (1.0)	28 (1.4)	64 (1.6)	2 (0.5)	80 (1.1)	15 (1.2)	38 (1.4)	6 (0.8)
한국	38 (1.3)	34 (1.9)	27 (1.5)	64 (1.4)	53 (1.7)	11 (0.9)	24 (1.4)	34 (1.5)	2 (0.4)	14 (1.0)
대만	28 (1.0)	56 (1.3)	6 (0.7)	60 (1.1)	51 (1.3)	14 (0.8)	65 (1.1)	15 (0.7)	5 (0.5)	2 (0.3)
벨기에	19 (1.0)	56 (1.3)	42 (1.5)	60 (1.5)	27 (1.1)	15 (0.8)	62 (1.2)	22 (1.0)	16 (1.1)	2 (0.4)
핀란드	19 (0.9)	56 (1.8)	15 (0.8)	51 (1.1)	30 (1.3)	8 (0.6)	82 (1.3)	28 (0.9)	15 (1.1)	3 (0.4)
슬로베니아	25 (1.2)	55 (1.2)	31 (1.2)	46 (1.1)	47 (1.4)	17 (0.9)	69 (1.1)	22 (1.1)	11 (0.7)	3 (0.5)
이탈리아	37 (1.3)	48 (1.2)	12 (0.8)	32 (1.2)	69 (1.2)	15 (0.8)	62 (1.2)	14 (0.9)	18 (1.0)	4 (0.5)
에스토니아	43 (2.3)	27 (2.0)	25 (2.5)	43 (3.2)	63 (2.0)	23 (2.2)	73 (1.7)	22 (2.1)	6 (1.4)	8 (1.6)
몰타	19 (1.6)	60 (1.7)	16 (1.7)	32 (2.0)	57 (2.2)	22 (1.7)	66 (1.8)	22 (1.5)	15 (1.6)	4 (0.8)
리투아니아	19 (1.0)	64 (1.3)	28 (1.1)	49 (1.1)	45 (1.4)	40 (1.2)	67 (1.3)	39 (1.4)	8 (0.7)	5 (0.5)
칠레	42 (1.9)	39 (1.6)	23 (1.7)	48 (2.1)	67 (1.9)	32 (1.8)	52 (1.9)	20 (1.9)	7 (1.3)	16 (1.4)
라트비아	28 (1.1)	40 (1.3)	31 (1.5)	29 (1.4)	53 (1.8)	12 (0.8)	65 (1.6)	41 (1.5)	2 (0.3)	11 (0.8)
크로아티아	25 (1.3)	50 (1.3)	30 (1.0)	44 (1.2)	53 (1.1)	23 (0.9)	59 (1.4)	16 (1.1)	9 (0.6)	5 (0.6)
러시아	33 (2.8)	51 (2.8)	33 (2.1)	44 (1.5)	62 (3.1)	22 (2.3)	36 (2.4)	29 (2.6)	9 (1.1)	17 (2.7)
불가리아	27 (1.7)	54 (1.9)	42 (1.6)	44 (1.7)	50 (2.2)	22 (1.5)	51 (2.0)	40 (1.8)	8 (1.2)	7 (1.0)
멕시코	19 (1.5)	46 (1.7)	10 (1.2)	66 (1.5)	70 (1.5)	26 (1.4)	44 (2.0)	16 (1.3)	4 (0.5)	9 (1.2)
페루	31 (1.4)	59 (1.4)	13 (1.2)	38 (1.7)	78 (1.2)	21 (1.2)	50 (1.5)	19 (1.4)	11 (0.9)	14 (1.3)
콜롬비아	41 (2.3)	53 (2.3)	15 (1.9)	75 (2.0)	61 (2.1)	36 (1.7)	39 (2.3)	27 (2.2)	11 (1.9)	25 (2.1)
도미니카	55 (2.9)	48 (3.1)	17 (2.3)	46 (3.2)	81 (2.2)	21 (1.9)	44 (2.9)	17 (1.6)	10 (1.3)	14 (2.2)
ICCS 2016	29 (0.4)	51 (0.4)	21 (0.3)	47 (0.4)	55 (0.4)	20 (0.3)	61 (0.4)	23 (0.3)	12 (0.3)	8 (0.3)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교육 현황

표 II-10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과정의 제공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은 민주시민교육과목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의 교사들의 교원양성과정이나 직무배치 후의 교원연수과정에서 해당교육연수가 제공되는 국가였으나, 이러한 교육과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ICCS 참여국가에서는 최소한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와 관련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지속적인 교원연수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표 II-11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 교사들이 실제로 받은 교사연수의 내용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책임있는 인터넷 사용방법’(69%)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하의 교사만이 해당 내용의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ICCS 참여국 교사들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참여국 교사들은 인권(58%), 성평등(53%), 시민의 권리와 책임(59%),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61%), 갈등해결(65%)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10 조사대상 학년(중2)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이나 연수 현황(HDI순)

국가	민주시민교육이 교직교육이나 교원연수의 필수과목인가?			교원 직무수행 중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제공되는가?		
	해당과목 전담교사	시민교육 관련 직무 교사에게만	시민교육과 무관한 과목 담당교사에게도	해당과목 전담교사	시민교육 관련 직무 교사에게만	시민교육과 무관한 과목 담당교사에게도
노르웨이	●	●	●	.	.	.
독일	●	.	.	●	●	●
덴마크	.	●	●	.	.	.
네덜란드	.	●	.	.	.	.
홍콩	.	.	.	●	●	●
스웨덴	.	●	●	.	●	●
한국	.	●	.	.	.	.
대만	●	●	.	●	●	.
벨기에	.	●	●	.	●	●
핀란드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이탈리아	.	●	.	●	●	●
에스토니아	●	●	●	●	●	●
몰타	.	●	.	.	●	●
리투아니아	.	●	.	●	●	●
칠레	.	●	.	.	●	.
라트비아	●	●	●	●	●	●
크로아티아	.	.	.	.	●	●
러시아	●	●	.	●	●	.
불가리아	.	●	.	.	●	●
멕시코	●	●	●	●	●	●
페루	●	●	.	●	●	.
콜롬비아	.	.	.	●	●	●
도미니카	.	.	.	.	●	.

표 II-11 시민교육 담당교사가 받은 교육이나 연수 내용 (HDI순)

국가	인권	투표와 선거	국채 공동체와 국채기구	환경과 지속가능성	국채 이민과 이주	남녀의 기회 평등	시민권과 책임	헌법과 정치제도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 (사생활 보호 등)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갈등 해결
노르웨이	38 (3.8)	28 (2.5)	38 (4.2)	32 (3.6)	35 (2.8)	32 (3.7)	28 (3.1)	39 (3.3)	43 (3.9)	35 (3.7)	34 (3.0)
덴마크	61 (6.8)	69 (5.4)	65 (6.5)	50 (5.6)	48 (7.2)	52 (6.8)	75 (4.9)	77 (5.4)	34 (5.9)	75 (5.2)	56 (6.5)
네덜란드	29 (2.8)	33 (2.6)	39 (2.6)	46 (3.1)	39 (3.0)	37 (2.9)	36 (3.2)	39 (2.8)	57 (2.8)	61 (2.2)	51 (2.7)
스웨덴	50 (4.4)	44 (4.7)	54 (4.0)	56 (4.3)	44 (4.3)	47 (4.3)	54 (4.2)	50 (4.3)	37 (3.7)	49 (4.1)	43 (3.8)
한국	54 (4.2)	32 (3.7)	35 (3.3)	45 (3.9)	28 (2.7)	54 (4.1)	52 (3.8)	37 (3.5)	69 (3.3)	49 (4.2)	61 (3.6)
대만	87 (2.7)	82 (3.4)	63 (4.1)	86 (2.8)	42 (3.2)	93 (2.5)	88 (2.9)	80 (3.6)	80 (3.1)	80 (3.8)	82 (3.0)
벨기에	36 (2.5)	34 (2.1)	32 (1.9)	41 (2.0)	33 (2.0)	35 (2.0)	36 (1.9)	35 (1.9)	56 (2.4)	56 (2.0)	54 (2.2)
핀란드	46 (2.8)	25 (2.1)	41 (2.0)	60 (2.3)	34 (2.3)	45 (3.0)	46 (2.7)	28 (2.1)	63 (1.8)	67 (2.4)	48 (1.9)
슬로베니아	65 (2.1)	47 (2.8)	42 (2.5)	55 (2.4)	43 (2.5)	48 (2.6)	63 (2.2)	64 (2.4)	80 (1.5)	75 (1.6)	81 (1.6)
이탈리아	47 (2.2)	18 (1.8)	27 (2.0)	49 (2.5)	44 (2.4)	31 (2.2)	43 (2.4)	34 (2.2)	62 (2.5)	36 (2.5)	47 (2.7)
에스토니아	53 (6.9)	41 (5.9)	50 (7.9)	71 (5.6)	55 (7.3)	51 (7.7)	57 (9.3)	49 (7.4)	78 (6.3)	68 (5.8)	73 (4.9)
몰타	34 (4.5)	11 (2.9)	27 (4.3)	42 (4.3)	37 (4.4)	49 (4.7)	46 (4.6)	16 (3.2)	62 (4.2)	48 (5.5)	45 (5.1)
리투아니아	59 (3.8)	46 (3.5)	59 (4.5)	59 (3.0)	56 (3.7)	43 (3.8)	65 (4.0)	60 (4.0)	66 (2.5)	72 (2.7)	82 (3.1)
칠레	41 (4.2)	32 (4.1)	23 (3.4)	40 (4.4)	24 (3.5)	36 (3.7)	42 (4.1)	31 (4.1)	41 (3.6)	43 (4.3)	56 (3.8)
라트비아	87 (2.6)	64 (4.2)	77 (3.9)	80 (3.0)	64 (4.5)	70 (3.9)	89 (2.6)	68 (4.1)	86 (2.7)	94 (1.4)	94 (1.6)
크로아티아	32 (1.4)	17 (1.0)	16 (1.1)	28 (1.5)	16 (1.2)	23 (1.3)	29 (1.5)	19 (1.1)	41 (1.5)	32 (1.4)	44 (2.2)
러시아	95 (2.2)	94 (2.3)	92 (2.7)	90 (3.0)	86 (3.9)	90 (3.3)	95 (2.2)	97 (1.4)	92 (2.6)	90 (3.4)	92 (2.4)
불가리아	43 (5.6)	34 (5.5)	41 (5.6)	40 (5.6)	42 (4.8)	38 (4.8)	51 (6.1)	45 (6.1)	41 (5.3)	46 (5.3)	66 (5.4)
멕시코	85 (2.9)	60 (4.4)	49 (5.1)	76 (4.7)	64 (5.8)	82 (3.9)	81 (4.3)	57 (4.3)	66 (5.1)	72 (4.2)	85 (3.4)
페루	86 (3.1)	89 (2.8)	67 (3.2)	89 (2.9)	84 (3.1)	91 (2.9)	92 (2.4)	80 (3.9)	77 (3.2)	87 (2.9)	88 (3.3)
콜롬비아	74 (4.1)	82 (3.1)	47 (2.7)	82 (2.4)	49 (3.1)	71 (3.1)	80 (2.2)	67 (3.2)	72 (2.8)	75 (4.0)	82 (2.2)
도미니카	70 (5.0)	68 (4.6)	50 (5.6)	77 (3.9)	57 (4.4)	70 (5.7)	76 (5.0)	65 (5.9)	68 (5.8)	69 (5.9)	75 (5.1)
ICCS 2016 평균	58 (0.9)	46 (0.8)	44 (0.9)	58 (0.8)	45 (0.9)	53 (0.9)	59 (0.9)	49 (0.9)	61 (0.8)	61 (0.9)	65 (0.8)

○ — 제Ⅲ장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 1. 시민지식의 정의와 측정 도구

— 2. 시민지식 측정결과



1. 시민지식의 정의와 측정 도구

1) 시민지식의 정의

ICCS에서 시민지식(Civic Knowledge)은 유능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양이다. 시민지식은 시민사회와 시민권에 관한 핵심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적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시민지식의 측정

ICCS 2016의 주요 조사 도구는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조사 틀에서 정의된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영역과 내용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 III-3>은 학생용 검사지와 설문지의 조사 영역별 문항 수를 보여준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모듈조사의 태도 관련 문항 수는 별도의 행에 제시했다. ICCS 2009와 ICCS 2016의 검사 및 설문조사 문항은 정의된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영역과 내용영역을 다루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 III-3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항수가 칸마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ICCS 2009에서는 검사 문항의 4분의 3이 인지적 영역의 “분석 및 추론”에 해당하며, 인지적 영역의 “아는 것” 관련 검사 문항은 대부분 내용영역 “시민사회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었다. (ICCS 2016에서) 문항 수가 가장 적은 내용영역은 전체 88항목 중 4항목을 차지한 “시민정체성”인데, 이 내용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은 ICCS 2009에서도 동일했다.

3) 시민지식의 수준과 문항 예

ICCS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A 레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D 미만 레벨까지 크게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B 레벨 이상은 비록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C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각 레벨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Level A : 563점 이상

- 윤리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행동 전략을 짜거나 판별할 수 있는 수준
- 자유로운 공개적 토론과 공동체 참여가 사회에 유익한 이유와 그 원리를 이해
- 사회 구성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
- 입법/사법체계간의 권력분산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를 인식
- 평등과 포용의 관점에서 정부와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음
- 정당에 대한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중요한 이유를 인식함
- 국회 회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
- 자유 시장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경제 구조의 주요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음

② Level B : 479점에서 562점 사이

- 사법권의 독립성이 사법적 판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중요한 이유 이해
- 지역적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국제화가 가지는 경제학적 위험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음
-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
- 민주적 대표성과 투표의 의무 사이의 관계를 이해
- 국회/입법부의 주요 역할, 헌법의 주요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군대와의 관계를 인식함
-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의 위험성을 인식함
-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시민 개개인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음

③ Level C : 395점에서 478점 사이

-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관계 인식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자발적 투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적 지도자가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이해
- UN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
- 시민 참여에 있어 의사소통 도구로서 인터넷의 가치를 일반화시킬 수 있음
-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해
- 행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 타국에 대한 원조가 자기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해
- 윤리적 소비 법안의 배후에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는지 이해

④ Level D : 311점에서 394점 사이

- 군대의 핵심 역할은 국가 방위라는 사실 이해
-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의식과 국제원조기구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음
- 비밀투표 원칙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⑤ Level E : 310점 이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왜 인권인지를 이해함

ICCS 201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A레벨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4.7%, B레벨은 31.5%, 우리나라는 A레벨과 B레벨을 합해 77.5% 으로서, 청소년의 3/4 이상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C 레벨 이하의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 표 III-1부터 III-8은 ICCS에서 사용한 시민지식 측정문항의 예들이다. 레벨 D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레벨 D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율은 90% 내외인 반면 B는 60% 내외 A는 30% 전후의 정답율을 보인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D 이하**

Q 교육을 인권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교육이 많은 교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기 때문입니다.
-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때문입니다.*

* 정답

표 III-1 예시문항1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95 (0.5)
독일	-
덴마크	96 (0.5)
네덜란드	96 (1.0)
홍콩	84 (1.8)
스웨덴	95 (0.6)
한국	90 (1.1)
대만	95 (0.6)
벨기에	95 (0.8)
핀란드	97 (0.5)
슬로베니아	94 (0.8)
이탈리아	96 (0.6)
에스토니아	98 (0.4)
몰타	87 (0.9)
리투아니아	97 (0.5)
칠레	86 (1.1)
라트비아	91 (1.3)
크로아티아	97 (0.7)
러시아	95 (0.9)
불가리아	88 (1.6)
멕시코	88 (1.1)
페루	91 (0.8)
콜롬비아	92 (0.8)
도미니카	68 (1.8)
ICCS 2016 평균	92 (0.2)

OO 나라의 정부 관료가 자신의 차량을 몰다 속도 위반으로 붙잡혔다. 그는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D**

Q 정부 관료가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벌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 관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시 투표를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경찰이 정부관료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III-2 예시문항2 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93 (0.5)
독일	95 (1.2)
덴마크	96 (0.4)
네덜란드	93 (1.0)
홍콩	88 (1.4)
스웨덴	93 (0.7)
한국	95 (0.8)
대만	91 (0.8)
벨기에	95 (0.7)
핀란드	97 (0.5)
슬로베니아	90 (1.0)
이탈리아	96 (0.7)
에스토니아	95 (0.8)
몰타	90 (0.8)
리투아니아	92 (1.0)
칠레	83 (0.8)
라트비아	88 (1.3)
크로아티아	95 (0.6)
러시아	92 (1.0)
불가리아	82 (1.6)
멕시코	79 (1.1)
페루	85 (0.9)
콜롬비아	88 (1.0)
도미니카	64 (1.5)
ICCS 2016 평균	89 (0.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OO
나라 사람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었다.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D**

Q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 소음이 심한 모든 작업장을 즉시 폐쇄
합니다.
- 좀 더 조용한 작업장의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 고용주들은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을 도입합니다.*
-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소유주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표 III-3 예시문항3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92 (0.7)
독일	93 (1.0)
덴마크	88 (0.9)
네덜란드	87 (1.3)
홍콩	85 (1.6)
스웨덴	90 (1.4)
한국	81 (1.4)
대만	91 (0.8)
벨기에	87 (1.2)
핀란드	95 (0.8)
슬로베니아	90 (1.0)
이탈리아	80 (1.3)
에스토니아	90 (1.0)
몰타	81 (1.2)
리투아니아	88 (1.2)
칠레	80 (1.1)
라트비아	91 (1.1)
크로아티아	91 (1.1)
러시아	91 (0.8)
불가리아	86 (1.6)
멕시코	84 (1.1)
페루	60 (1.3)
콜롬비아	86 (1.1)
도미니카	60 (1.5)
ICCS 2016 평균	85 (0.2)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C Q 언론인들이 뉴스를 자유롭게 조사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왜 중요합니까? □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 이는 언론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는 모든 뉴스 사건들을 보도할 충분한 언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떤 언론인도 그가 한 일에 대한 지나친 댓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

표 III-4 예시문항4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79 (1.0)
독일	79 (1.5)
덴마크	78 (1.1)
네덜란드	66 (1.6)
홍콩	76 (1.6)
스웨덴	77 (1.7)
한국	78 (1.5)
대만	81 (1.2)
벨기에	77 (1.3)
핀란드	81 (1.5)
슬로베니아	82 (1.3)
이탈리아	84 (1.1)
에스토니아	79 (1.5)
몰타	71 (1.3)
리투아니아	71 (1.4)
칠레	66 (1.3)
라트비아	76 (1.5)
크로아티아	87 (1.0)
러시아	81 (1.5)
불가리아	78 (1.6)
멕시코	61 (1.5)
페루	70 (1.4)
콜롬비아	66 (1.4)
도미니카	56 (1.3)
ICCS 2016 평균	75 (0.3)

청소년 클럽 회원들이 리더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어느 회원이 리더가 되려고 자청했지만, 클럽 회원들은 리더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B**

Q 자청해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 투표에 의해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그들이 투표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표는 리더 선출에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리더 선출에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리더 선출에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III-5 예시문항5와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65 (1.3)
독일	66 (2.4)
덴마크	80 (1.2)
네덜란드	67 (2.0)
홍콩	56 (1.8)
스웨덴	68 (1.9)
한국	54 (1.4)
대만	58 (1.3)
벨기에	71 (2.0)
핀란드	82 (1.3)
슬로베니아	71 (1.6)
이탈리아	66 (1.4)
에스토니아	63 (1.7)
몰타	60 (1.5)
리투아니아	47 (1.6)
칠레	50 (1.1)
라트비아	65 (1.7)
크로아티아	56 (1.8)
러시아	68 (1.4)
불가리아	58 (1.6)
멕시코	30 (1.4)
페루	49 (1.4)
콜롬비아	35 (1.0)
도미니카	21 (1.3)
ICCS 2016 평균	59 (0.3)

권력 남용은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C**

Q 권력 남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정치 지도자가 언론을 통해 상정된 법안에 반대 의사 표명하기
-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정당에 돈을 기부한 사람만 고용하기*
- 경찰이 법을 어긴 사람 체포하기
- 환경 활동가 단체가 국회 주변에서 항의 집회하기

표 III-6 예시문항6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정답율(%)
노르웨이	78 (0.9)
독일	73 (1.9)
덴마크	84 (1.0)
네덜란드	82 (1.7)
홍콩	75 (1.9)
스웨덴	77 (1.2)
한국	80 (1.4)
대만	78 (1.3)
벨기에	77 (1.9)
핀란드	89 (1.0)
슬로베니아	68 (1.6)
이탈리아	68 (1.5)
에스토니아	81 (1.5)
몰타	67 (1.4)
리투아니아	76 (1.3)
칠레	73 (1.3)
라트비아	72 (1.6)
크로아티아	81 (1.2)
러시아	75 (1.4)
불가리아	68 (2.3)
멕시코	73 (1.5)
페루	51 (1.4)
콜롬비아	72 (1.5)
도미니카	41 (1.8)
ICCS 2016 평균	73 (0.3)

Q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가 그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1. _____
2. _____

**ICCS 시민지식 측정문항 :
난이도 레벨 A**

2점 : 아래 제시된 영역 중에서 두 영역의 방법/방식을 언급한다.

1. 권력의 분립/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2. 법치주의/정치적 지도자에게 집행되는 법
3. 투명성(예: 언론의 독립성/자유, 정보의 자유)
4. 언론의 자유/정치적 지도자의 행동에 대한 비판 허용
5. 정치적 행동을 취할 권리(예: 공공시위, 압력 단체 결성)
6. 선거(사람들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7. 대중을 위한 교육
8. 외부로부터의 조언을 포함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 (모범적인 정치인을 본받는 것을 포함)

1점 : 열거된 영역들 중 하나의 방법/방식만을 언급한다.(동일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방식을 제시한 답변 포함)

표 III-7 예시문항 7과 이 문항의 국가별 정답율

국가명	1점 이상	2점 이상
노르웨이	69 (1.2)	23 (1.0)
독일	62 (2.2)	20 (2.3)
덴마크	79 (1.2)	38 (1.5)
네덜란드	76 (1.9)	33 (2.1)
홍콩	67 (2.8)	22 (1.6)
스웨덴	76 (1.4)	37 (1.5)
한국	78 (1.4)	33 (2.1)
대만	86 (1.4)	57 (1.6)
벨기에	82 (1.7)	39 (1.7)
핀란드	68 (1.6)	27 (1.5)
슬로베니아	67 (1.7)	29 (1.7)
이탈리아	60 (1.5)	19 (1.1)
에스토니아	56 (1.6)	19 (1.4)
몰타	41 (1.4)	11 (0.7)
리투아니아	55 (2.2)	20 (1.7)
칠레	48 (1.4)	13 (0.8)
라트비아	61 (2.0)	16 (1.2)
크로아티아	81 (1.3)	37 (1.8)
러시아	79 (1.5)	35 (1.9)
불가리아	55 (2.1)	16 (1.3)
멕시코	70 (1.2)	28 (1.2)
페루	47 (1.5)	14 (1.0)
콜롬비아	71 (1.4)	29 (1.2)
도미니카	-	-
ICCS2016평균	66 (0.4)	27 (0.3)

2. 시민지식 측정결과⁶⁾

1) 참여국가별 시민지식 점수분포

ICCS 2016에 참여한 24개국의 8학년 만 14.5세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척도 점수는 표 Ⅲ-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 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음인 6위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의 평균인 551점은 ICCS 2016 참여한 전체 국가 평균인 517점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래 그림은 각국의 시민지식 점수와 HDI(인간개발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인간 개발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지식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추세와 부합했다. 그러나 인간개발지수는 .74로 상당히 낮지만 매우 높은 시민지식 점수(581점)가 측정된 대만 같은 예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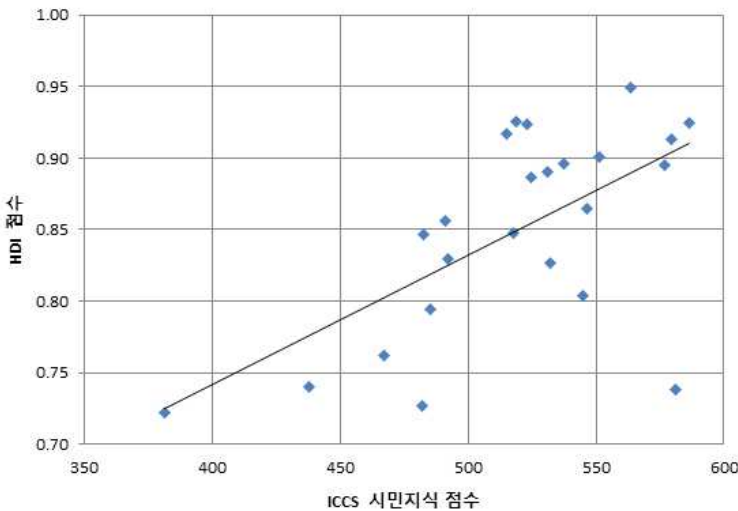


그림 Ⅲ-1 ICCS 시민지식 점수와 HDI 지수 간 관계

6) ICCS2016의 주요 조사결과는 2017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장근영 외, 2017)에 일부 인용하였다.

표 III-8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측정결과 (점수 순)

국가명	학년	평균연령	평균점수	편차	인간개발지수 (HDI)
덴마크	8	14.9	586	(3.0)	0.93
대만	8	14.1	581	(3.0)	0.74
스웨덴	8	14.7	579	(2.8)	0.91
핀란드	8	14.8	577	(2.3)	0.90
노르웨이	9	14.6	564	(2.2)	0.95
한국	8	14.0	551	(3.6)	0.90
에스토니아	8	14.9	546	(3.1)	0.87
러시아	8	14.8	545	(4.3)	0.80
벨기에	8	13.9	537	(4.1)	0.90
슬로베니아	8	13.8	532	(2.5)	0.83
크로아티아	8	14.6	531	(2.5)	0.89
이탈리아	8	13.8	524	(2.4)	0.89
네덜란드	8	14.0	523	(4.5)	0.92
독일	8	14.3	519	(2.7)	0.93
리투아니아	8	14.7	518	(3.0)	0.85
홍콩	8	13.9	515	(6.6)	0.92
라트비아	8	14.8	492	(3.1)	0.83
몰타	9	13.8	491	(2.7)	0.86
불가리아	8	14.7	485	(5.3)	0.79
칠레	8	14.2	482	(3.1)	0.85
콜롬비아	8	14.6	482	(3.4)	0.73
멕시코	8	14.1	467	(2.5)	0.76
페루	8	14.0	438	(3.5)	0.74
도미니카	8	14.2	381	(3.0)	0.72
ICCS 2016 평균	-	14.4	517	(0.7)	-

2) 시민지식의 레벨별 분포

ICCS에서는 시민지식이 단순히 양적인 점수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변인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ICCS 2016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A 레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D 미만 레벨까지 크게 5개의 수준으로 분류를 했다. 여기서 B 레벨 이상은 비록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민 지식 수준이 C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ICCS 201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A레벨 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4.7%, B레벨은 31.5%였다. 우리나라는 A레벨과 B레벨을 합해 77.5% 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 청소년의 3/4 이상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C 레벨 이하의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는 국가간의 시민지식 수준차이보다 국가 내에서 발견되는 시민지식 수준의 차이가 더 큰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미니카와 페루같은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국가에서 더욱 뚜렷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국가내에서 시민지식 점수의 편차가 매우 낮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단, 한국과 비슷한 시민지식 점수 평균을 보인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 레벨 D이하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민지식 격차의 해소는 향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표 III-9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 수준 측정결과 (Level A 점수 순)

국가명	Level D 이하		Level D		Level C		Level B		Level A	
덴마크	0.4	(0.1)	2.3	(0.4)	10.2	(0.8)	24.6	(0.8)	62.4	(1.3)
대만	0.5	(0.2)	2.9	(0.4)	9.9	(0.8)	24.5	(1.2)	62.2	(1.4)
스웨덴	0.3	(0.1)	2.3	(0.4)	10.0	(0.8)	27.0	(1.4)	60.4	(1.6)
핀란드	0.7	(0.2)	3.6	(0.6)	12.2	(0.8)	25.2	(1.0)	58.3	(1.3)
노르웨이	0.7	(0.2)	3.8	(0.3)	13.1	(0.7)	28.9	(1.0)	53.5	(1.2)
한국	0.8	(0.3)	5.2	(0.8)	16.5	(1.0)	30.5	(1.2)	47.0	(1.6)
에스토니아	0.2	(0.1)	3.2	(0.5)	16.7	(1.0)	36.9	(1.5)	43.0	(1.8)
러시아	0.3	(0.1)	3.7	(0.5)	16.6	(1.3)	37.3	(1.5)	42.1	(2.1)
벨기에	0.2	(0.1)	4.6	(0.8)	19.1	(1.6)	36.6	(1.6)	39.5	(2.2)
슬로베니아	0.4	(0.2)	4.5	(0.5)	20.6	(0.9)	37.6	(1.2)	37.0	(1.4)
크로아티아	0.3	(0.1)	3.9	(0.5)	19.9	(1.2)	39.9	(1.5)	36.0	(1.5)
이탈리아	0.9	(0.4)	8.2	(1.4)	23.2	(1.5)	32.1	(1.8)	35.6	(1.8)
네덜란드	0.6	(0.1)	6.6	(0.7)	22.8	(1.7)	39.3	(1.5)	30.7	(1.6)
독일(NRW)	0.9	(0.3)	6.5	(0.6)	21.5	(0.8)	36.1	(1.1)	34.9	(1.2)
리투아니아	0.7	(0.3)	6.7	(0.8)	23.5	(1.2)	38.5	(1.6)	30.5	(1.7)
홍콩	3.4	(0.9)	10.9	(1.5)	19.1	(1.7)	31.5	(1.6)	35.0	(2.3)
라트비아	6.4	(1.2)	16.0	(1.3)	22.5	(1.4)	28.4	(1.5)	26.7	(1.5)
몰타	5.5	(0.5)	13.4	(0.8)	23.2	(1.0)	31.7	(1.1)	26.2	(1.1)
불가리아	3.7	(0.5)	16.0	(0.9)	27.2	(1.0)	31.7	(1.0)	21.4	(1.1)
칠레	1.7	(0.4)	10.7	(1.1)	29.1	(1.3)	39.0	(1.8)	19.5	(1.6)
콜롬비아	2.1	(0.4)	13.8	(1.1)	31.3	(1.0)	35.4	(1.2)	17.4	(1.2)
멕시코	3.2	(0.4)	17.7	(1.0)	33.1	(1.2)	32.8	(1.0)	13.1	(0.8)
페루	9.4	(0.9)	23.5	(1.2)	32.2	(1.2)	26.0	(1.2)	8.8	(0.8)
도미니카	19.0	(1.2)	38.7	(1.2)	30.1	(1.2)	11.0	(1.0)	1.2	(0.4)
ICCS 2016	2.7	(0.1)	9.8	(0.2)	21.2	(0.2)	31.5	(0.3)	34.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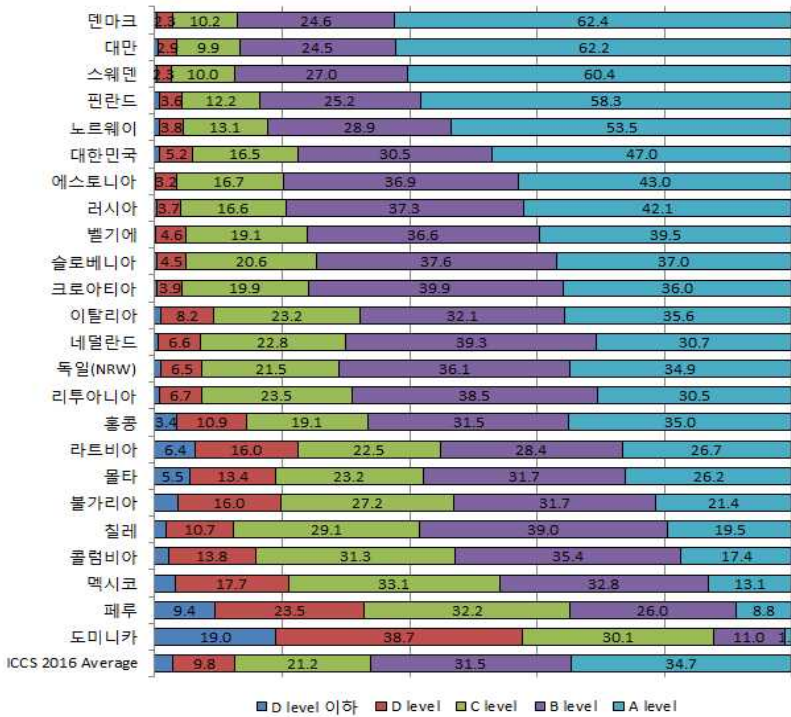


그림 III-2 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level)별 분포

3) 2009년 대비 시민지식점수의 변화

ICCS 는 시계열적 비교를 목적으로 매 회기의 조사에서 동일한 검사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⁷⁾. 2009년 조사결과에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여국가에서 시민지식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향상율의 수준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2009년 대비 가장 많이 점수가 향상된 국가는 스웨덴으로 42.2점이나 향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과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순이었다.

7) IEA에서는 ICCS의 측정문항을 대외비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측정문항의 유출이 측정결과 자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결과와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시민지식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되었다. 특히 노르웨이와 벨기에, 대만의 경우는 2009년 조사에서도 시민지식 점수평균이 높은 국가로서 이들 국가에서 더 많은 점수의 향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시민지식 점수의 천정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가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를 향상시킬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2016년 시민지식점수 평균인 565점은 2009년 551.2점 보다 13.6점 향상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향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각각 29.3점과 6.3점이 감소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표 III-10 ICCS 2009 대비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변화 (변화량 순)

국가명	ICCS 2016		ICCS 2009		변화량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스웨덴	579	(2.8)	537	(3.1)	42
홍콩	554	(5.7)	515	(6.6)	39
러시아	545	(4.3)	506	(3.8)	38
노르웨이	564	(2.2)	538	(4.0)	25
벨기에	537	(4.1)	514	(4.7)	23
대만	581	(3.0)	559	(2.4)	22
에스토니아	546	(3.1)	525	(4.5)	21
콜롬비아	482	(3.4)	462	(2.9)	20
불가리아	485	(5.3)	466	(5.0)	19
슬로베니아	532	(2.5)	516	(2.7)	16
멕시코	467	(2.5)	452	(2.8)	15
한국	565	(1.9)	551	(3.6)	14
리투아니아	518	(3.0)	505	(2.8)	13
라트비아	492	(3.1)	482	(4.0)	11
덴마크	586	(3.0)	576	(3.6)	10
몰타	491	(2.7)	490	(4.5)	2
도미니카	381	(3.0)	380	(2.4)	1
핀란드	577	(2.3)	576	(2.4)	0
칠레	482	(3.1)	483	(3.5)	-1
이탈리아	524	(2.4)	531	(3.3)	-6
네덜란드	494	(7.6)	523	(4.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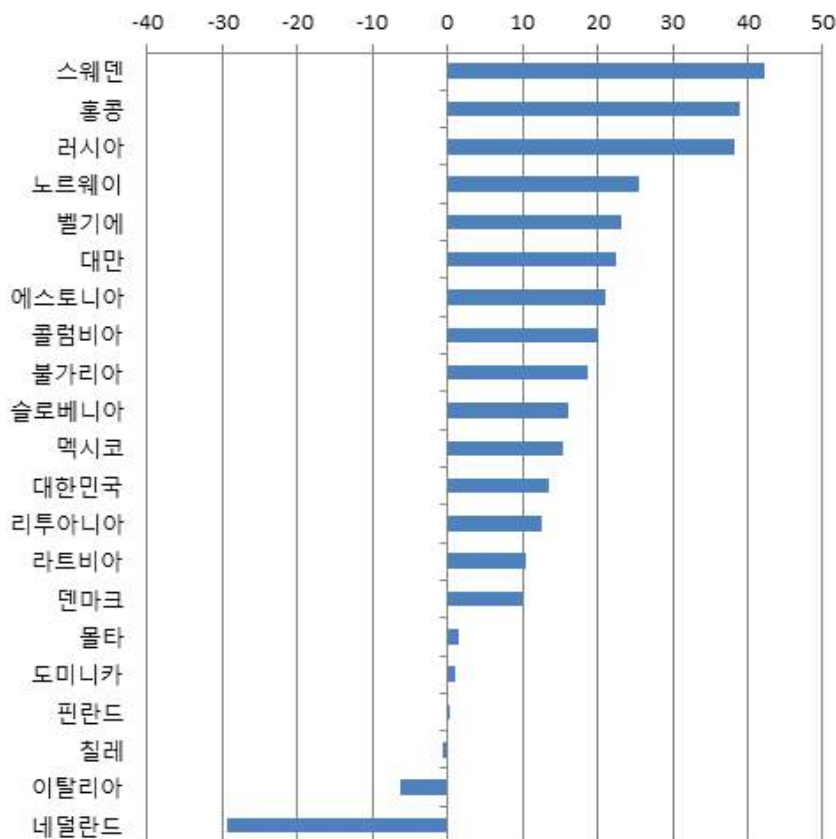


그림 III-3 ICCS 2009 대비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변화

4) 시민지식의 성차

시민지식점수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가 낮았다.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몰타로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이 38.2점이나 높았다. 한국은 그 편차가 30.5점으로 ICCS 평균인 25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결과에서 살펴보겠지만,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시민지식이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시민지식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1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성별 차이 (차이 순)

국가명	여자		남자		차이	
몰타	511	(3.7)	473	(3.9)	38	(5.4)
불가리아	505	(5.9)	468	(6.0)	37	(5.6)
스웨덴	598	(3.1)	562	(3.9)	36	(4.3)
슬로베니아	550	(2.6)	515	(3.3)	35	(3.4)
대만	599	(3.4)	564	(3.3)	34	(3.4)
노르웨이	581	(2.4)	547	(2.6)	34	(2.4)
에스토니아	563	(3.4)	530	(3.4)	33	(3.6)
홍콩	532	(6.6)	499	(7.7)	33	(6.9)
핀란드	594	(2.3)	561	(3.4)	33	(3.8)
한국	568	(4.8)	537	(3.4)	31	(4.6)
라트비아	507	(3.8)	476	(3.7)	30	(4.2)
도미니카	396	(3.4)	367	(3.3)	29	(3.0)
리투아니아	532	(3.6)	504	(3.4)	28	(3.7)
크로아티아	544	(2.9)	518	(2.9)	26	(3.2)
칠레	494	(3.8)	471	(3.3)	24	(3.8)
덴마크	597	(2.9)	575	(3.7)	23	(3.1)
멕시코	478	(3.0)	456	(3.2)	21	(3.4)
이탈리아	535	(3.0)	515	(3.0)	20	(3.6)
러시아	552	(5.3)	538	(4.3)	14	(4.5)
네덜란드	530	(5.0)	516	(4.9)	13	(4.0)
콜롬비아	486	(4.1)	478	(3.6)	9	(3.9)
페루	441	(4.6)	435	(4.1)	6	(4.9)
벨기에	538	(5.4)	537	(4.6)	1	(5.8)
ICCS 2016 평균	530	(0.8)	505	(0.8)	2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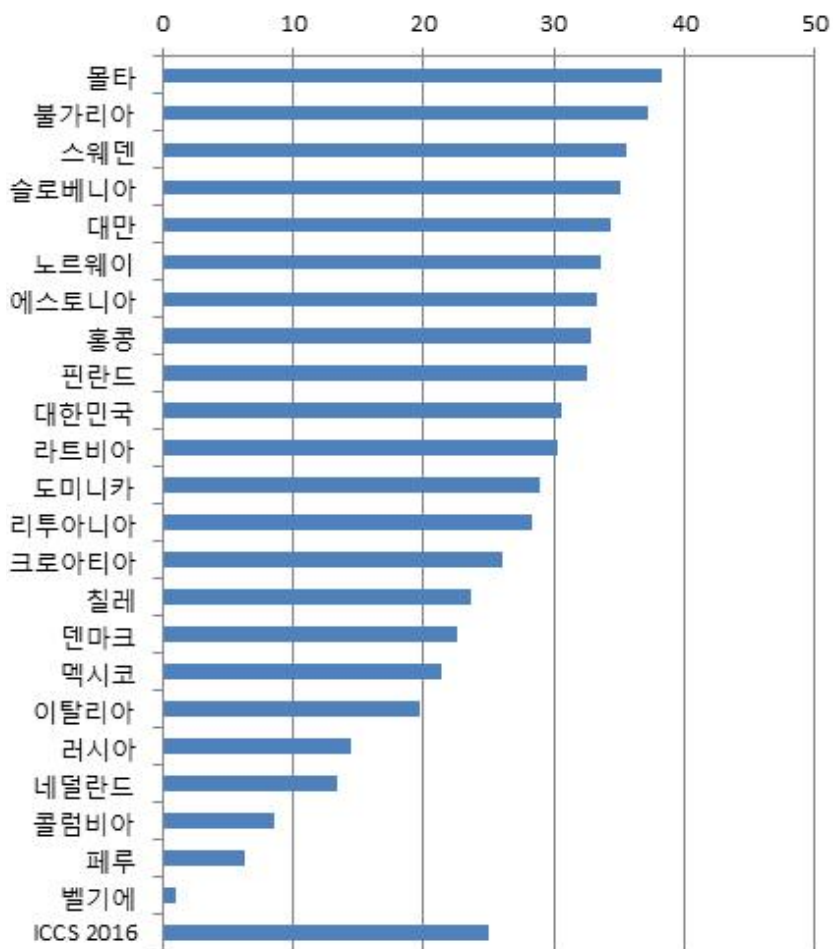


그림 III-4 ICCS 2016 시민지식점수 성별 차이

5) 시민지식과 사회문화적 배경

ICCS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지식과 가정환경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표(Socio Economic Index: SEI)와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의 직업 및 집에 보유한 책의 수량, 이민자

배경 및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본 검사에 사용하는 언어 간의 일치율을 중요 변인으로 사용했다. 사회경제적 지표(SEI)는 국제 직업분류표인 ISCO-8에 따라 직업의 전문성 수준을 평가하여 16점에서 최대 90점까지의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내에서 '직업위세지표'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표 III-14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SEI와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의 청소년들은 낮은 그룹의 청소년들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뚜렷이 높았다. SEI 점수가 50 미만인 그룹과 50 이상인 그룹간의 시민점수 격차는 41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대졸 이상인 그룹과 전부 고졸 이하인 그룹간의 차이 역시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집에 책이 26권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과 그 이상인 가정의 청소년간의 격차는 그보다 큰 52점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SEI에 따른 격차는 24점으로 ICCS 평균보다 적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45점, 책 권수에 따른 격차는 61점으로 ICCS 평균보다 더 컸다.

표 III-15는 이민자 배경과 언어적 배경에 따른 시민지식의 격차를 보여준다. 14개국에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검사도구의 언어(해당국가 표준어)인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시민 지식 점수가 높았다. 단, 한국은 이민자 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비교분석 가능한 수준보다 적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II -12 ICCS 2016 참여국가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SEI)/교육수준/책 보유 수량과 자녀의 시민지식 점수 간의 관계

국가명	부모의 사회경제 지표(SEI)에 따른 시민지식 점수				부모의 교육수준(SCED)에 따른 시민지식 점수				집에 있는 책의 권수에 따른 시민지식 점수			
	SEI 50 미만		SEI 50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6권 미만		26권 이상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노르웨이	540 (2.5)	40 (1.1)	586 (2.4)	60 (1.1)	547 (2.6)	40 (1.2)	582 (2.3)	60 (1.2)	513 (3.3)	19 (0.8)	578 (2.1)	81 (0.8)
덴마크	561 (3.8)	44 (1.4)	613 (2.7)	56 (1.4)	578 (3.1)	75 (1.0)	625 (3.7)	25 (1.0)	550 (4.8)	28 (1.1)	602 (2.6)	72 (1.1)
네덜란드	501 (6.1)	52 (1.5)	551 (4.5)	48 (1.5)	501 (5.2)	56 (1.8)	560 (4.7)	44 (1.8)	485 (6.9)	35 (1.7)	545 (3.9)	65 (1.7)
홍콩	515 (6.6)	59 (1.5)	516 (7.9)	41 (1.5)	512 (6.5)	77 (1.3)	534 (10.1)	23 (1.3)	494 (7.5)	43 (1.3)	532 (7.3)	57 (1.3)
스웨덴	552 (3.7)	44 (1.2)	611 (3.2)	56 (1.2)	558 (4.6)	41 (1.0)	603 (3.3)	59 (1.0)	528 (4.8)	28 (1.1)	601 (2.7)	72 (1.1)
한국	541 (3.6)	60 (1.2)	565 (5.2)	40 (1.2)	524 (5.0)	37 (1.9)	569 (3.4)	63 (1.9)	498 (6.0)	12 (0.9)	559 (3.3)	88 (0.9)
대만	588 (3.3)	56 (1.3)	606 (3.4)	44 (1.3)	570 (3.1)	68 (1.4)	607 (3.4)	32 (1.4)	551 (3.5)	40 (1.3)	602 (2.9)	60 (1.3)
벨기에	516 (3.7)	53 (1.8)	567 (4.2)	47 (1.8)	505 (4.7)	42 (1.9)	563 (3.9)	58 (1.9)	508 (4.8)	38 (2.0)	555 (4.2)	62 (2.0)
핀란드	563 (2.7)	56 (1.0)	599 (2.6)	44 (1.0)	568 (2.6)	58 (1.1)	593 (3.4)	42 (1.1)	539 (4.3)	22 (0.9)	587 (2.3)	78 (0.9)
슬로베니아	512 (2.4)	55 (1.4)	560 (2.9)	45 (1.4)	522 (2.3)	66 (1.4)	556 (4.4)	34 (1.4)	495 (3.6)	30 (1.1)	548 (2.6)	70 (1.1)
이탈리아	511 (2.7)	68 (1.5)	558 (2.7)	32 (1.5)	519 (2.6)	81 (1.2)	554 (3.9)	19 (1.2)	487 (3.4)	32 (1.3)	543 (2.3)	68 (1.3)
에스토니아	529 (2.7)	54 (2.0)	573 (3.8)	46 (2.0)	533 (2.6)	57 (1.9)	565 (4.5)	43 (1.9)	504 (3.7)	24 (1.1)	560 (3.2)	76 (1.1)
몰타	475 (3.5)	56 (0.9)	530 (3.1)	44 (0.9)	489 (2.9)	69 (0.8)	514 (4.0)	31 (0.8)	448 (4.1)	28 (0.9)	511 (2.6)	72 (0.9)
리투아니아	504 (3.2)	60 (1.4)	546 (3.6)	40 (1.4)	504 (2.9)	66 (1.1)	551 (3.8)	34 (1.1)	489 (3.2)	38 (1.3)	537 (3.2)	62 (1.3)
칠레	470 (3.3)	67 (1.4)	525 (2.9)	33 (1.4)	470 (3.3)	76 (1.2)	528 (3.2)	24 (1.2)	462 (3.4)	55 (1.0)	511 (3.3)	45 (1.0)
라트비아	480 (3.2)	55 (1.3)	515 (4.1)	45 (1.3)	480 (3.1)	57 (1.2)	511 (4.4)	43 (1.2)	460 (3.9)	29 (1.0)	507 (3.4)	71 (1.0)
크로아티아	521 (2.4)	63 (1.3)	554 (3.6)	37 (1.3)	521 (2.4)	73 (1.4)	560 (4.3)	27 (1.4)	509 (3.1)	40 (1.3)	546 (2.6)	60 (1.3)
러시아	526 (3.4)	49 (1.8)	567 (4.7)	51 (1.8)	525 (3.4)	47 (1.8)	563 (4.9)	53 (1.8)	516 (3.9)	33 (1.3)	559 (4.6)	67 (1.3)
불가리아	462 (5.8)	54 (1.9)	534 (4.7)	46 (1.9)	450 (6.9)	53 (1.7)	526 (4.8)	47 (1.7)	433 (6.7)	46 (1.8)	532 (3.8)	54 (1.8)
멕시코	457 (2.6)	74 (1.1)	501 (3.6)	26 (1.1)	456 (2.5)	75 (1.1)	501 (3.4)	25 (1.1)	457 (2.5)	71 (1.0)	493 (3.3)	29 (1.0)
페루	426 (3.3)	77 (1.0)	491 (4.8)	23 (1.0)	425 (3.5)	73 (1.0)	474 (4.7)	27 (1.0)	417 (3.5)	60 (1.1)	470 (4.4)	40 (1.1)
콜롬비아	471 (3.7)	67 (1.4)	508 (3.9)	33 (1.4)	477 (3.4)	71 (1.5)	496 (4.1)	29 (1.5)	470 (3.5)	71 (1.3)	511 (3.8)	29 (1.3)
도미니카	378 (2.9)	74 (1.1)	408 (4.6)	26 (1.1)	371 (2.9)	76 (1.2)	417 (4.5)	24 (1.2)	378 (2.8)	79 (1.0)	399 (5.7)	21 (1.0)
ICCS 2016	501 (0.8)	58 (0.3)	548 (0.8)	42 (0.3)	503 (0.8)	63 (0.3)	545 (0.9)	37 (0.3)	486 (0.9)	40 (0.3)	538 (0.7)	60 (0.3)

표 III -13 ICCS 2016 참여국가별 이민자 배경 및 사용언어와 시민지식 점수 간의 관계

국가명	이민자 배경에 따른 시민지식 점수						사용 언어에 따른 시민지식 점수					
	이민자 가정			비이민 가정			외국어 사용자			해당국어 사용자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평균(SD)	비율 %
노르웨이	514 (4.2)	11 (1.1)	574 (2.3)	89 (1.1)	519 (5.7)	8 (0.7)	570 (2.2)	91 (0.9)	570 (2.2)	91 (0.9)	570 (2.2)	91 (0.9)
덴마크	533 (7.6)	9 (0.8)	594 (2.8)	91 (0.8)	528 (9.9)	5 (0.5)	592 (2.8)	95 (0.9)	592 (2.8)	95 (0.9)	592 (2.8)	95 (0.9)
네덜란드	490 (12.0)	9 (1.4)	527 (4.3)	91 (1.4)	493 (12.4)	8 (1.2)	526 (4.4)	92 (1.2)	526 (4.4)	92 (1.2)	526 (4.4)	92 (1.2)
홍콩	523 (7.5)	32 (1.3)	514 (7.0)	68 (1.3)	501 (15.0)	11 (1.9)	521 (6.4)	89 (1.9)	521 (6.4)	89 (1.9)	521 (6.4)	89 (1.9)
스웨덴	531 (6.4)	18 (1.6)	597 (3.0)	82 (1.6)	522 (8.3)	14 (1.2)	592 (3.1)	86 (1.4)	592 (3.1)	86 (1.4)	592 (3.1)	86 (1.4)
한국	NA	0 (0.1)	553 (3.6)	100 (0.1)	NA	0 (0.1)	552 (3.6)	100 (0.1)	552 (3.6)	100 (0.1)	552 (3.6)	100 (0.1)
대만	NA	1 (0.2)	583 (2.9)	99 (0.2)	538 (5.8)	10 (0.7)	588 (2.8)	90 (0.7)	588 (2.8)	90 (0.7)	588 (2.8)	90 (0.7)
벨기에	489 (7.3)	16 (1.6)	548 (3.8)	84 (1.6)	491 (6.6)	16 (1.1)	550 (3.9)	84 (1.3)	550 (3.9)	84 (1.3)	550 (3.9)	84 (1.3)
핀란드	500 (11.2)	3 (0.5)	580 (2.3)	97 (0.5)	523 (10.6)	5 (0.5)	580 (2.4)	95 (0.6)	580 (2.4)	95 (0.6)	580 (2.4)	95 (0.6)
슬로베니아	498 (5.7)	15 (1.0)	539 (2.5)	85 (1.0)	484 (6.4)	6 (0.7)	537 (2.5)	94 (0.7)	537 (2.5)	94 (0.7)	537 (2.5)	94 (0.7)
이탈리아	489 (6.9)	11 (0.9)	533 (2.2)	89 (0.9)	479 (5.4)	18 (1.0)	536 (2.0)	81 (1.1)	536 (2.0)	81 (1.1)	536 (2.0)	81 (1.1)
에스토니아	516 (6.2)	9 (0.7)	550 (3.2)	91 (0.7)	507 (8.9)	5 (0.6)	549 (3.0)	95 (0.6)	549 (3.0)	95 (0.6)	549 (3.0)	95 (0.6)
몰타	486 (6.3)	8 (0.4)	498 (2.9)	92 (0.4)	506 (3.9)	29 (0.7)	488 (3.3)	71 (0.7)	488 (3.3)	71 (0.7)	488 (3.3)	71 (0.7)
리투아니아	507 (8.5)	2 (0.3)	521 (2.9)	98 (0.3)	469 (14.3)	5 (1.0)	522 (2.9)	95 (1.2)	522 (2.9)	95 (1.2)	522 (2.9)	95 (1.2)
칠레	463 (13.4)	2 (0.3)	489 (3.0)	98 (0.3)	445 (14.8)	1 (0.2)	484 (3.1)	99 (0.3)	484 (3.1)	99 (0.3)	484 (3.1)	99 (0.3)
라트비아	478 (7.8)	4 (0.4)	495 (3.0)	96 (0.4)	458 (10.2)	10 (1.5)	498 (3.1)	90 (1.6)	498 (3.1)	90 (1.6)	498 (3.1)	90 (1.6)
크로아티아	526 (6.7)	9 (0.9)	533 (2.4)	91 (0.9)	512 (15.3)	1 (0.2)	532 (2.5)	99 (0.3)	532 (2.5)	99 (0.3)	532 (2.5)	99 (0.3)
러시아	535 (7.2)	6 (0.5)	546 (4.2)	94 (0.5)	485 (9.9)	5 (0.9)	548 (4.2)	95 (0.9)	548 (4.2)	95 (0.9)	548 (4.2)	95 (0.9)
불가리아	NA	0 (0.1)	488 (5.1)	100 (0.1)	390 (10.1)	11 (1.5)	498 (4.4)	89 (1.6)	498 (4.4)	89 (1.6)	498 (4.4)	89 (1.6)
멕시코	420 (13.8)	3 (0.4)	472 (2.5)	97 (0.4)	414 (13.1)	3 (0.7)	469 (2.5)	97 (0.7)	469 (2.5)	97 (0.7)	469 (2.5)	97 (0.7)
페루	362 (11.8)	2 (0.3)	445 (3.4)	98 (0.3)	345 (7.7)	7 (1.1)	445 (3.3)	93 (1.2)	445 (3.3)	93 (1.2)	445 (3.3)	93 (1.2)
콜롬비아	395 (20.3)	1 (0.1)	485 (3.3)	99 (0.1)	468 (15.3)	1 (0.2)	482 (3.4)	99 (0.2)	482 (3.4)	99 (0.2)	482 (3.4)	99 (0.2)
도미니카	365 (8.8)	3 (0.4)	388 (3.0)	97 (0.4)	381 (11.0)	2 (0.3)	382 (3.0)	98 (0.4)	382 (3.0)	98 (0.4)	382 (3.0)	98 (0.4)
ICCS 2016 평균	479 (2.2)	7 (0.2)	523 (0.7)	93 (0.2)	474 (2.3)	8 (0.2)	522 (0.7)	92 (0.2)	522 (0.7)	92 (0.2)	522 (0.7)	92 (0.2)



제Ⅳ장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시민참여
- 2.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
- 3.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 4. 청소년들의 학교밖 시민참여
- 5. 청소년들의 미래 시민참여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시민참여

1) 매체와 대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현황

ICCS에서 청소년의 시민참여란 (a)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적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b) 또래나 어른들과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c) 사회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지 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현재 참여하는 시민활동은 미래 시민참여와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자기 연령대에 개방된 여러 시민활동(예 : 학교 기반 활동, 청소년 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시민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사회에서 성인 참여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ancer, 2015).

Ekman과 Amnå (2012)은 시민 참여(잠재적 정치참여)와 실제 정치 참여를 구분한다. 잠재적 참여는 정치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며, 정치 참여는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적 수동성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Amnå & Ekman (2014)은 단지 참여하지 않는 시민과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구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결속력이 없이 존재하는 수동적 시민들은 필요할 때면 정보를 수집하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지만, 환멸을 느낀 수동적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에 따라 시민사회의 절차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ICCS에서는 실제 나타나는 참여행동 이외에도 참여의도(정치적 관심 또는 자기 효능감)와 행동의 의도(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한다.

ICCS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로 매체와 주변 어른들 특히 부모와의 대화를 상정하고 이들 경로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2009년 조사결과 대비 2016년에 이들 참여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TV뉴스 보기(65%)와 부모와 토론하기(45%)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매체인 TV와 신문을 통해서 국내외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은 각각 -3%p(TV), -15%p(신문)씩 감소했다. 반면에 부모와 국내외의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대화한다는 응답은 7%p 증가했다.

표 IV-1 매체와 대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현황

국명	국내외 뉴스를 알기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TV를 본다			국내외 뉴스를 알기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신문 본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주 1회 이상 부모와 대화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노르웨이	55	71	-16	27	54	-27	43	35	8
독일	60	-	-	23	-	-	57	-	-
덴마크	60	69	-10	20	28	-8	58	45	12
네덜란드	63	62	1	18	31	-13	46	30	16
홍콩	71	77	-6	44	68	-24	39	43	-4
스웨덴	57	49	8	29	51	-22	48	28	20
한국	60	75	-15	14	27	-13	41	35	6
대만	80	80	0	35	56	-21	39	38	1
벨기에	72	62	10	33	33	0	44	28	17
핀란드	45	50	-5	30	48	-18	41	24	18

국가명	국내의 뉴스를 알기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TV를 본다			국내의 뉴스를 알기 위해서 매우 1회 이상 신문 본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주 1회 이상 부모와 대화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슬로베니아	59	54	4	17	32	-15	43	33	10
이탈리아	74	78	-4	27	36	-10	61	55	7
에스토니아	65	75	-10	30	53	-23	40	30	10
몰타	65	64	1	16	28	-13	51	40	11
리투아니아	73	76	-4	23	45	-22	50	40	11
칠레	76	80	-4	23	38	-14	38	40	-2
라트비아	57	76	-18	20	37	-17	47	41	7
크로아티아	64	-	-	25	-	-	49	-	-
러시아	57	61	-3	21	38	-17	38	33	5
불가리아	72	72	-1	20	37	-16	41	40	2
멕시코	59	63	-3	26	31	-5	36	38	-2
페루	80	-	-	60	-	-	51	-	-
콜롬비아	79	84	-6	35	38	-3	45	48	-3
도미니카	72	74	-2	39	54	-15	47	50	-4
ICCS 2016	65	69	-3	26	41	-15	45	38	7

2016년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활동의 현황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각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44% 이상은 지난 1년간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참여의 비율은 특히 대만(57%), 도미니카(53.5%), 페루(52.7%), 라트비아(52.6%), 한국(52%), 홍콩(51.9%)에서 높았다. 특히 대만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전통적인 공중파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이 한국보다 낮았고, 그 수준이 2016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매체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IV-2).

표 IV-2 참여국가별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참여율 순)

국가명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사용		SNS에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SNS에 공유		SNS를 통한 참여 비율 평균	
대만	65	(1.0)	20	(0.7)	15	(0.6)	57	(0.2)
도미니카	37	(1.2)	19	(0.8)	23	(0.9)	54	(0.2)
페루	33	(0.9)	17	(0.7)	18	(0.7)	53	(0.2)
라트비아	37	(1.2)	14	(0.8)	14	(0.7)	53	(0.3)
한국	41	(1.2)	8	(0.6)	11	(0.7)	52	(0.2)
홍콩	29	(1.0)	16	(0.8)	16	(0.8)	52	(0.3)
러시아	40	(1.2)	8	(0.5)	10	(0.6)	52	(0.3)
리투아니아	37	(1.1)	8	(0.6)	9	(0.6)	52	(0.2)
콜롬비아	29	(0.9)	11	(0.6)	16	(0.8)	51	(0.2)
이탈리아	35	(1.0)	9	(0.5)	10	(0.6)	51	(0.2)
멕시코	29	(0.8)	12	(0.5)	12	(0.5)	50	(0.2)
불가리아	26	(0.9)	12	(0.9)	11	(0.6)	50	(0.3)
덴마크	38	(0.8)	3	(0.3)	4	(0.4)	50	(0.2)
스웨덴	33	(1.1)	5	(0.5)	7	(0.7)	50	(0.2)
에스토니아	26	(1.2)	5	(0.4)	8	(0.6)	49	(0.2)
크로아티아	34	(1.2)	3	(0.4)	3	(0.4)	49	(0.2)
노르웨이	27	(0.7)	4	(0.3)	5	(0.3)	49	(0.2)
칠레	21	(0.6)	9	(0.5)	8	(0.4)	48	(0.2)
몰타	25	(0.7)	7	(0.4)	8	(0.4)	48	(0.2)
벨기에	23	(1.1)	5	(0.6)	6	(0.4)	48	(0.3)
독일	14	(1.0)	8	(0.6)	7	(0.7)	47	(0.2)
슬로베니아	20	(0.9)	3	(0.4)	4	(0.4)	47	(0.2)
핀란드	18	(0.9)	3	(0.3)	3	(0.4)	46	(0.2)
네덜란드	10	(0.7)	3	(0.3)	5	(0.5)	44	(0.2)
ICCS 평균	31	(0.2)	9	(0.1)	10	(0.1)	50	(0.0)

2.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실제 정치적인 참여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서 ICCS 조사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왔다. ICCS에서 이 지표의 측정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2009년과 2016년의 국가별 정치적 자기효능감 조사결과와 그 격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들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 청소년들 다음으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국가간 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 중의 하나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핀란드에서도 이 지수는 47.6로 나타났으며 ICCS 평균도 51%를 넘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참여국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이 1.5%p 증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표 IV-3 ICCS 2009 대비 ICCS 2016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결과 차이

국가명	2016		2009		차이	
도미니카	60	(0.2)	57	(0.3)	3.6	(0.4)
한국	59	(0.3)	55	(0.2)	3.7	(0.3)
페루	55	(0.2)	-		-	
크로아티아	54	(0.2)	-		-	
멕시코	54	(0.2)	53	(0.2)	1.5	(0.2)
콜롬비아	53	(0.2)	53	(0.3)	0.5	(0.3)
불가리아	52	(0.3)	50	(0.3)	1.6	(0.4)

국가명	2016		2009		차이	
대만	52	(0.2)	48	(0.2)	3.6	(0.3)
칠레	52	(0.2)	52	(0.2)	0.1	(0.3)
이탈리아	52	(0.2)	51	(0.3)	0.6	(0.3)
스웨덴	52	(0.2)	49	(0.3)	2.6	(0.4)
리투아니아	51	(0.2)	50	(0.2)	0.8	(0.3)
덴마크	51	(0.2)	50	(0.2)	1.1	(0.3)
노르웨이	51	(0.2)	49	(0.3)	1.2	(0.4)
몰타	50	(0.2)	47	(0.3)	3.9	(0.3)
홍콩	50	(0.2)	50	(0.2)	0.8	(0.2)
슬로베니아	50	(0.2)	50	(0.3)	0.2	(0.3)
벨기에	50	(0.2)	47	(0.2)	2.7	(0.3)
러시아	50	(0.2)	49	(0.2)	0.6	(0.3)
에스토니아	49	(0.2)	48	(0.2)	1.0	(0.3)
네덜란드	48	(0.2)	48	(0.6)	0.4	(0.2)
라트비아	48	(0.2)	49	(0.2)	-1.2	(0.3)
핀란드	48	(0.2)	46	(0.2)	1.8	(0.3)
ICCS 평균	51	(0.1)	50	(0.1)	1.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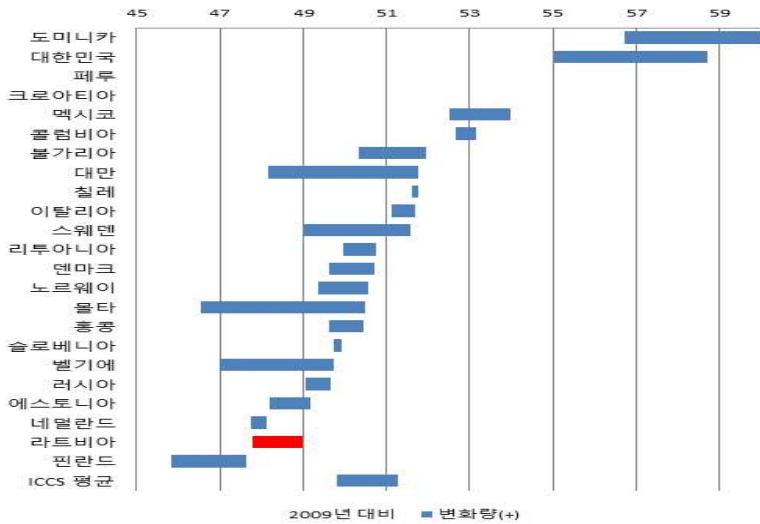


그림 IV-1 ICCS 2009 대비 ICCS 2016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결과 차이

표 IV-4 부모의 교육수준, 시민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

국가명	부모의 교육수준				청소년의 시민적 관심 수준				시민지식 수준			
	대졸 부모 없음		부모 중 한명 이상 대졸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레벨 B 미만 (479점 미만)		레벨 B 이상 (479점 이상)	
노르웨이	50	(0.2)	52	(0.2)	49	(0.2)	57	(0.2)	49	(0.4)	52	(0.2)
덴마크	54	(0.2)	56	(0.3)	51	(0.2)	59	(0.2)	51	(0.5)	55	(0.2)
네덜란드	49	(0.3)	52	(0.4)	48	(0.2)	57	(0.5)	47	(0.5)	51	(0.3)
홍콩	51	(0.3)	54	(0.5)	48	(0.3)	56	(0.3)	50	(0.5)	52	(0.3)
스웨덴	52	(0.3)	54	(0.4)	49	(0.2)	58	(0.3)	51	(0.6)	53	(0.4)
한국	50	(0.3)	52	(0.2)	47	(0.3)	55	(0.3)	49	(0.5)	52	(0.2)
대만	51	(0.2)	52	(0.4)	49	(0.2)	56	(0.3)	49	(0.5)	52	(0.2)
벨기에	50	(0.4)	51	(0.3)	48	(0.2)	56	(0.4)	50	(0.6)	51	(0.3)
핀란드	50	(0.3)	52	(0.3)	48	(0.2)	56	(0.3)	47	(0.6)	51	(0.3)
슬로베니아	50	(0.3)	52	(0.4)	49	(0.2)	56	(0.3)	48	(0.4)	51	(0.3)
이탈리아	53	(0.2)	54	(0.4)	51	(0.2)	58	(0.2)	52	(0.3)	54	(0.2)
에스토니아	51	(0.3)	53	(0.4)	50	(0.3)	57	(0.3)	50	(0.5)	53	(0.3)
몰타	53	(0.2)	54	(0.3)	51	(0.2)	58	(0.2)	52	(0.3)	54	(0.2)
리투아니아	53	(0.3)	55	(0.3)	51	(0.2)	57	(0.2)	53	(0.5)	54	(0.2)
칠레	49	(0.2)	51	(0.3)	48	(0.2)	56	(0.4)	48	(0.3)	51	(0.2)
라트비아	53	(0.3)	54	(0.3)	52	(0.3)	58	(0.3)	53	(0.4)	54	(0.3)
크로아티아	53	(0.2)	54	(0.3)	51	(0.2)	57	(0.3)	51	(0.4)	54	(0.2)
러시아	51	(0.2)	53	(0.3)	49	(0.2)	56	(0.2)	50	(0.4)	53	(0.2)
불가리아	51	(0.4)	52	(0.3)	49	(0.3)	56	(0.4)	51	(0.5)	52	(0.3)
멕시코	49	(0.2)	50	(0.3)	47	(0.2)	54	(0.5)	48	(0.3)	50	(0.3)
페루	53	(0.2)	54	(0.3)	51	(0.2)	56	(0.2)	54	(0.2)	53	(0.3)
콜롬비아	50	(0.2)	52	(0.3)	48	(0.2)	56	(0.3)	51	(0.2)	51	(0.3)
도미니카	52	(0.3)	52	(0.3)	50	(0.3)	56	(0.4)	52	(0.3)	52	(0.7)
ICCS 2016 평균	51	(0.1)	53	(0.1)	49	(0.0)	57	(0.1)	50	(0.1)	52	(0.1)

3.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원칙적으로 학교내에서의 시민 참여는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진행되므로 시민지식 점수나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내 시민참여 경험을 측정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청소년들의 교내시민참여 수준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교내 시민참여의 의지는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표 IV-6, IV-7). 그러나 교내시민참여의 의지와 시민지식의 수준 간에는 일관적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교내 자원봉사 활동 참여수준과 미래 선거 참여에의 기대는 2009년 대비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경험 역시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관련 투표참여 경험은 2009년의 76.3%에서 11.4%p 증가한 87.7%로,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참여한 경험은 33%에서 20.5%p 증가한 53.4%로, 그리고 학생회 임원 후보로 출마해본 경험은 32.8%에서 14%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참여에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수준은 여전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더 향상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국가명	학생대표, 학생회 임원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 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네덜란드	51	(2.3)	52	(4.5)	-	27	(1.0)	27	(2.5)	0	21	(1.3)	22	(2.5)	-
노르웨이	93	(0.4)	90	(0.8)	3	59	(0.9)	56	(1.1)	3	58	(0.8)	59	(1.0)	-1
대만	72	(0.8)	67	(0.9)	5	43	(0.8)	43	(0.7)	-1	34	(0.9)	32	(0.9)	1
한국	88	(0.8)	76	(0.7)	11	53	(1.4)	33	(0.9)	20	47	(1.1)	33	(0.7)	14
덴마크	80	(1.1)	73	(1.1)	6	47	(1.0)	44	(1.0)	4	50	(1.0)	49	(1.0)	1
도미니카	66	(1.0)	61	(1.5)	5	60	(1.1)	59	(1.1)	1	62	(1.1)	58	(1.2)	4
독일	82	(1.2)	-		-	50	(2.2)	-		-	60	(1.4)	-		-
라트비아	62	(2.0)	67	(2.5)	-5	30	(1.3)	31	(1.3)	-1	34	(1.3)	39	(1.6)	-5
러시아	84	(1.3)	76	(1.4)	7	33	(1.1)	32	(1.2)	1	25	(0.9)	28	(1.1)	-3
리투아니아	89	(0.8)	84	(0.9)	5	43	(1.5)	35	(1.1)	8	47	(1.3)	30	(1.1)	17
멕시코	76	(1.0)	74	(0.9)	3	57	(0.8)	54	(0.9)	3	42	(0.9)	36	(0.7)	6
몰타	78	(0.7)	62	(1.2)	16	42	(0.8)	29	(1.0)	13	48	(0.8)	24	(0.9)	25
벨기에	64	(2.0)	68	(2.0)	-4	37	(1.3)	36	(1.3)	2	37	(1.3)	34	(1.2)	3
불가리아	56	(1.7)	52	(1.9)	5	32	(1.2)	31	(1.2)	1	37	(1.3)	34	(1.1)	3
스웨덴	89	(0.8)	85	(0.9)	4	64	(0.9)	54	(1.1)	11	47	(0.8)	40	(1.0)	6
슬로베니아	84	(0.8)	84	(0.8)	-1	24	(0.9)	28	(1.2)	-4	59	(1.2)	59	(1.1)	0
에스토니아	74	(1.7)	75	(1.8)	0	29	(1.0)	24	(1.2)	5	30	(1.2)	32	(1.5)	-2
이탈리아	50	(2.5)	49	(2.3)	2	36	(1.2)	34	(1.5)	2	22	(1.6)	21	(1.3)	0
칠레	91	(0.7)	89	(0.7)	2	49	(1.0)	39	(1.1)	9	46	(0.9)	47	(1.0)	-1
콜롬비아	90	(0.8)	90	(0.5)	0	49	(1.0)	57	(0.9)	-7	42	(1.1)	44	(0.8)	-2
크로아티아	91	(0.6)	-		-	20	(1.0)	-		-	58	(1.1)	-		-
페루	84	(1.0)	-		-	45	(1.0)	-		-	45	(1.0)	-		-
핀란드	85	(1.1)	83	(1.3)	2	27	(1.0)	15	(0.7)	12	46	(1.5)	35	(1.4)	11
홍콩	71	(1.2)	74	(1.5)	-3	30	(1.1)	28	(1.3)	1	30	(1.0)	32	(1.3)	-1
ICCS 평균	77	(0.3)	74	(0.3)	3	42	(0.2)	39	(0.3)	3	42	(0.3)	39	(0.3)	3

표 IV-6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 참여의사

국가명	학급 혹은 학생회임원 선출투표		당신이 동의하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캠페인 그룹		학급 혹은 학생회임원으로 출마		학생회에서 하는 토론에 참여		학교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사 작성에 참여		전체 교내활동 참여의사 평균	
도미니카	88	(0.7)	83	(1.0)	77	(0.8)	74	(1.1)	74	(0.8)	57	(0.2)
페루	92	(0.5)	86	(0.7)	71	(0.8)	65	(0.7)	65	(0.7)	55	(0.1)
멕시코	88	(0.6)	82	(0.7)	68	(0.9)	68	(0.8)	62	(0.8)	54	(0.2)
콜롬비아	86	(0.7)	78	(0.7)	56	(1.1)	58	(1.0)	57	(1.3)	53	(0.2)
크로아티아	87	(0.7)	78	(0.9)	48	(1.2)	56	(0.9)	48	(1.5)	52	(0.2)
이탈리아	87	(0.8)	73	(0.9)	47	(1.0)	63	(1.0)	56	(1.0)	52	(0.2)
리투아니아	87	(0.8)	77	(0.9)	55	(1.1)	64	(1.0)	41	(1.2)	51	(0.2)
대만	87	(0.7)	57	(0.7)	58	(1.0)	84	(0.7)	33	(0.7)	51	(0.2)
러시아	82	(0.8)	69	(0.9)	45	(1.1)	69	(1.1)	59	(0.9)	51	(0.2)
칠레	82	(0.7)	70	(0.8)	53	(0.9)	52	(0.9)	47	(0.9)	51	(0.2)
몰타	83	(0.7)	71	(0.6)	53	(0.8)	54	(0.8)	42	(0.9)	50	(0.2)
불가리아	76	(1.1)	75	(1.0)	47	(1.3)	56	(1.2)	51	(1.2)	50	(0.3)
노르웨이	89	(0.5)	50	(0.8)	46	(0.8)	44	(0.9)	29	(0.8)	49	(0.2)
슬로베니아	72	(1.0)	67	(1.0)	43	(1.1)	46	(1.1)	43	(1.1)	49	(0.2)
라트비아	72	(1.0)	67	(1.0)	48	(1.2)	53	(1.1)	41	(1.2)	49	(0.2)
한국	82	(0.9)	41	(1.2)	43	(1.2)	48	(1.0)	33	(1.0)	48	(0.2)
에스토니아	80	(1.0)	65	(1.2)	32	(1.1)	45	(1.3)	27	(0.9)	48	(0.3)
홍콩	73	(0.9)	46	(1.2)	44	(0.9)	43	(1.0)	36	(1.1)	47	(0.2)
덴마크	78	(0.9)	55	(1.1)	32	(0.9)	37	(1.0)	24	(0.9)	47	(0.2)
스웨덴	77	(1.0)	47	(1.2)	32	(1.0)	42	(1.0)	30	(0.9)	47	(0.2)
독일	70	(1.4)	36	(1.7)	49	(1.5)	46	(1.8)	34	(1.4)	47	(0.4)
핀란드	83	(1.0)	40	(1.0)	27	(1.0)	37	(1.1)	26	(1.0)	47	(0.2)
벨기에	62	(1.4)	48	(1.2)	34	(1.0)	43	(1.1)	26	(0.9)	46	(0.3)
네덜란드	56	(1.5)	35	(1.3)	28	(1.3)	31	(1.3)	27	(1.1)	44	(0.3)
ICCS 평균	81	(0.2)	65	(0.2)	48	(0.2)	54	(0.2)	43	(0.2)	50	(0.0)

표 IV-7 참여국가별 성별/정치 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교내 시민참여 의사

국가명	성별				정치 관심				시민지식 수준			
	남		여		정치 관심 없음		정치 관심 있음		레벨 B 미만 (479점 미만)		레벨 B 이상 (479점 이상)	
노르웨이	48	(0.3)	50	(0.2)	47	(0.2)	53	(0.2)	48	(0.5)	49	(0.1)
덴마크	46	(0.2)	47	(0.2)	45	(0.2)	49	(0.2)	46	(0.5)	47	(0.2)
네덜란드	43	(0.4)	44	(0.3)	43	(0.3)	47	(0.7)	42	(0.5)	44	(0.4)
홍콩	47	(0.3)	47	(0.3)	45	(0.2)	49	(0.3)	45	(0.3)	48	(0.3)
스웨덴	46	(0.3)	48	(0.3)	44	(0.3)	50	(0.3)	46	(0.8)	47	(0.2)
한국	48	(0.3)	48	(0.3)	46	(0.4)	50	(0.3)	46	(0.6)	49	(0.3)
대만	51	(0.2)	52	(0.2)	51	(0.2)	53	(0.3)	50	(0.6)	52	(0.2)
벨기에	45	(0.3)	46	(0.4)	44	(0.2)	49	(0.5)	46	(0.6)	46	(0.3)
핀란드	45	(0.3)	48	(0.3)	45	(0.2)	49	(0.3)	44	(0.6)	47	(0.2)
슬로베니아	48	(0.3)	50	(0.3)	48	(0.3)	52	(0.4)	47	(0.4)	49	(0.2)
이탈리아	50	(0.3)	53	(0.3)	50	(0.3)	54	(0.3)	50	(0.4)	52	(0.2)
에스토니아	46	(0.3)	50	(0.3)	46	(0.2)	51	(0.3)	45	(0.5)	48	(0.3)
몰타	50	(0.3)	51	(0.2)	49	(0.2)	53	(0.3)	50	(0.3)	51	(0.2)
리투아니아	50	(0.3)	53	(0.3)	50	(0.3)	54	(0.3)	51	(0.4)	52	(0.3)
칠레	50	(0.3)	52	(0.2)	50	(0.2)	55	(0.4)	51	(0.3)	52	(0.3)
라트비아	47	(0.3)	50	(0.3)	48	(0.3)	51	(0.4)	48	(0.4)	49	(0.3)
크로아티아	51	(0.3)	53	(0.2)	50	(0.2)	54	(0.4)	50	(0.5)	52	(0.2)
러시아	50	(0.4)	53	(0.3)	50	(0.4)	54	(0.3)	51	(0.5)	51	(0.3)
불가리아	49	(0.4)	52	(0.4)	49	(0.3)	53	(0.4)	50	(0.5)	51	(0.3)
멕시코	53	(0.2)	54	(0.2)	53	(0.2)	57	(0.3)	54	(0.2)	54	(0.2)
페루	54	(0.2)	55	(0.2)	53	(0.2)	56	(0.2)	54	(0.2)	55	(0.2)
콜롬비아	53	(0.2)	54	(0.3)	52	(0.2)	57	(0.3)	54	(0.3)	53	(0.3)
도미니카	57	(0.3)	58	(0.3)	57	(0.3)	59	(0.3)	57	(0.2)	57	(0.5)
ICCS 2016 평균	49	(0.1)	51	(0.1)	49	(0.1)	53	(0.1)	49	(0.1)	50	(0.1)

4. 청소년들의 학교밖 시민참여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서 실제 정치적 참여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ICCS에서는 정치적인 참여 중에서도 단체에 참여경험을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해왔다. 그리고 이 영역의 지표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 조사에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금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정치단체 가입율은 2009년의 3.6%에 비하면 5.7%로 2.1%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영역 항목의 ICCS 평균치는 2009년의 9%에서 2016년에는 10%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참여 경험 특히 단체가입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단체의 가입경험은 2009년의 17.7%에 비해 18.8%p 증가한 36.5%로 높아져 거의 ICCS 평균에 근접했으며 정치-사회적 캠페인 단체에의 가입경험 역시 2009년의 10.4%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5%로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표 IV-8 ICCS 2016 참여국가별 학교밖 시민참여 경험

국가명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가입			특정 이슈 캠페인하는 청소년 단체 가입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대만	2 (0.2)	4 (0.3)	-2	26 (1.0)	20 (0.7)	6	2 (0.2)	6 (0.4)	-4
핀란드	3 (0.3)	3 (0.3)	1	15 (0.7)	14 (0.6)	0	8 (0.6)	10 (0.6)	-2
크로아티아	4 (0.4)	-	-	30 (1.6)	-	-	3 (0.3)	-	-
독일	4 (0.5)	-	-	32 (1.9)	-	-	20 (1.2)	-	-
네덜란드	4 (0.4)	6 (1.3)	-1	30 (1.3)	24 (2.3)	6	7 (0.6)	12 (0.9)	-5
슬로베니아	5 (0.6)	6 (0.5)	-1	31 (1.1)	24 (1.0)	7	27 (1.0)	35 (1.0)	-8
덴마크	5 (0.4)	4 (0.5)	0	25 (0.8)	12 (0.7)	13	18 (0.8)	13 (0.7)	5
스웨덴	5 (0.5)	7 (0.5)	-1	16 (0.9)	14 (0.7)	2	14 (0.7)	14 (0.6)	0
한국	6 (0.5)	4 (0.3)	2	37 (1.1)	18 (0.7)	19	21 (0.9)	10 (0.6)	10
이탈리아	6 (0.5)	5 (0.4)	1	32 (1.0)	23 (1.0)	9	22 (1.0)	23 (1.0)	-1
벨기에	6 (0.5)	5 (0.5)	1	30 (1.2)	23 (0.9)	8	17 (0.8)	17 (0.8)	0
홍콩	6 (0.7)	8 (0.6)	-1	19 (0.9)	33 (1.4)	-15	7 (0.7)	9 (0.6)	-2
에스토니아	10 (0.7)	9 (0.8)	1	43 (1.3)	44 (1.3)	-1	25 (0.8)	30 (1.0)	-5
불가리아	10 (0.9)	9 (0.7)	1	50 (1.3)	37 (1.3)	13	39 (1.2)	37 (1.3)	2
노르웨이	10 (0.5)	9 (0.6)	1	32 (0.9)	20 (0.9)	13	14 (0.6)	24 (1.0)	-9
칠레	11 (0.6)	9 (0.7)	2	40 (0.9)	40 (1.1)	0	38 (1.0)	42 (0.9)	-4
콜롬비아	12 (0.6)	14 (0.6)	-2	54 (1.1)	57 (0.8)	-2	34 (0.9)	45 (0.9)	-11
러시아	13 (1.1)	11 (0.8)	2	35 (1.0)	30 (1.5)	5	54 (0.9)	62 (1.3)	-8
라트비아	15 (0.9)	9 (0.8)	6	42 (1.4)	38 (1.2)	4	28 (1.1)	38 (1.5)	-10
멕시코	15 (0.6)	15 (0.7)	0	49 (1.0)	46 (1.0)	3	33 (1.0)	39 (0.9)	-6
몰타	17 (0.7)	14 (0.9)	2	46 (0.9)	36 (1.3)	10	19 (0.7)	17 (1.0)	2
리투아니아	19 (1.1)	11 (0.6)	8	42 (1.3)	23 (0.9)	18	21 (1.2)	25 (0.9)	-4
페루	19 (0.8)	-	-	52 (0.9)	-	-	40 (0.8)	-	-
도미니카	23 (0.9)	25 (0.9)	-2	67 (1.1)	70 (0.9)	-3	48 (1.1)	58 (1.1)	-11
ICCS 평균	10 (0.2)	9 (0.2)	1	38 (0.3)	32 (0.2)	6	26 (0.2)	30 (0.2)	-4

5. 청소년들의 미래 시민참여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참여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래의 선거 참여의사를 질문할 때 “확실히 할 것이다”, “아마도 할 것이다”,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안할 것이다”의 4단계로 측정했다.

조사 결과 (a) 지방 선거 투표를 아마도 할 것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85 %, (b) 국가 선거 투표 역시 85%, (c)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청소년은 80%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2009년 대비 각 국가들의 변화량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비교 가능한 18 개국 중 9 개국에서 예상되는 선거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 (3 단계 이상)는 덴마크와 스웨덴이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각종 선거에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의 48.5%에서 2016년에는 50.8%로 2.3%p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ICCS 평균인 51.3%보다 여전히 낮았다.

표 IV-9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 참여 의사

국가명	2016		2009		변화량
페루	55	(0.2)	-		-
노르웨이	54	(0.1)	52	(0.3)	2.1
이탈리아	54	(0.2)	54	(0.2)	0.1
스웨덴	53	(0.2)	49	(0.3)	4.2
콜롬비아	53	(0.2)	54	(0.2)	-0.5
도미니카	53	(0.2)	52	(0.3)	0.9
대만	53	(0.2)	51	(0.2)	2.1
덴마크	52	(0.2)	49	(0.2)	3.3
멕시코	52	(0.2)	53	(0.2)	-0.7
리투아니아	52	(0.2)	52	(0.2)	0.4
크로아티아	51	(0.2)	-		-
한국	51	(0.3)	49	(0.2)	2.3
러시아	51	(0.3)	51	(0.2)	-0.6
핀란드	51	(0.2)	49	(0.2)	1.5
칠레	50	(0.2)	50	(0.3)	0.3
몰타	50	(0.2)	49	(0.4)	0.7
슬로베니아	50	(0.3)	50	(0.2)	0.1
불가리아	50	(0.3)	48	(0.3)	1.9
라트비아	49	(0.2)	50	(0.3)	-0.7
벨기에	49	(0.3)	46	(0.2)	3.0
에스토니아	48	(0.2)	47	(0.3)	1.4
홍콩	47	(0.3)	48	(0.3)	-1.3
네덜란드	47	(0.3)	47	(0.4)	0.3
독일	47	(0.4)	-		-
ICCS 평균	51	(0.0)	50	(0.1)	1.1

표 I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부모 학력/정치 관심/시민지식 점수와 미래 투표 참여 의사

국가명	부모의 학력				학생의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점수 수준			
	양친 모두 대졸미만		양친 중 한명 이상 대졸		정치에 관심없 음		정치에 관심 있음		B 레벨 미만		B 레벨 이상	
홍콩	47	(0.3)	50	(0.5)	44	(0.3)	51	(0.3)	43	(0.4)	49	(0.3)
한국	49	(0.3)	52	(0.3)	49	(0.3)	53	(0.3)	46	(0.5)	52	(0.3)
벨기에	47	(0.3)	50	(0.3)	47	(0.3)	52	(0.4)	45	(0.4)	50	(0.3)
불가리아	49	(0.3)	51	(0.4)	48	(0.3)	53	(0.4)	47	(0.4)	51	(0.3)
칠레	49	(0.2)	53	(0.4)	49	(0.2)	55	(0.3)	47	(0.3)	53	(0.2)
대만	52	(0.2)	54	(0.3)	52	(0.2)	55	(0.2)	48	(0.4)	54	(0.2)
콜롬비아	53	(0.2)	54	(0.3)	52	(0.2)	56	(0.3)	51	(0.3)	55	(0.3)
크로아티아	51	(0.2)	53	(0.3)	50	(0.2)	54	(0.3)	47	(0.5)	53	(0.2)
덴마크	52	(0.2)	55	(0.3)	50	(0.2)	56	(0.2)	46	(0.5)	53	(0.2)
도미니카	53	(0.2)	54	(0.3)	52	(0.3)	55	(0.3)	53	(0.2)	55	(0.5)
에스토니아	47	(0.3)	49	(0.3)	46	(0.2)	51	(0.3)	44	(0.5)	49	(0.2)
핀란드	50	(0.2)	52	(0.2)	49	(0.2)	54	(0.2)	44	(0.5)	52	(0.2)
이탈리아	54	(0.2)	56	(0.4)	53	(0.2)	57	(0.3)	50	(0.4)	56	(0.2)
라트비아	48	(0.3)	51	(0.3)	48	(0.2)	53	(0.4)	46	(0.4)	52	(0.3)
리투아니아	52	(0.2)	53	(0.3)	51	(0.2)	55	(0.2)	49	(0.3)	54	(0.2)
몰타	50	(0.2)	51	(0.3)	48	(0.2)	54	(0.2)	47	(0.3)	52	(0.2)
멕시코	52	(0.2)	53	(0.3)	51	(0.2)	55	(0.3)	51	(0.3)	54	(0.2)
네덜란드	45	(0.3)	50	(0.3)	46	(0.3)	52	(0.5)	42	(0.4)	49	(0.3)
노르웨이	53	(0.2)	56	(0.2)	53	(0.2)	58	(0.2)	47	(0.4)	56	(0.1)
페루	54	(0.2)	56	(0.2)	53	(0.2)	56	(0.2)	53	(0.2)	57	(0.2)
러시아	50	(0.4)	51	(0.2)	49	(0.3)	53	(0.2)	49	(0.5)	51	(0.3)
슬로베니아	49	(0.3)	52	(0.4)	49	(0.3)	53	(0.4)	45	(0.5)	51	(0.3)
스웨덴	52	(0.2)	54	(0.3)	51	(0.3)	57	(0.2)	48	(0.5)	54	(0.2)
ICCS 2016 평균	51	(0.1)	53	(0.1)	50	(0.1)	54	(0.1)	48	(0.1)	53	(0.1)



제V장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 1. 민주주의에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 2. 전통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 3. 진보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
- 5. 평등한 권리에 대한 태도
- 6. 세계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태도
- 7.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1. 민주주의에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1999년에 실시된 IEA CivEd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이나 현상이 "민주주의에 좋거나 나쁜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참여국간의 문화적 가치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Husfeldt & Nikolova, 2003; Torney-Purta, Lehmann, Oswald, & Schulz, 2001). ICCS에서도 이와 유사한 9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 조사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응하여 정부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항목도 있었다. 조사결과, 정치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선거해야 한다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이에 ICCS 2016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주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했다. 청소년들에게 몇몇 상황이 민주주의에 " 좋음", " 나쁨" 또는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표 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공직자로 고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이런 관행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몇몇 국가 (콜롬비아, 이탈리아, 말타, 멕시코, 페루)에서는 4 분의 1 이상의 청소년들이, 도미니카에서는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런 관행이 민주주의에

유리하다고 여겼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서 익숙하고 특별히 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Morris & Blake, 2010; Torgler & Valev, 2004).

한 국가에서 회사 나 정부가 모든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가국 청소년 대다수 (평균 52 %)가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에 나쁜 지에 대해서는 평균 35 %의 청소년들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에 콜롬비아, 말타, 멕시코, 페루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청소년들은 정부가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43 %가 그렇게 생각했다. 민주주의에 나쁘다는 청소년은 20%에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의 3분의 1 정도는 경찰이 안보를 이유로 용의자를 재판없이 구금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고 본 반면, 30%는 그런 관행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 특히 칠레, 대만, 콜롬비아에서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관행이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생각한 반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오히려 40%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런 관행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

표 V-2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성인들이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출하고,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 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인종 및 인종 그룹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만,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멕시코, 페루의 6개국 학생의 3분의 1이상은 정부비판이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응답했다.

7개국 청소년의 40% 이상은 부유층과 빈민층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3개국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청소년중 약 3분의 1은 오히려 빈부격차 감소가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봤다. 참여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학생의 42 %는 소득격차가 민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요약하면 참가국 학생들의 대다수는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선출 할 권리, 부당한 법률에 항의 할 수있는 권리, 모든 인종 및 인종 집단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민주주의에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거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응답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유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응답이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평균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었다.

표 V-1 전형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bad)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국가명	정치지도자가 자기가족을 공직자로 고용하는 것			한 회사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하는 것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재판없이 구금 하는 것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좋다 %	중간 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 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 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 이다 %	나쁘다 %
노르웨이	21	48	31	17	37	46	27	38	36	21	48	31
독일	16	36	48	10	37	54	20	36	43	13	32	55
덴마크	7	40	53	6	31	63	18	43	39	17	48	35
네덜란드	10	33	57	9	34	57	20	48	32	16	46	38
홍콩	32	44	25	19	40	41	22	33	45	13	30	57
스웨덴	14	44	42	8	33	59	28	41	31	17	41	41
한국	29	29	42	12	30	58	27	35	38	25	44	31
대만	10	16	74	13	28	59	31	19	49	15	21	64
벨기에	14	43	43	9	35	56	19	46	35	18	55	27
핀란드	5	31	63	4	27	69	26	48	25	17	60	23
슬로베니아	9	41	50	9	35	56	38	40	22	14	37	49
이탈리아	30	29	41	14	39	47	29	34	38	13	38	48
에스토니아	8	41	51	5	32	63	26	39	36	17	42	41
몰타	26	38	36	14	41	45	28	38	34	29	45	26
리투아니아	12	40	48	13	36	51	33	31	37	24	42	34
칠레	18	42	40	11	44	45	23	32	44	23	46	31
라트비아	12	35	53	10	36	54	31	40	29	21	44	35
크로아티아	7	38	55	5	31	63	40	40	20	11	41	48
러시아	16	45	39	12	40	48	28	36	36	24	37	39
불가리아	11	39	50	15	42	43	41	36	23	21	37	42
멕시코	25	47	29	13	50	37	35	35	30	30	48	21
페루	29	43	28	14	43	42	34	34	32	32	49	19
콜롬비아	28	51	21	9	44	47	28	32	40	26	50	24
도미니카	54	33	13	19	40	42	42	27	31	43	37	20
ICCS 평균	17	39	44	11	37	52	30	37	33	21	43	35

표 V-2 전형적으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good)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국가명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권리			모든 성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			부당한 법에 항의할 권리			빈부격차의 감소			성별, 인종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 보장		
	좋다 %	중간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이다 %	나쁘다 %	좋다 %	중간이다 %	나쁘다 %
노르웨이	43	39	19	75	21	3	70	24	6	36	44	20	68	28	4
독일	52	30	18	79	16	5	72	21	8	36	48	15	71	22	8
덴마크	39	43	18	84	13	2	69	25	6	30	52	18	60	34	6
네덜란드	54	38	8	86	11	3	59	34	7	50	35	15	59	34	7
홍콩	63	27	10	69	27	4	73	23	4	42	46	13	67	28	4
스웨덴	52	34	14	83	13	5	77	19	4	39	45	16	69	27	4
한국	52	38	10	73	24	3	81	18	2	36	43	21	76	22	2
대만	37	24	39	82	15	3	63	16	21	53	33	15	80	17	3
벨기에	55	38	7	88	10	2	51	40	9	43	36	21	61	33	6
핀란드	53	40	7	82	17	2	59	35	6	43	46	12	64	33	3
슬로베니아	38	42	20	84	13	3	60	30	10	44	32	24	72	23	5
이탈리아	39	36	25	81	14	5	64	24	12	53	34	13	73	20	7
에스토니아	31	40	29	80	16	4	59	27	14	43	39	18	65	30	5
몰타	35	42	23	66	28	7	66	27	7	33	40	27	58	33	9
리투아니아	35	32	34	76	18	6	63	19	18	28	46	26	63	28	8
칠레	43	41	16	78	18	4	63	28	9	26	40	34	60	32	8
라트비아	27	38	35	71	23	6	52	29	19	30	50	19	46	45	9
크로아티아	43	41	16	86	12	2	60	32	7	38	35	27	71	25	4
러시아	36	37	28	79	16	5	58	29	12	36	47	18	64	30	7
불가리아	35	42	23	76	18	6	69	22	8	31	41	28	58	27	15
멕시코	20	42	38	72	23	4	57	32	11	23	48	28	69	26	5
페루	28	39	32	80	17	4	64	26	10	22	45	33	72	23	5
콜롬비아	28	38	34	86	12	3	68	22	10	20	47	33	64	30	6
도미니카	23	30	47	81	15	4	66	24	11	31	43	26	66	27	7
ICCS 평균	38	38	24	80	16	4	63	27	10	36	42	22	65	29	6

2. 전통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케네디 (Kennedy, 2006)는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요소(국가 정체성, 애국심, 충성도)와 능동적 (종래 및 사회 운동 관련)을 구별했다. 청년들의 이상적인 시민 행동에 대한 견해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 (예를 들어, Abs, 2013)도 비슷한 구별을 했다. ICCS 2016 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시민의식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가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결과, (a) “모든 국가 선거에 투표하기”를 중요하게 여긴 청소년은 81% 였고, (b) “정당에 가입하기”는 32%, (c) “자국 역사 배우기”는 79 %, (d) “신문, 라디오, TV 또는 인터넷의 정치적 이슈를 계속 따라잡기”는 76 %, (e) “정부 대표를 존경하기”는 84%; (f) “정치적 토론에 참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비율은 44 %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이런 전통적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국가는 도미니카,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였다. 반면에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청소년들은 이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 전통적 시민의식의 가치평가는 9개 국가에서는 2009년 보다 훨씬 높아졌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전통적 시민의식의 변화량은 거의 차이 없었다.

표 V-4는 성별, 정치적 관심수준(상당히 관심이 많은 vs 거의, 전혀 없는), 그리고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른 전통적인 시민의식의 가치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학생과 관심이 많은 학생사이에 4점 이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단,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전통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3점 이상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전통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국가명	2016			2009		격차 (2016-2009)	
노르웨이	51	(0.1)	▽	49	(0.2)	1.3	(0.5)
독일	48	(0.4)		-		-	
덴마크	50	(0.2)	▽	48	(0.2)	2.2	(0.5)
네덜란드	48	(0.3)	▼	-		-	
홍콩	51	(0.2)		52	(0.2)	1.0	(0.2)
스웨덴	49	(0.3)	▽	46	(0.2)	3.0	(0.5)
한국	53	(0.3)		53	(0.2)	0.0	(0.4)
대만	52	(0.2)	△	50	(0.2)	1.7	(0.5)
벨기에	48	(0.2)	▼	46	(0.2)	2.2	(0.5)
핀란드	48	(0.2)	▼	45	(0.2)	2.6	(0.5)
슬로베니아	48	(0.3)	▼	46	(0.2)	1.5	(0.5)
이탈리아	55	(0.2)	▲	54	(0.2)	0.7	(0.5)
에스토니아	48	(0.3)	▼	47	(0.2)	0.4	(0.5)
몰타	50	(0.2)	▽	50	(0.3)	0.1	(0.5)
리투아니아	52	(0.2)	△	51	(0.2)	1.5	(0.5)
칠레	51	(0.3)		51	(0.2)	-0.7	(0.6)
라트비아	50	(0.3)	▽	50	(0.2)	0.4	(0.5)
크로아티아	52	(0.2)	△	-		-	
러시아	52	(0.3)	△	53	(0.3)	-0.5	(0.6)
불가리아	50	(0.3)	▽	49	(0.2)	0.8	(0.5)
멕시코	55	(0.3)	▲	54	(0.2)	1.0	(0.5)
페루	55	(0.2)	▲	-		-	
콜롬비아	52	(0.2)	△	52	(0.2)	0.1	(0.5)
도미니카	58	(0.3)	▲	55	(0.3)	2.8	(0.6)
ICCS 평균	51	(0.1)		50	(0.1)	1.2	(0.1)

* 주 : ▲ more than 3 score points above ICCS 2016 average
△ significantly above ICCS 2016 average
▽ significantly below ICCS 2016 average
▼ more than 3 score points below ICCS 2016 average

표 V-4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전통적 시민의식 중요성의 인식 차이

국가명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		
	남	여	관심없음	어느정도 이상 관심있음	B수준 미만	B수준 이상	
노르웨이	50 (0.2)	51 (0.2)	49 (0.2)	54 (0.2)	51 (0.5)	51 (0.2)	
덴마크	49 (0.2)	51 (0.2)	48 (0.2)	52 (0.2)	49 (0.6)	50 (0.2)	
네덜란드	48 (0.4)	48 (0.3)	47 (0.3)	51 (0.4)	48 (0.6)	48 (0.2)	
홍콩	51 (0.4)	51 (0.3)	49 (0.3)	53 (0.3)	49 (0.5)	52 (0.3)	
스웨덴	48 (0.3)	49 (0.3)	47 (0.4)	51 (0.3)	49 (0.8)	48 (0.2)	
한국	54 (0.3)	53 (0.4)	51 (0.4)	56 (0.4)	51 (0.6)	54 (0.3)	
대만	51 (0.3)	52 (0.3)	50 (0.2)	55 (0.4)	50 (0.6)	52 (0.2)	
벨기에	47 (0.2)	48 (0.3)	47 (0.2)	51 (0.5)	49 (0.5)	47 (0.2)	
핀란드	47 (0.2)	48 (0.2)	46 (0.2)	51 (0.3)	46 (0.6)	48 (0.2)	
슬로베니아	48 (0.3)	48 (0.3)	47 (0.3)	51 (0.3)	48 (0.5)	48 (0.3)	
이탈리아	55 (0.3)	55 (0.2)	54 (0.2)	58 (0.2)	54 (0.4)	56 (0.2)	
에스토니아	47 (0.4)	48 (0.2)	46 (0.2)	50 (0.3)	46 (0.6)	48 (0.2)	
몰타	50 (0.2)	50 (0.2)	48 (0.2)	54 (0.3)	50 (0.3)	50 (0.2)	
리투아니아	52 (0.4)	52 (0.2)	51 (0.3)	55 (0.3)	52 (0.4)	52 (0.2)	
칠레	51 (0.4)	51 (0.3)	49 (0.3)	55 (0.5)	51 (0.5)	51 (0.3)	
라트비아	50 (0.4)	51 (0.3)	49 (0.3)	53 (0.4)	50 (0.4)	51 (0.3)	
크로아티아	52 (0.3)	52 (0.3)	50 (0.3)	55 (0.3)	51 (0.4)	52 (0.2)	
러시아	52 (0.5)	52 (0.3)	50 (0.4)	55 (0.3)	54 (0.6)	52 (0.4)	
불가리아	50 (0.4)	50 (0.3)	48 (0.3)	53 (0.4)	50 (0.5)	49 (0.3)	
멕시코	55 (0.4)	55 (0.3)	53 (0.3)	59 (0.4)	55 (0.4)	55 (0.3)	
페루	56 (0.2)	55 (0.2)	54 (0.2)	57 (0.2)	56 (0.2)	55 (0.2)	
콜롬비아	52 (0.3)	52 (0.3)	51 (0.3)	55 (0.3)	53 (0.3)	52 (0.3)	
도미니카	57 (0.3)	58 (0.4)	56 (0.3)	61 (0.4)	58 (0.3)	57 (0.6)	
ICCS 2016 평균	51 (0.1)	51 (0.1)	50 (0.1)	54 (0.1)	51 (0.1)	51 (0.1)	

3. 진보적 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사회 운동과 관련된 진보적 시민 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다. (a) “부당한 법에 대한 평화적인 항의 시위 참여”(매우 중요 62%); (b)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 참여”(상당히 중요: 82%); (c) “인권 증진 활동 참여”(매우 중요: 84%); (d) “환경을 보호 활동에 참여”(상당히 중요: 86%).

청소년들이 진보적 시민의식을 가장 높이 평가한 국가는 불가리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탈리아, 멕시코 및 페루였다. 반면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이러한 진보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표 V-5). 2009년 대비 진보적 시민의식의 가치평가가 뚜렷이 높아진 국가는 벨기에, 도미니카,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이었다. 반면에 칠레 및 라트비아에서는 중요도 평가가 낮아졌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성차이를 비교한 결과, 16개국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보다 진보적 시민 의식을 더 높이 평가했다. 남녀차이는 점수 자체는 적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다.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진보적 시민의식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평균 약 3점 정도 진보적 시민의식을 더 높이 평가했다. 반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러시아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V-5 진보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별 인식

국가명	2016			2009		격차(2016-2009)	
노르웨이	50	(0.2)	▽	49	(0.2)	0.6	(0.5)
독일	47	(0.4)		-		-	
덴마크	44	(0.2)	▼	44	(0.2)	-0.2	(0.5)
네덜란드	45	(0.2)	▼	45	(0.4)	0.0	(0.5)
홍콩	49	(0.2)		49	(0.2)	0.0	(0.3)
스웨덴	49	(0.3)	▽	48	(0.2)	1.6	(0.5)
한국	53	(0.3)		52	(0.1)	1.0	(0.4)
대만	52	(0.2)	△	52	(0.2)	-0.6	(0.5)
벨기에	48	(0.2)	▽	46	(0.2)	1.8	(0.5)
핀란드	47	(0.2)	▼	46	(0.2)	1.3	(0.5)
슬로베니아	49	(0.2)	▽	48	(0.2)	1.1	(0.5)
이탈리아	53	(0.2)	△	52	(0.2)	1.1	(0.5)
에스토니아	48	(0.3)	▽	48	(0.2)	0.2	(0.5)
몰타	50	(0.2)	▽	49	(0.3)	0.6	(0.6)
리투아니아	49	(0.2)	▽	49	(0.2)	0.0	(0.5)
칠레	52	(0.2)	△	54	(0.2)	-2.1	(0.5)
라트비아	48	(0.2)	▽	49	(0.2)	-1.5	(0.5)
크로아티아	52	(0.2)	△	-		-	
러시아	49	(0.3)	▽	50	(0.2)	-0.9	(0.5)
불가리아	53	(0.3)	▲	54	(0.2)	-0.4	(0.5)
멕시코	54	(0.2)	▲	53	(0.2)	0.9	(0.5)
페루	53	(0.2)	△	-		-	
콜롬비아	55	(0.2)	▲	55	(0.1)	-0.2	(0.5)
도미니카	56	(0.2)	▲	53	(0.3)	2.4	(0.5)
ICCS 2016 평균	50	(0.0)					
Common countries 평균	50	(0.0)		50	(0.1)	0.3	(0.1)

* 주 : ▲ more than 3 score points above ICCS 2016 average
△ significantly above ICCS 2016 average
▽ significantly below ICCS 2016 average
▼ more than 3 score points below ICCS 2016 average

표 V-6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진보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국가명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	
	남	여	관심없음	어느정도 이상 관심있음	B수준 미만	B수준 이상
노르웨이	49 (0.3)	51 (0.2)	49 (0.2)	52 (0.3)	48 (0.4)	50 (0.2)
덴마크	44 (0.2)	44 (0.2)	43 (0.2)	45 (0.3)	45 (0.5)	44 (0.2)
네덜란드	44 (0.3)	45 (0.3)	44 (0.3)	46 (0.4)	44 (0.5)	45 (0.2)
홍콩	49 (0.3)	49 (0.3)	47 (0.3)	51 (0.3)	47 (0.4)	50 (0.3)
스웨덴	48 (0.3)	50 (0.3)	48 (0.3)	51 (0.3)	48 (0.6)	49 (0.3)
한국	53 (0.4)	53 (0.4)	51 (0.4)	55 (0.4)	48 (0.6)	54 (0.3)
대만	51 (0.3)	52 (0.3)	51 (0.2)	53 (0.3)	48 (0.6)	52 (0.2)
벨기에	48 (0.2)	49 (0.3)	48 (0.2)	50 (0.5)	48 (0.5)	48 (0.2)
핀란드	46 (0.3)	48 (0.2)	46 (0.2)	50 (0.3)	45 (0.6)	47 (0.2)
슬로베니아	49 (0.3)	50 (0.2)	49 (0.2)	51 (0.4)	47 (0.4)	50 (0.2)
이탈리아	52 (0.2)	54 (0.3)	52 (0.2)	55 (0.3)	50 (0.4)	54 (0.2)
에스토니아	47 (0.3)	49 (0.3)	47 (0.3)	50 (0.3)	46 (0.5)	49 (0.3)
몰타	49 (0.2)	50 (0.3)	49 (0.2)	52 (0.3)	47 (0.2)	52 (0.3)
리투아니아	48 (0.3)	49 (0.3)	48 (0.2)	50 (0.3)	48 (0.4)	49 (0.2)
칠레	51 (0.3)	53 (0.3)	51 (0.3)	55 (0.4)	50 (0.4)	54 (0.2)
라트비아	47 (0.3)	48 (0.3)	47 (0.2)	49 (0.4)	46 (0.3)	49 (0.2)
크로아티아	51 (0.3)	53 (0.3)	51 (0.3)	54 (0.3)	49 (0.4)	53 (0.2)
러시아	49 (0.3)	49 (0.3)	48 (0.3)	51 (0.2)	49 (0.5)	49 (0.3)
불가리아	52 (0.4)	54 (0.3)	53 (0.3)	55 (0.4)	50 (0.4)	56 (0.2)
멕시코	53 (0.3)	55 (0.2)	53 (0.2)	56 (0.3)	52 (0.3)	56 (0.2)
페루	53 (0.2)	53 (0.2)	52 (0.2)	54 (0.2)	52 (0.2)	55 (0.3)
콜롬비아	54 (0.3)	55 (0.2)	54 (0.2)	56 (0.3)	53 (0.3)	56 (0.2)
도미니카	55 (0.3)	56 (0.3)	55 (0.2)	56 (0.3)	55 (0.2)	59 (0.5)
ICCS 2016 평균	50 (0.1)	51 (0.1)	49 (0.1)	52 (0.1)	49 (0.1)	51 (0.1)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

ICCS 2016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좋은 시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항목을 사용했다. (a) "열심히 일한다"(상당히/매우 중요하다: 85%); (b) "항상 법을 준수 한다"(92%); (c) "가족을 부양한다"(94%); (d) "자원절약을 위해 노력한다 (예 : 물 절약 또는 폐기물 재활용)"(89%); (e)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기"(95%); (f) "불우이웃 돕기"(95%); (g) "어려운 나라 사람들 돕기"(8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이들 항목을 최소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만을 제시했다(표 V-7).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은 법을 지키기(평균 59 %),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평균 60%), 타인의견을 존중하기(평균 6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약 절반의 청소년들은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노력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열심히 일하기(49%)와 천연자원보호하기(59%)는 ICCS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가족부양하기(50%)나 법지키기(56%)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했다.

표 V-7 좋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인식

(다음 행동이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열심히 일하기 %	법 지키기 %	가족 부양하기 %	자원 절약하기 %	각자 의견을 가질 권리 존중하기 %	불우이웃 돕기 %	미개발국 지원활동 참여 %	전체 평균
노르웨이	38 (0.8)	63 (0.7)	55 (0.8)	40 (0.8)	70 (0.7)	50 (0.9)	34 (0.8)	50 (0.2)
독일	21 (1.4)	76 (1.9)	61 (1.8)	28 (1.6)	68 (2.3)	41 (1.6)	25 (1.3)	47 (0.4)
덴마크	30 (0.9)	67 (0.9)	53 (1.0)	31 (0.9)	67 (1.0)	34 (1.0)	16 (0.6)	47 (0.2)
네덜란드	38 (1.1)	41 (1.1)	44 (1.4)	22 (0.9)	60 (1.1)	37 (1.1)	21 (0.9)	46 (0.2)
홍콩	48 (1.5)	58 (1.4)	41 (1.2)	46 (1.3)	56 (1.5)	32 (1.0)	24 (1.0)	48 (0.3)
스웨덴	37 (1.0)	72 (0.9)	53 (0.9)	46 (1.1)	77 (1.0)	51 (1.3)	29 (1.0)	50 (0.2)
한국	49 (1.2)	56 (1.2)	50 (1.2)	59 (1.3)	59 (1.3)	49 (1.4)	32 (1.5)	51 (0.3)
대만	54 (1.0)	71 (1.0)	60 (0.8)	57 (1.0)	72 (1.0)	50 (1.0)	36 (1.0)	53 (0.2)
벨기에	38 (1.1)	56 (1.4)	61 (1.2)	40 (1.2)	61 (1.3)	49 (1.1)	32 (1.1)	49 (0.2)
핀란드	49 (1.2)	67 (1.1)	72 (1.1)	44 (1.1)	59 (1.0)	49 (1.0)	22 (0.8)	50 (0.2)
슬로베니아	47 (1.1)	61 (1.1)	35 (1.2)	51 (1.1)	60 (1.1)	51 (1.0)	35 (1.0)	49 (0.2)
이탈리아	43 (1.0)	82 (0.9)	77 (0.7)	58 (1.0)	64 (1.1)	59 (1.1)	36 (0.8)	52 (0.2)
에스토니아	25 (1.0)	45 (1.1)	68 (0.9)	39 (1.1)	48 (1.1)	38 (1.4)	21 (0.9)	47 (0.2)
몰타	52 (0.8)	69 (0.8)	58 (1.0)	52 (0.8)	61 (0.7)	49 (0.8)	40 (0.8)	51 (0.2)
리투아니아	31 (1.0)	70 (1.2)	60 (1.0)	56 (1.0)	63 (1.0)	37 (0.9)	30 (1.0)	49 (0.2)
칠레	33 (0.9)	51 (1.1)	61 (1.0)	58 (1.0)	64 (0.9)	60 (1.0)	47 (1.0)	51 (0.3)
라트비아	23 (0.8)	50 (1.3)	60 (1.2)	36 (1.0)	49 (1.3)	40 (1.2)	23 (0.9)	46 (0.2)
크로아티아	64 (1.2)	56 (1.2)	55 (1.2)	50 (1.2)	67 (1.2)	63 (1.2)	43 (1.2)	53 (0.3)
러시아	32 (1.0)	50 (1.5)	65 (0.9)	46 (1.2)	54 (1.1)	47 (1.1)	31 (1.1)	49 (0.3)
불가리아	53 (1.2)	42 (1.0)	61 (1.1)	50 (1.1)	55 (1.3)	49 (1.2)	35 (1.0)	49 (0.3)
멕시코	50 (0.9)	52 (1.0)	65 (0.9)	63 (0.8)	61 (1.0)	55 (0.9)	48 (0.8)	52 (0.2)
페루	39 (1.0)	52 (1.1)	62 (0.8)	63 (0.9)	62 (1.1)	49 (0.8)	47 (1.0)	51 (0.2)
콜롬비아	43 (0.9)	53 (0.9)	62 (0.7)	68 (0.9)	65 (0.9)	55 (0.8)	47 (0.9)	51 (0.2)
도미니카	63 (0.9)	64 (0.9)	66 (0.8)	63 (1.0)	64 (0.7)	62 (0.8)	59 (0.9)	54 (0.2)
ICCS 2016 평균	42 (0.2)	59 (0.2)	60 (0.2)	49 (0.2)	62 (0.2)	49 (0.2)	35 (0.2)	50 (0.0)

표 V-8 성별/정치관심/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국가명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			
	남		여		관심없음		어느정도 이상 관심있음		B수준 미만		B수준 이상	
노르웨이	48	(0.2)	51	(0.2)	49	(0.2)	52	(0.2)	47	(0.5)	50	(0.2)
덴마크	46	(0.2)	48	(0.2)	46	(0.2)	49	(0.2)	45	(0.6)	48	(0.2)
네덜란드	45	(0.3)	46	(0.3)	45	(0.2)	48	(0.4)	43	(0.4)	47	(0.2)
홍콩	48	(0.4)	49	(0.4)	47	(0.4)	50	(0.4)	45	(0.5)	49	(0.3)
스웨덴	49	(0.3)	51	(0.3)	49	(0.3)	52	(0.3)	47	(0.6)	50	(0.2)
한국	51	(0.4)	52	(0.4)	50	(0.4)	53	(0.4)	48	(0.7)	52	(0.3)
대만	52	(0.3)	54	(0.3)	53	(0.2)	55	(0.4)	49	(0.7)	54	(0.2)
벨기에	48	(0.3)	50	(0.3)	49	(0.3)	51	(0.4)	48	(0.6)	50	(0.2)
핀란드	48	(0.3)	53	(0.2)	49	(0.3)	53	(0.3)	46	(0.7)	51	(0.2)
슬로베니아	48	(0.3)	51	(0.3)	49	(0.2)	51	(0.4)	45	(0.4)	50	(0.2)
이탈리아	52	(0.3)	53	(0.3)	52	(0.2)	54	(0.3)	50	(0.4)	53	(0.2)
에스토니아	46	(0.3)	48	(0.3)	46	(0.2)	48	(0.3)	44	(0.4)	47	(0.2)
몰타	49	(0.3)	52	(0.2)	50	(0.2)	52	(0.3)	47	(0.3)	54	(0.2)
리투아니아	48	(0.3)	50	(0.2)	48	(0.3)	51	(0.4)	48	(0.4)	50	(0.3)
칠레	50	(0.4)	52	(0.3)	50	(0.3)	53	(0.4)	48	(0.4)	53	(0.3)
라트비아	46	(0.3)	47	(0.3)	46	(0.2)	48	(0.4)	45	(0.4)	47	(0.3)
크로아티아	51	(0.4)	55	(0.3)	52	(0.3)	55	(0.4)	50	(0.6)	54	(0.3)
러시아	48	(0.4)	49	(0.3)	47	(0.3)	50	(0.3)	48	(0.5)	49	(0.3)
불가리아	48	(0.4)	51	(0.4)	49	(0.3)	51	(0.4)	47	(0.5)	51	(0.2)
멕시코	50	(0.4)	53	(0.2)	51	(0.3)	54	(0.4)	49	(0.3)	55	(0.3)
페루	50	(0.3)	51	(0.3)	50	(0.3)	52	(0.3)	49	(0.3)	53	(0.3)
콜롬비아	51	(0.3)	52	(0.2)	51	(0.2)	53	(0.3)	50	(0.3)	53	(0.2)
도미니카	54	(0.3)	54	(0.3)	54	(0.3)	54	(0.3)	54	(0.2)	56	(0.6)
ICCS 2016 평균	49	(0.1)	51	(0.1)	49	(0.1)	52	(0.1)	48	(0.1)	51	(0.1)

5. 평등한 권리에 대한 태도

성별이나 인종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민주 사회의 이상으로 널리 간주된다 (Angvik & von Borries, 1997; Hahn, 1998). ICCS 2016 에서도 내용 영역의 시민 원칙에 평등한 권리의 보장과 동등한 시민 정체성 보장을 담고 있다.

남녀 평등에 대한 태도는 IEA가 시민의식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실시한 이래로 시민 교육 연구의 핵심 중 하나였다. ICCS 2009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7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CivED에서 사용 된 것과 거의 같다. 2009년 조사결과, 응답 청소년 대다수는 양성평등에 부정적인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 pp. 95-98).

ICCS 2016에서는 2009년과 동일한 문항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했으며 2009년과 동일하게 그 중에서 6개 항목을 분석에 사용했다. 그 항목 들은 다음과 같다.

(a) "정부에 참여할 기회는 남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전적으로 동의 75%) : (b)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한다 "(72 %); (c) "여성은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절대 반대 55%). (d)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에 우선권이 있다"(절대 반대 50 %), (e) "남성과 여성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 71%); (f)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있다"(절대 반대 46%).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양성평등 원칙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ICCS 2009와 거의 같았다. 양성평등에 가장 동의수준이 높은 국가는 대만,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이들 국가는 국제 평균보다 3% 포인트 이상 더 많이 동의했다. 반면에 불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멕시코, 러시아는 가장 낮은 국가로 국제 평균보다 3% 포인트 이상 낮았다. 모든 국가에서 양성평등

수용도는 1%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했다.

표 V-10은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학력,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5% 포인트 이상 양성평등 수용도가 높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 포인트, 시민지식 수준이 B 이상인 청소년은 8% 포인트 이상 높았다.

인종간의 평등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ICCS에서는 다음 5가지 항목을 사용했다. (a) "모든 인종/민족 집단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매우 동의 62%); (b) "모든 인종/민족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매우 동의 57%); (c)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민족/인종 그룹의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매우 동의 57%); (d) "모든 인종/민족 그룹의 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매우 동의 31%); 그리고 (e) "모든 인종/민족 그룹의 구성원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 받아야 한다(매우 동의 59%).

조사 결과, 칠레, 대만, 스웨덴이 인종평등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불가리아, 라트비아 및 네덜란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표 V-11).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ICCS의 두주기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2009 년에 비해 2016 년에 인종평등에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 2.7% 포인트 이상 향상되었다.

표 V-9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 평등 수용율

국가명	2016		2009		차이	
스웨덴	57.2	(0.2)	55.3	(0.3)	1.9	(0.6)
노르웨이	56.7	(0.2)	54.1	(0.3)	2.7	(0.5)
대만	56.4	(0.2)	55.5	(0.2)	0.9	(0.5)
덴마크	56.2	(0.2)	54.3	(0.2)	1.9	(0.5)
독일	54.9	(0.3)	-		-	
핀란드	54.6	(0.2)	53.3	(0.2)	1.3	(0.5)
벨기에	54.1	(0.3)	52.2	(0.3)	1.9	(0.6)
크로아티아	53.3	(0.3)	-		-	
이탈리아	53.1	(0.2)	51.7	(0.2)	1.4	(0.5)
몰타	53.0	(0.2)	51.3	(0.3)	1.7	(0.5)
한국	52.7	(0.3)	50.5	(0.2)	2.2	
슬로베니아	52.7	(0.2)	51.8	(0.2)	0.9	(0.5)
네덜란드	52.2	(0.3)	51.5	(0.5)	0.7	
칠레	52.2	(0.3)	51.1	(0.3)	1.1	(0.6)
에스토니아	50.8	(0.3)	48.9	(0.3)	1.9	(0.6)
홍콩	50.7	(0.4)	51.5	(0.3)	-0.8	
콜롬비아	50.3	(0.3)	49.3	(0.2)	1.0	(0.6)
리투아니아	48.9	(0.2)	48.2	(0.2)	0.7	(0.5)
페루	48.7	(0.3)	-		-	
라트비아	46.5	(0.2)	45.9	(0.2)	0.5	(0.5)
불가리아	46.2	(0.3)	45.8	(0.3)	0.4	(0.6)
멕시코	45.3	(0.1)	45.4	(0.1)	-0.2	(0.5)
러시아	44.3	(0.2)	43.6	(0.1)	0.8	(0.5)
도미니카	44.3	(0.2)	43.5	(0.2)	0.8	(0.5)
ICCS 평균	51.3	(0.1)	50.1	(0.1)	1.2	(0.1)

표 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 관련 변인들

국가명	성별				부모학력				시민지식 수준			
	남		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B 레벨 미만		B 레벨 이상	
스웨덴	54.0	(0.4)	60.4	(0.2)	56.6	(0.4)	57.9	(0.4)	49.5	(0.6)	58.6	(0.2)
대만	53.9	(0.2)	59.0	(0.2)	56.0	(0.2)	57.2	(0.3)	48.0	(0.5)	57.7	(0.2)
노르웨이	53.4	(0.2)	60.0	(0.1)	55.9	(0.2)	57.5	(0.2)	48.9	(0.4)	58.3	(0.1)
덴마크	52.8	(0.3)	59.3	(0.2)	55.8	(0.2)	57.7	(0.2)	48.5	(0.4)	57.3	(0.2)
벨기에	52.0	(0.3)	56.3	(0.4)	52.3	(0.4)	55.6	(0.3)	48.2	(0.5)	55.9	(0.3)
핀란드	50.9	(0.3)	58.6	(0.2)	54.2	(0.3)	55.3	(0.3)	45.5	(0.6)	55.9	(0.2)
한국	50.6	(0.3)	55.1	(0.3)	51.8	(0.4)	53.3	(0.3)	46.7	(0.4)	54.4	(0.3)
이탈리아	50.4	(0.3)	56.0	(0.3)	52.8	(0.2)	54.8	(0.4)	46.8	(0.3)	55.7	(0.2)
칠레	49.7	(0.3)	54.6	(0.3)	51.3	(0.3)	55.2	(0.3)	46.7	(0.3)	56.9	(0.2)
크로아티아	49.6	(0.4)	57.0	(0.3)	52.9	(0.3)	54.5	(0.5)	47.3	(0.5)	55.2	(0.3)
몰타	49.5	(0.3)	56.6	(0.2)	52.9	(0.2)	53.9	(0.3)	47.4	(0.3)	56.9	(0.2)
슬로베니아	49.3	(0.3)	56.3	(0.3)	52.4	(0.3)	53.5	(0.4)	46.7	(0.4)	54.7	(0.3)
콜롬비아	49.0	(0.3)	51.5	(0.4)	49.9	(0.3)	51.5	(0.4)	45.7	(0.2)	54.3	(0.3)
네덜란드	48.9	(0.4)	55.4	(0.4)	50.8	(0.4)	54.4	(0.4)	47.1	(0.5)	54.6	(0.4)
에스토니아	48.4	(0.3)	53.3	(0.4)	50.0	(0.3)	51.9	(0.5)	44.0	(0.3)	52.5	(0.3)
홍콩	48.3	(0.4)	53.3	(0.3)	50.4	(0.4)	52.1	(0.5)	45.7	(0.5)	53.3	(0.3)
페루	47.1	(0.3)	50.5	(0.3)	47.9	(0.3)	51.1	(0.4)	45.3	(0.2)	54.8	(0.3)
리투아니아	46.3	(0.3)	51.5	(0.3)	48.0	(0.3)	51.1	(0.4)	43.2	(0.3)	51.5	(0.2)
라트비아	44.2	(0.3)	48.5	(0.3)	45.4	(0.3)	47.9	(0.3)	42.8	(0.3)	49.0	(0.3)
멕시코	43.7	(0.2)	46.9	(0.2)	44.8	(0.1)	46.8	(0.2)	42.6	(0.1)	48.4	(0.2)
불가리아	43.5	(0.2)	49.4	(0.4)	44.4	(0.3)	48.3	(0.3)	41.6	(0.2)	49.9	(0.2)
도미니카	43.3	(0.2)	45.3	(0.3)	43.7	(0.2)	46.2	(0.3)	43.1	(0.2)	52.3	(0.5)
러시아	42.2	(0.2)	46.5	(0.3)	43.6	(0.2)	45.0	(0.3)	40.7	(0.2)	45.2	(0.2)
ICCS 평균	48.7	(0.1)	53.9	(0.1)	50.5	(0.1)	52.7	(0.1)	45.7	(0.1)	54.1	(0.1)

표 V-11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

국가명	2016		2009		차이	
대만	58.1	(0.2)	56.8	(0.2)	1.2	(0.3)
스웨덴	57.4	(0.3)	52.0	(0.3)	5.4	(0.5)
칠레	56.6	(0.2)	54.5	(0.2)	2.1	(0.4)
한국	55.7	(0.3)	49.3	(0.2)	6.4	
노르웨이	55.4	(0.2)	50.8	(0.3)	4.6	(0.5)
멕시코	55.0	(0.2)	52.4	(0.2)	2.5	(0.4)
페루	54.2	(0.2)	-		-	
홍콩	54.1	(0.3)	52.0	(0.3)	2.1	
독일	54.0	(0.4)	-		-	
콜롬비아	54.0	(0.2)	53.0	(0.2)	1.0	(0.3)
도미니카	54.0	(0.2)	50.8	(0.3)	3.1	(0.4)
ICCS 평균	52.9	(0.1)	50.1	(0.1)	2.7	(0.1)
리투아니아	52.9	(0.2)	50.0	(0.2)	2.8	(0.4)
에스토니아	52.8	(0.2)	50.7	(0.2)	2.1	(0.4)
핀란드	52.6	(0.2)	47.8	(0.2)	4.9	(0.4)
크로아티아	52.1	(0.2)	-		-	
러시아	51.9	(0.4)	48.3	(0.2)	3.6	(0.5)
이탈리아	51.7	(0.2)	49.2	(0.2)	2.5	(0.4)
덴마크	51.2	(0.2)	48.5	(0.3)	2.7	(0.5)
슬로베니아	51.0	(0.2)	49.3	(0.2)	1.7	(0.4)
몰타	50.6	(0.2)	46.3	(0.3)	4.3	(0.4)
벨기에	50.3	(0.3)	47.8	(0.3)	2.5	(0.5)
네덜란드	48.9	(0.3)	47.1	(0.3)	1.8	
불가리아	48.8	(0.3)	48.3	(0.2)	0.5	(0.4)
라트비아	47.7	(0.2)	45.9	(0.2)	1.8	(0.4)
ICCS 2016 평균	52.9	-0.1	50.1	-0.1	2.7	

6. 세계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태도

인류의 전지구적 개발과 산업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빈곤, 기아, 전쟁, 인구 과잉 및 환경을 포함한 지구 적 이슈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를 축적 해왔다. (Holden, 2007, Oscarsson, 1996, Rubin, 2002). 시민 및 시민 교육과 관련된 학습에 이러한 측면을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들과 시민교육의 시야를 확장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Burnouf, 2004; Hicks, 2003; UNESCO, 2015).

따라서 ICCS의 2016년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인식을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했다 (Schulz 외, 2016).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ICCS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약간", "전혀 아님"). 이들이 평가한 문제로는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글로벌 금융 위기, 범죄, 물 부족, 폭력적 갈등, 빈곤, 식량 부족, 기후 변화, 실업, 인구 과잉, 전염병 (예 : 조류 독감, 에이즈) 및 테러가 있다.

표 V-12은 청소년들이 각 문제에 대해 세계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ICCS 2016 학생들 중 약 4분의 3 (전국 평균)은 환경 오염을 큰 위협으로 보았다. 특히 칠레, 콜롬비아 및 리투아니아는 이 요인의 위험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참가국의 학생 중 약 3분의 2는 테러를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 의견에는 국가간 차이가 뚜렷했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러시아 청소년의 4분의 3 이상이 테러가 중요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미니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청소년들은 절반 정도만 이에 동의했다.

청소년들 중 3분의 2는 물 부족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도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가 커서 칠레와 콜롬비아는 80% 이상인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식량 부족은 전체 청소년의 62%가 중요한 증대한 위협으로 보았으며,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특히 높은 비율 (80% 이상)을 기록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50% 미만)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훨씬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감염성 질병(예 : 에이즈 또는 조류 독감), 기후 변화 및 빈곤은 청소년의 절반 이상에게 중요한 글로벌 위협 요소였다.

표 V-12 세계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환경오염	테러	물부족	식량부족	전염병	기후변화	빈곤
노르웨이	76 (0.7)	54 (0.8) ▼	41 (1.0) ▼	52 (0.8) ▼	40 (0.9) ▼	66 (0.8) ▲	49 (0.6) ▽
독일	73 (1.5)	70 (1.5)	57 (1.5)	60 (1.5)	47 (1.3)	68 (1.5)	44 (1.2)
덴마크	75 (0.9)	58 (0.8) ▽	54 (0.9) ▼	50 (0.8) ▼	46 (0.9) ▼	64 (1.2) △	41 (0.8) ▼
네덜란드	63 (1.3) ▼	53 (1.3) ▼	44 (1.1) ▼	50 (1.2) ▼	42 (1.2) ▼	48 (1.4) ▽	36 (1.2) ▼
홍콩	76 (1.0)	69 (1.0)	72 (1.1)	72 (1.2)	66 (1.3)	71 (1.0)	56 (1.1)
스웨덴	79 (0.8) △	51 (1.1) ▼	46 (1.1) ▼	48 (1.3) ▼	34 (0.9) ▼	68 (0.9) ▲	43 (1.2) ▼
한국	64 (1.3)	66 (1.2)	62 (1.4)	48 (1.4)	54 (1.2)	63 (1.2)	47 (1.4)
대만	75 (0.8)	71 (0.9) △	60 (0.9) ▽	60 (1.0) ▽	66 (0.8) △	61 (1.0) △	52 (0.9)
벨기에	79 (1.2) △	63 (1.2) ▽	59 (1.5) ▽	63 (1.4)	53 (1.6) ▽	72 (1.0) ▲	53 (1.3)
핀란드	66 (1.0) ▽	57 (1.0) ▽	44 (1.1) ▼	49 (1.2) ▼	36 (0.8) ▼	62 (1.1) △	36 (1.1) ▼
슬로베니아	81 (0.9) △	71 (1.2) △	77 (1.0) ▲	73 (0.9) ▲	65 (1.0) △	47 (1.0) ▽	65 (1.0) ▲
이탈리아	84 (0.7) △	72 (0.9) △	71 (1.0) △	65 (0.9) △	61 (1.0)	44 (1.2) ▼	57 (1.0) △
에스토니아	64 (1.1) ▼	76 (1.0) △	72 (1.0) △	65 (1.1) △	65 (1.1) △	48 (1.4) ▽	41 (1.3) ▼
몰타	63 (0.9) ▼	75 (0.8) △	66 (0.8)	63 (0.8)	66 (0.8) △	51 (0.9) ▽	59 (0.8) △
리투아니아	86 (0.7) ▲	75 (0.9) △	76 (1.1) ▲	74 (1.0) ▲	73 (1.0) ▲	57 (1.1)	63 (1.1) △
칠레	88 (0.6) ▲	71 (0.8) △	85 (0.7) ▲	83 (0.8) ▲	74 (0.8) ▲	63 (1.0) △	73 (0.7) ▲
라트비아	75 (1.0)	75 (1.0) △	67 (1.1) △	60 (1.2) ▽	68 (1.2) △	50 (1.0) ▽	51 (1.4)
크로아티아	67 (1.1) ▽	81 (0.9) ▲	77 (1.0) ▲	71 (0.8) △	69 (0.9) △	47 (1.3) ▽	65 (1.0) ▲
러시아	68 (0.9) ▽	78 (0.7) ▲	75 (0.8) △	53 (0.9) ▽	69 (0.9) △	41 (0.9) ▼	45 (1.0) ▽
불가리아	74 (1.2)	67 (1.4)	65 (1.3)	65 (1.5) △	62 (1.3) △	51 (1.2) ▽	59 (1.3) △
멕시코	83 (0.7) △	58 (1.0) ▽	74 (1.0) △	69 (0.8) △	66 (0.9) △	56 (0.9)	65 (0.7) ▲
페루	82 (0.7) △	68 (1.0)	69 (1.0) △	60 (1.0) ▽	66 (1.0) △	47 (1.0) ▽	48 (0.9) ▽
콜롬비아	90 (0.7) ▲	65 (0.8)	88 (0.7) ▲	82 (0.8) ▲	73 (1.1) ▲	77 (0.9) ▲	66 (0.9) ▲
도미니카	74 (0.9)	52 (1.2) ▼	59 (1.1) ▽	54 (1.1) ▽	55 (1.1) ▽	42 (1.2) ▼	56 (1.1) △
ICCS 2016 평균	76 (0.2)	66 (0.2)	65 (0.2)	62 (0.2)	59 (0.2)	55 (0.2)	53 (0.2)

* 주 : ▲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above ICCS average
 △ significantly above ICCS average
 ▽ significantly below ICCS average
 ▼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below ICCS average

표 V-12 세계의 미래에 위험이 되는 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계속)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범죄	폭력적갈등	세계경제위기	에너지부족	실업	인구과잉
노르웨이	33 (0.8) ▼	32 (0.7) ▼	38 (0.7) ▽	28 (0.7) ▼	28 (0.7) ▼	37 (0.9) ▽
독일	43 (1.5)	38 (1.4)	28 (1.2)	27 (1.5)	22 (1.2)	33 (1.5)
덴마크	30 (0.8) ▼	27 (0.7) ▼	33 (0.8) ▼	35 (0.7) ▽	26 (0.7) ▼	39 (0.8)
네덜란드	25 (1.0) ▼	27 (0.8) ▼	32 (1.0) ▼	30 (1.2) ▼	27 (1.1) ▼	37 (1.1) ▽
홍콩	50 (1.1)	52 (0.9)	40 (1.1)	77 (1.3)	36 (1.1)	49 (1.0)
스웨덴	28 (0.9) ▼	34 (1.2) ▼	31 (0.9) ▼	30 (1.0) ▼	27 (1.1) ▼	41 (1.1)
한국	56 (1.2)	47 (1.1)	37 (1.2)	60 (1.3)	54 (1.4)	22 (1.0)
대만	56 (0.9) △	50 (0.9) △	48 (1.0) △	60 (0.8) ▲	40 (0.9)	39 (0.9)
벨기에	32 (1.1) ▼	36 (1.3) ▼	42 (1.3) ▽	39 (1.2) ▽	33 (1.1) ▽	50 (1.3) ▲
핀란드	27 (0.7) ▼	28 (0.8) ▼	32 (0.9) ▼	27 (0.9) ▼	30 (0.8) ▼	27 (1.1) ▼
슬로베니아	57 (1.0) △	42 (1.1) ▽	47 (1.0) △	43 (0.8)	55 (1.1) ▲	44 (0.9) △
이탈리아	55 (1.0) △	55 (1.0) △	51 (0.9) △	49 (1.1) △	45 (1.0) △	31 (1.0) ▽
에스토니아	51 (1.3)	44 (1.2) ▽	26 (1.0) ▼	29 (1.0) ▼	36 (1.1) ▽	39 (1.1)
몰타	53 (0.9) △	51 (0.8) △	42 (0.8) ▽	43 (1.0)	34 (0.8) ▽	43 (0.9) △
리투아니아	57 (1.2) △	63 (1.1) ▲	48 (1.3) △	52 (1.4) △	41 (1.2)	37 (1.2) ▽
칠레	75 (0.8) ▲	67 (0.8) ▲	59 (0.9) ▲	63 (0.9) ▲	58 (0.9) ▲	53 (0.8) ▲
라트비아	49 (1.4)	49 (1.1) △	44 (1.2)	42 (1.0)	44 (1.1) △	40 (1.2)
크로아티아	53 (1.2) △	48 (1.0)	55 (1.0) ▲	45 (1.1) △	57 (1.0) ▲	29 (1.0) ▼
러시아	61 (0.9) ▲	49 (1.1) △	43 (1.0)	36 (0.9) ▽	41 (1.0)	30 (1.0) ▽
불가리아	60 (1.3) △	48 (1.2)	53 (1.3) △	44 (1.2)	53 (1.2) ▲	38 (1.3)
멕시코	65 (0.9) ▲	57 (0.8) ▲	55 (0.7) ▲	51 (0.8) △	56 (0.9) ▲	52 (1.0) ▲
페루	64 (1.1) ▲	49 (1.0) △	37 (0.8) ▽	37 (1.0) ▽	28 (0.7) ▼	33 (1.0) ▽
콜롬비아	70 (1.0) ▲	68 (0.8) ▲	61 (0.9) ▲	61 (0.7) ▲	55 (0.8) ▲	47 (1.0) △
도미니카	55 (1.0) △	52 (1.0) △	55 (1.0) ▲	54 (1.0) ▲	50 (1.0) △	42 (0.9) △
ICCS 2016 평균	50 (0.2)	46 (0.2)	44 (0.2)	43 (0.2)	41 (0.2)	39 (0.2)

* 주 : ▲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above ICCS average
 △ significantly above ICCS average
 ▽ significantly below ICCS average
 ▼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below ICCS average

7.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사회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ICCS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과 일반적인 타인(people in general)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ICCS에서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 하여 “매우 신뢰한다” 혹은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해 신뢰 수준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단, 2016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2016년 조사에 불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신뢰수준 지표의 의미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측정한 이 신뢰 수준과 2009년 조사 대비 차이를 다음 표에 제시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증가했으나 일반적인 타인, 전통적인 대중매체(TV, 라디오, 뉴스)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에 처음 측정하였기에 2009년 대비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 조사에서 공공 신뢰의 수준이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44.8%로 2009년의 19.6%에 비하면 25.2%p나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참여국 중 최하위인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39.7%로 2009년의 39%에 비해서 거의 차이 없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당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18%에 비해 24.5%p 향상된 42.5%로 가장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며, 대중매체(TV, 뉴스, 라디오)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51.2%에 비해 1.6%p 향상된 52.8%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37.5%)를 포함판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 신뢰도가 낮은 국가에 포함되었다.

표 V-13 중앙정부, 국회, 법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수준 (2016년-2009년)

(각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정부					국회					법원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노르웨이	79	(0.7)	67	(1.1)	11	77	(0.7)	69	(1.0)	9	76	(0.7)	71	(1.2)	4
독일	83	(1.5)				74	(1.8)				86	(1.1)			
덴마크	74	(1.0)	72	(1.0)	1	65	(1.0)	66	(1.1)	-1	84	(0.7)	79	(0.9)	5
네덜란드	70	(1.4)	-		-	63	(1.3)	-		-	78	(1.1)	-		-
홍콩	67	(1.2)	70	()		62	(1.3)				82	(1.1)			
스웨덴	79	(1.0)	73	(1.2)	6	79	(1.1)	72	(1.2)	7	82	(1.2)	79	(1.1)	3
한국	45	(1.4)				43	(1.2)				65	(1.3)			
대만	62	(1.0)	44	(0.9)	17	71	(0.9)	54	(0.8)	18	73	(0.9)	69	(0.8)	4
벨기에	72	(1.1)	51	(1.0)	21	70	(1.1)	50	(1.3)	20	77	(1.0)	65	(1.2)	12
핀란드	82	(1.0)	82	(0.8)	0	74	(1.1)	74	(1.0)	0	84	(0.9)	81	(0.8)	2
슬로베니아	49	(1.4)	56	(1.4)	-8	50	(1.3)	53	(1.3)	-2	74	(1.0)	72	(1.2)	3
이탈리아	57	(1.0)	74	(0.9)	-17	65	(0.9)	74	(1.0)	-9	72	(1.1)	69	(1.0)	3
에스토니아	73	(1.2)	62	(1.4)	11	56	(1.4)	45	(1.4)	12	76	(0.9)	68	(1.3)	8
몰타	66	(0.8)	62	(1.4)	4	59	(0.9)	61	(1.4)	-2	76	(0.8)	76	(1.2)	0
리투아니아	74	(1.0)	54	(0.9)	20	51	(1.3)	34	(1.0)	17	80	(0.9)	74	(0.9)	6
칠레	50	(1.0)	65	(1.0)	-15	42	(0.9)	54	(1.0)	-12	50	(0.9)	56	(1.2)	-5
라트비아	60	(1.3)	32	(1.2)	27	46	(1.2)	20	(1.2)	26	71	(1.2)	65	(1.5)	6
크로아티아	42	(1.5)	-		-	37	(1.4)	-		-	66	(1.4)	-		-
러시아	89	(0.7)	88	(0.7)	1	73	(1.1)	74	(0.9)	-2	69	(1.1)	71	(0.9)	-2
불가리아	59	(1.2)	56	(1.3)	3	56	(1.1)	44	(1.1)	11	69	(1.0)	62	(1.1)	7
멕시코	57	(1.1)	58	(1.0)	-1	56	(0.9)	54	(0.9)	2	61	(1.0)	49	(0.9)	11
페루	49	(1.0)	-		-	42	(0.9)	-		-	46	(1.0)	-		-
콜롬비아	55	(1.2)	62	(1.2)	-7	46	(1.2)	49	(1.4)	-3	48	(1.2)	50	(1.0)	-3
도미니카	78	(1.1)	74	(1.3)	4	73	(1.1)	67	(1.5)	6	63	(1.0)	63	(1.3)	0
ICCS 평균	67	(0.2)	63	(0.3)	4	62	(0.3)	56	(0.3)	5	71	(0.2)	68	(0.3)	4

표 V-14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기관 신뢰 수준

국가명	정당			일반적 타인			미디어 (TV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러시아	54 (1.0)	51 (0.9)	3	45 (1.0)	51 (1.0)	-6	41 (1.1)	41 (1.0)	0	40 (1.1)
독일	61 (2.1)	-	-	70 (1.5)	-	-	62 (1.2)	-	-	51 (1.3)
핀란드	66 (1.1)	61 (1.0)	5	74 (0.9)	76 (0.8)	-2	82 (0.8)	80 (0.8)	2	49 (1.1)
스웨덴	61 (1.1)	60 (1.3)	1	56 (1.1)	67 (0.8)	-11	54 (1.0)	54 (0.9)	0	32 (1.0)
노르웨이	56 (0.9)	52 (1.2)	5	43 (0.9)	48 (1.0)	-6	48 (0.8)	49 (1.4)	0	27 (0.7)
도미니카	50 (1.1)	51 (1.2)	-1	62 (1.1)	61 (1.3)	1	78 (0.9)	76 (1.0)	2	61 (1.0)
리투아니아	53 (1.1)	33 (1.1)	20	60 (1.0)	66 (0.8)	-6	65 (0.9)	67 (0.9)	-2	49 (0.9)
덴마크	52 (1.1)	56 (1.2)	-4	65 (1.1)	68 (0.8)	-4	59 (0.9)	56 (1.0)	4	31 (0.7)
에스토니아	32 (1.2)	23 (1.3)	9	46 (1.4)	58 (1.0)	-11	47 (1.2)	54 (1.0)	-8	32 (1.0)
벨기에	49 (1.0)	35 (1.1)	14	52 (1.2)	57 (1.1)	-5	46 (0.9)	48 (1.0)	-2	29 (1.2)
네덜란드	48 (1.3)	53 (1.7)	5	52 (1.2)	57 (1.3)	-5	47 (1.3)	48 (1.2)	-1	32 (1.2)
홍콩	45 (1.0)	38 (1.0)	7	40 (1.0)	30 (0.9)	10	59 (1.1)	42 (1.0)	17	51 (1.3)
몰타	51 (0.8)	55 (1.7)	-4	49 (0.9)	50 (1.3)	-1	66 (0.8)	70 (1.1)	-4	60 (0.9)
대만	47 (1.0)	26 (0.8)	21	48 (0.9)	51 (0.9)	-4	44 (0.9)	43 (0.8)	1	46 (0.9)
라트비아	40 (1.2)	25 (1.0)	15	47 (1.1)	58 (1.1)	-11	51 (1.2)	65 (1.3)	-14	47 (1.4)
불가리아	38 (1.3)	32 (1.2)	6	61 (1.0)	64 (1.1)	-4	61 (1.0)	70 (1.1)	-9	60 (1.0)
이탈리아	44 (0.8)	52 (1.1)	-8	41 (0.9)	52 (1.0)	-11	75 (0.7)	81 (0.9)	-5	54 (0.9)
멕시코	37 (1.0)	35 (1.0)	3	52 (1.0)	47 (0.8)	5	56 (1.1)	57 (0.8)	-1	48 (0.9)
콜롬비아	28 (1.0)	35 (1.1)	-7	43 (1.1)	49 (0.9)	-5	69 (1.3)	72 (1.0)	-3	49 (1.1)
칠레	33 (0.8)	34 (1.0)	-2	48 (0.9)	52 (0.9)	-4	62 (1.1)	74 (0.7)	-12	54 (0.9)
페루	33 (0.9)	-	-	47 (0.9)	-	-	62 (0.7)	-	-	45 (0.8)
슬로베니아	44 (1.4)	45 (1.3)	0	69 (1.0)	71 (0.9)	-2	65 (1.2)	64 (1.1)	1	54 (1.1)
한국	43 (1.2)	18 (0.7)	25	40 (0.9)	39 (0.7)	1	53 (1.2)	51 (0.8)	2	38 (1.1)
크로아티아	27 (1.2)	-	-	58 (1.1)	-	-	54 (1.0)	-	-	48 (1.2)
ICCS 평균	46 (0.3)	42 (0.3)	4	53 (0.2)	58 (0.2)	-5	59 (0.2)	62 (0.2)	-3	



제Ⅵ장 학교 공동체와 학교 환경

- 1. 학생들의 교내 투표 참여
- 2.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 3. 교실의 분위기
- 4. 학교내 폭력(집단 괴롭힘)
- 5.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의 실천기회
- 6.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내 활동
- 7. 교실내 시민교육 실태 및 교사의 준비수준

이 장은 조사 참여국가별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환경을 다룬다. Schultz 등은 ICCS 2016 분석틀 보고서에서 시민역량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을 지적한 바 있다(Schulz, Ainley, Fraillon, Losito, & Agrusti, 2016). 그 맥락은 지역사회 공동체, 학교와 교실 환경, 가정과 동료 환경,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ICCS 2016 학교 및 교실 환경이 거기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시민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ICCS 2016 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ICCS 참여국의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시민 역량 교육의 체계는 어떠하며, 그 교육체계의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와 시민의식 교육에 관해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다. 또한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어떤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인식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조사결과 데이터도 담겨 있다.

2009년 ICCS 조사결과를 포함한 시민교육 조사결과들은 실제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formal) 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 속(non-formal)의 시민교육도 청소년의 시민역량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왔다. 특히 이런 생활 속 시민교육은 시민역량의 인지적 측면 보다는 태도와 가치관 요소와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다양한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시민교육의 의미를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Ainley, Schulz, and Friedman, 2013; Eurydice, 2005, 2012; 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특히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는지,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간이나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학교와 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들은 시민역량의 태도나 가치관 요인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ckman & Trafford, 2007; Huddleston, 2007, Trafford, 2003).

1. 학생들의 교내 투표 참여

ICCS 2016 조사에는 교내 시민참여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학교장에게 담당 학교내에서 반장 선거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4점 척도로 질문 하였다.

조사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80% 이상의 학교장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자기반 반장을 투표로 선출하는데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국가 단위로 보면 학생들의 반장 선거 참가율이 80% 이하였던 국가는 벨기에(73%), 불가리아(68 %), 에스토니아 (76%). 이탈리아(22%), 네덜란드 (46%)의 5개국 뿐이었다. 학생회 선거 참가율이 80%이하인 나라는 벨기에, 불가리아, 대만,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러시아, 러시아의 10개국 이었다. 이러한 학교장 응답결과는 학생들의 응답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했다. 앞서 4장의 표 IV-4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교 선거 투표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약 77% 정도로 나타났다. 국가별 비율의 편차는 50 ~ 93%였다. 이 중에서 4개국은 90%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으며, 3개 국가는 60 % 미만의 비율을 기록했다.(보고서의 4장 참조). 참고로 이 항목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학생회에 관련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87.7% 였는데, 이는 해당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 응답 결과인 100% 보다는 낮았지만 비교적 근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 의사 결정 과정 참여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분위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Torrance, 2013). 교장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때 채택하는 다양한 전략과 절차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학교 문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dmonds, 1979; Eurydice, 2013; Ishimaru, 2013; Marzano, 2003; Sammons, Gu, Day & Ko, 2011; Scheerens, Glas, & Thomas, 2003). 또한 학교내 의사결정에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의 서로 다른 욕구와 성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교사 개개인의 동기와 의욕 역시 향상될 수 있다(Ranson, Farrell, Peim, & Smith, 2005). 이런 맥락에서 ICCS 2016 학교장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내의 운영과정과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 (a) 교사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 (b) 학부모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 (c)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 (d) 학교의 규칙과 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준수한다.
- (e) 학생은 학교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f) 학부모에게 학교와 학생의 성취도 정보가 제공된다.

조사결과는 아래 표6-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사의 참여율은 높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수준과 참여율은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학부모의 참여수준이 27%로 전체 평균인 18%보다 9% 포인트 이상 높았고, 학생들의 참여율도 ICCS평균보다 18% 포인트나 높은 46%로 나타났다. 국가 순위로 살펴보자면 한국은 학교의 의사결정에 교사가 참여한다는 응답은 81%로 조사대상국 중 4위,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7%로 조사대상국 중 7위,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46%로 조사대상국 중 4위,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을 준수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70%로 조사대상국 중 9위,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40%로 9위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학교와 학생의 성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67%로 조사대상국 중 23위로 매우 낮았다. 학교장이 인식한 참여 현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표 VI-1 학교장이 응답한 교내 선거 학생 참여율

(학교장설문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자기학급 반장 선출		학급 임원, 학생회 임원 선거	
노르웨이	99	(0.8)	95	(2.0)
독일	100	(0.0)	75	(6.3)
덴마크	91	(2.1)	92	(2.0)
네덜란드	46	(4.4)	34	(5.2)
홍콩	87	(3.6)	86	(3.6)
스웨덴	92	(2.4)	78	(3.6)
한국	100	(0.0)	100	(0.0)
대만	92	(2.4)	45	(4.2)
벨기에	73	(4.1)	55	(4.5)
핀란드	98	(1.1)	93	(1.7)
슬로베니아	99	(0.8)	81	(3.7)
이탈리아	22	(3.5)	1	(0.7)
에스토니아	76	(4.9)	79	(4.4)
몰타	85	(0.3)	80	(0.3)
리투아니아	93	(2.1)	79	(3.1)
칠레	98	(1.1)	86	(3.1)
라트비아	88	(3.1)	73	(5.0)
크로아티아	100	(0.0)	98	(1.1)
러시아	82	(3.2)	74	(3.6)
불가리아	68	(3.8)	50	(4.1)
멕시코	98	(1.2)	81	(2.7)
페루	93	(1.5)	85	(2.3)
콜롬비아	99	(1.0)	99	(0.9)
도미니카	95	(1.9)	95	(1.6)
ICCS 2016 평균	85	(0.6)	74	(0.7)

표 VI-2 학교장이 응답한 학교 공동체의 참여 현황

(학교장 설문에서 학교의 각 영역에 해당 주체들이 다소 혹은 매우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의사결정에 교사 참여	의사결정에 학부모들이 참여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들이 교칙 준수	학교의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	학부모는 학교와 학생의 평가결과 정보제공 받음
노르웨이	50 (3.8)	8 (2.5)	15 (3.4)	73 (3.7)	14 (3.1)	71 (3.7)
독일	78 (5.9)	24 (7.1)	43 (6.5)	67 (8.1)	44 (6.9)	89 (2.4)
덴마크	56 (3.8)	7 (2.0)	20 (3.2)	72 (3.5)	19 (3.2)	71 (3.8)
네덜란드	23 (4.0)	3 (1.7)	6 (2.2)	47 (5.2)	9 (2.8)	88 (3.2)
홍콩	42 (5.5)	4 (2.2)	33 (4.9)	81 (4.7)	15 (3.9)	68 (4.5)
스웨덴	63 (5.1)	2 (1.9)	35 (4.1)	68 (5.9)	21 (3.9)	90 (2.8)
한국	81 (4.1)	27 (5.2)	46 (5.7)	70 (4.2)	40 (4.9)	67 (5.7)
대만	60 (3.9)	19 (2.7)	18 (3.3)	66 (3.9)	17 (3.0)	75 (3.7)
벨기에	32 (4.5)	8 (2.1)	8 (2.1)	52 (5.0)	12 (2.6)	62 (4.4)
핀란드	73 (3.1)	2 (1.1)	9 (2.2)	83 (2.7)	21 (2.9)	78 (3.2)
슬로베니아	70 (4.2)	12 (3.0)	17 (3.8)	79 (3.7)	21 (3.9)	98 (1.0)
이탈리아	39 (3.8)	10 (2.5)	7 (2.1)	29 (3.6)	5 (1.8)	72 (3.8)
에스토니아	77 (3.7)	28 (5.6)	37 (5.3)	66 (5.4)	49 (5.1)	89 (3.6)
몰타	66 (0.4)	8 (0.2)	29 (0.3)	85 (0.4)	33 (0.4)	83 (0.3)
리투아니아	46 (4.0)	20 (3.1)	24 (3.9)	25 (3.9)	31 (3.6)	82 (3.4)
칠레	50 (3.7)	10 (2.9)	26 (3.8)	72 (3.4)	28 (4.0)	84 (3.0)
라트비아	88 (3.0)	32 (3.8)	51 (4.3)	68 (4.8)	67 (4.5)	97 (1.5)
크로아티아	79 (3.7)	30 (3.9)	38 (4.2)	56 (3.9)	43 (4.3)	85 (3.2)
러시아	60 (3.6)	31 (3.9)	24 (3.6)	70 (4.2)	43 (3.7)	92 (2.7)
불가리아	86 (3.0)	8 (2.3)	32 (4.3)	80 (3.5)	27 (4.0)	83 (3.2)
멕시코	78 (3.3)	39 (4.1)	37 (4.0)	58 (4.1)	42 (4.1)	94 (1.5)
페루	42 (3.6)	21 (2.9)	35 (3.5)	48 (3.4)	31 (3.2)	71 (3.0)
콜롬비아	64 (4.4)	23 (3.9)	48 (4.5)	60 (4.5)	46 (4.4)	95 (2.2)
도미니카	84 (3.8)	46 (5.0)	65 (4.5)	67 (4.4)	58 (4.4)	96 (2.2)
ICCS 2016 평균	61 (0.8)	18 (0.7)	28 (0.8)	63 (0.9)	30 (0.8)	84 (0.7)

3. 교실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school climate)는 일반적으로 "공유된 믿음, 그 학교 내의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특성, 물리적 여건, 그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룹의 특성"이라고 정의된다(Van Houtte, 2005, p.85).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는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 믿음, 그리고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패턴화된 표현 속에 담겨있는 상징과 암묵적인 규약"(Homana, Barber, & Torney-Purta, 2006, p.3)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학교의 분위기와 학교 내 대인관계(학생-교사 및 또래 학생간)의 질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Bear, Yang, Pell, & Gaskins, 2014) 교내의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를 반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well, Powell, & Petrosko, 2015).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교내 참여수준을 보여주는 포괄적 지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uin, 2017).

교실 내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느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주적인 태도의 습득여부는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예 : Hooghe & Quintelier, 2013 참조). 따라서 교실 분위기는 CivED 연구에서부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였다(Torney-Purta, Lehmann, Oswald & Schulz, 2001). 당시 연구결과를 통해 교실분위기의 개방성이 시민지식의 수준과 향후 성인이 되어 투표할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2005). ICCS 2009 조사에서도 교실분위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했으며,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의 성과가 교실분위기(개방성)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Schulz et al., 2010). 교실내에서 토론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시민성 간의 관계는 1971년 이후 지금까지 시민 교육과 관련된 IEA 연구에서 매우 일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ICCS 2016 에는 2009년과 동일한 교실분위기 측정 문항을 포함했다. 이 질문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중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여섯 가지 질문 항목은 진술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a)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고취하도록 격려한다."(75 %).
- (b)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권장합니다"(85 %);
- (c)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토론을 위해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다"(44 %);
- (d)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생들은 의견을 표명한다"(74 %);
- (e) "교사들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장려한다"(59 %)
- (f) "교사는 수업에서 설명 할 때 문제의 여러면을 제시한다"(72 %).

표 VI-3은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내 토론 개방성에 대한 ICCS 2016 과 2009 평가점수를 보여준다. 조사결과, 덴마크, 칠레, 대만,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및 스웨덴에서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개방성에서 국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표 VI-4는 정치사회적 관심수준, 학생의 기대 교육 수준 (대학졸업까지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 지식의 수준에 따른 교실 토론에서의 개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참여 국가에서 학생들의 교실 토론 개방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 4점 내외의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관심수준과 기대교육 수준에 의한 차이 역시 2점 내외로 나타났다.

표 VI-3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내 토론에의 개방성 수준

국가명	2016		2009		격차 (2016-2009)	
노르웨이	52	(0.3)	53	(0.5)	-0.5	(0.6)
독일	50	(0.5)	-		-	
덴마크	54	(0.3)	55	(0.3)	-0.9	(0.6)
네덜란드	47	(0.3)	-		-	
홍콩	53	(0.5)	45	(0.4)	8.0	(0.6)
스웨덴	52	(0.4)	51	(0.3)	1.5	(0.6)
한국	42	(0.4)	48	(0.3)	-6.0	(0.5)
대만	52	(0.3)	50	(0.3)	1.7	(0.6)
벨기에	50	(0.3)	49	(0.3)	0.6	(0.5)
핀란드	49	(0.2)	49	(0.2)	-0.3	(0.5)
슬로베니아	50	(0.3)	50	(0.3)	-0.2	(0.5)
이탈리아	53	(0.3)	54	(0.3)	-1.1	(0.5)
에스토니아	49	(0.3)	50	(0.3)	-1.0	(0.5)
몰타	49	(0.2)	46	(0.2)	3.6	(0.4)
리투아니아	49	(0.3)	50	(0.3)	-0.3	(0.5)
칠레	52	(0.3)	52	(0.3)	-0.1	(0.6)
라트비아	49	(0.2)	51	(0.3)	-1.6	(0.5)
크로아티아	51	(0.3)	-		-	
러시아	48	(0.4)	49	(0.3)	-1.4	(0.6)
불가리아	48	(0.3)	48	(0.4)	0.2	(0.6)
멕시코	51	(0.2)	50	(0.2)	0.9	(0.5)
페루	53	(0.3)	-		-	
콜롬비아	49	(0.3)	50	(0.2)	-0.9	(0.5)
도미니카	48	(0.4)	47	(0.3)	0.9	(0.6)
ICCS 평균	50	(0.1)	50	(0.3)	0.1	(0.1)

표 VI-4 학생들이 인식한 교실내 토론개방성의 시민적 관심수준/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

국가명	시민적 관심수준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수준		
	관심없음	보통이상 관심있음	고졸이하	대졸이상	B수준 미만 (479점 이하)	B수준 이상 (479점 이상)	
노르웨이	51 (0.3)	55 (0.4)	51 (0.3)	54 (0.3)	49 (0.5)	53 (0.3)	
덴마크	52 (0.3)	57 (0.3)	53 (0.3)	56 (0.3)	48 (0.5)	55 (0.3)	
네덜란드	47 (0.3)	50 (0.5)	47 (0.3)	49 (0.4)	45 (0.5)	48 (0.3)	
홍콩	52 (0.6)	55 (0.5)	52 (0.6)	54 (0.5)	51 (0.6)	55 (0.5)	
스웨덴	51 (0.5)	54 (0.4)	51 (0.4)	53 (0.5)	48 (0.8)	53 (0.4)	
한국	40 (0.5)	44 (0.4)	40 (0.6)	42 (0.5)	40 (0.8)	42 (0.4)	
대만	51 (0.3)	54 (0.5)	51 (0.4)	53 (0.4)	48 (0.6)	53 (0.4)	
벨기에	49 (0.3)	51 (0.4)	49 (0.5)	50 (0.3)	48 (0.7)	50 (0.3)	
핀란드	48 (0.2)	51 (0.3)	48 (0.3)	50 (0.3)	46 (0.6)	50 (0.2)	
슬로베니아	49 (0.3)	52 (0.4)	49 (0.3)	51 (0.4)	47 (0.5)	51 (0.3)	
이탈리아	52 (0.3)	56 (0.4)	52 (0.3)	55 (0.4)	50 (0.4)	54 (0.3)	
에스토니아	49 (0.3)	51 (0.4)	49 (0.3)	50 (0.3)	47 (0.4)	50 (0.3)	
몰타	49 (0.2)	50 (0.3)	48 (0.2)	51 (0.3)	46 (0.3)	51 (0.2)	
리투아니아	48 (0.3)	51 (0.4)	49 (0.4)	50 (0.4)	48 (0.4)	50 (0.3)	
칠레	52 (0.3)	55 (0.5)	50 (0.4)	54 (0.4)	50 (0.4)	54 (0.4)	
라트비아	49 (0.3)	50 (0.4)	48 (0.3)	50 (0.4)	47 (0.3)	50 (0.3)	
크로아티아	50 (0.4)	53 (0.4)	50 (0.3)	52 (0.5)	48 (0.3)	52 (0.4)	
러시아	46 (0.5)	50 (0.4)	46 (0.5)	49 (0.5)	45 (0.7)	48 (0.5)	
불가리아	48 (0.3)	50 (0.5)	45 (0.5)	49 (0.3)	45 (0.5)	51 (0.3)	
멕시코	50 (0.2)	54 (0.3)	50 (0.4)	51 (0.2)	50 (0.3)	52 (0.3)	
페루	52 (0.3)	54 (0.3)	52 (0.3)	54 (0.3)	51 (0.2)	56 (0.4)	
콜롬비아	49 (0.3)	51 (0.4)	47 (0.4)	50 (0.3)	47 (0.3)	51 (0.3)	
도미니카	48 (0.4)	49 (0.6)	47 (0.4)	50 (0.5)	47 (0.4)	54 (0.5)	
ICCS 2016 평균	50 (0.1)	52 (0.1)	49 (0.1)	51 (0.1)	48 (0.1)	52 (0.1)	

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2009년과 2016년 ICCS에서 동일했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해주신다." (87%가 동의)
- (b)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74 %)
- (c)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83 %)
- (d) "대부분의 선생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81 %)
- (e)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88 %).

이 항목의 응답 평균 신뢰도는(Cronbach's alpha) 0.8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2009 년과 2016 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다 (표 VI-5). ICCS 2016 조사결과의 전체 평균은 2009년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페루 등 8개국 청소년들의 인식하는 학생-교사 관계가 ICCS 평균보다 높았다. 참고로 한국의 이 항목 점수도 2009년의 45.9에 비해 2016년에는 52.7으로 약 7.3점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는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2016년에는 평균 (5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표 VI-6에서는 학생들의 성별, 기대교육수준(자신이 미래에 대학졸업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지식 수준 (레벨 B이상vs 그 이하)에 따른 학생-교사관계의 인식점수를 비교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고(1점 차이), 미래 기대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점수가 높았다(1점 차이). 가장 큰 격차는 시민지식 수준에서 발견되었는데, 시민지식이 B 레벨 이상인 청소년들은 그보다 낮은 청소년들보다 약 2점 정도 높이 학생-교사관계를 평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청소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성차이와 시민지식수준에 따른 차이는 ICCS 평균보다 각각 1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사-학생관계가 개인의 성별이나 지식수준에 따라 더 많은 격차를 보인다는 뜻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I-5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수준

국가명	2016		2009		격차 (2016-2009)	
노르웨이	52	(0.3)	50	(0.4)	2.7	(0.7)
독일	50	(0.5)	-		-	
덴마크	54	(0.3)	52	(0.3)	2.6	(0.6)
네덜란드	50	(0.3)	48	(0.2)	2.0	(0.7)
홍콩	51	(0.4)	49	(0.3)	1.9	(0.6)
스웨덴	53	(0.4)	51	(0.3)	1.5	(0.7)
한국	53	(0.2)	46	(0.3)	7.3	(0.5)
대만	56	(0.3)	51	(0.3)	5.2	(0.6)
벨기에	51	(0.2)	49	(0.3)	2.5	(0.6)
핀란드	53	(0.3)	48	(0.2)	4.9	(0.6)
슬로베니아	48	(0.3)	47	(0.3)	1.6	(0.6)
이탈리아	53	(0.3)	51	(0.3)	1.3	(0.6)
에스토니아	49	(0.3)	48	(0.3)	1.2	(0.6)
몰타	52	(0.2)	52	(0.3)	0.4	(0.6)
리투아니아	50	(0.3)	50	(0.3)	0.2	(0.6)
칠레	54	(0.3)	51	(0.3)	2.7	(0.6)
라트비아	46	(0.3)	45	(0.3)	1.0	(0.6)
크로아티아	51	(0.4)	-		-	
러시아	50	(0.3)	51	(0.3)	-1.0	(0.6)
불가리아	53	(0.3)	51	(0.3)	2.0	(0.6)
멕시코	55	(0.2)	53	(0.2)	1.8	(0.5)
페루	55	(0.2)	-		-	
콜롬비아	54	(0.3)	54	(0.3)	-0.4	(0.6)
도미니카	60	(0.3)	59	(0.3)	1.6	(0.6)
ICCS 2016 평균	52	(0.1)	50	(0.3)	1.8	(0.1)

표 VI-6 성별/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교사-학생관계 인식 점수

국가명	성별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수준	
	남	녀	고졸이하	대졸이상	B수준 미만 (479점 이하)	B수준 이상 (479점 이상)
노르웨이	52 (0.3)	53 (0.4)	51 (0.3)	54 (0.3)	50 (0.4)	53 (0.3)
덴마크	54 (0.3)	55 (0.4)	54 (0.3)	56 (0.4)	51 (0.6)	55 (0.3)
네덜란드	49 (0.4)	50 (0.4)	49 (0.4)	50 (0.5)	48 (0.5)	50 (0.4)
홍콩	52 (0.5)	51 (0.4)	50 (0.5)	52 (0.4)	49 (0.5)	52 (0.4)
스웨덴	53 (0.5)	52 (0.5)	51 (0.5)	54 (0.4)	51 (0.8)	53 (0.4)
한국	54 (0.3)	52 (0.3)	51 (0.4)	54 (0.3)	51 (0.6)	54 (0.3)
대만	55 (0.4)	57 (0.3)	55 (0.4)	56 (0.4)	53 (0.6)	56 (0.3)
벨기에	50 (0.3)	52 (0.4)	50 (0.3)	52 (0.3)	51 (0.4)	51 (0.3)
핀란드	52 (0.4)	53 (0.3)	52 (0.3)	54 (0.3)	49 (0.6)	53 (0.3)
슬로베니아	48 (0.4)	49 (0.3)	48 (0.3)	49 (0.4)	48 (0.5)	49 (0.3)
이탈리아	52 (0.3)	53 (0.3)	52 (0.3)	54 (0.4)	52 (0.5)	53 (0.3)
에스토니아	49 (0.4)	48 (0.4)	48 (0.3)	49 (0.4)	48 (0.5)	49 (0.3)
몰타	52 (0.3)	52 (0.2)	51 (0.3)	53 (0.3)	51 (0.3)	53 (0.2)
리투아니아	50 (0.4)	50 (0.4)	50 (0.3)	50 (0.4)	50 (0.4)	50 (0.4)
칠레	55 (0.4)	53 (0.4)	53 (0.4)	55 (0.3)	53 (0.4)	55 (0.4)
라트비아	46 (0.4)	46 (0.3)	46 (0.3)	47 (0.4)	46 (0.4)	47 (0.4)
크로아티아	50 (0.4)	51 (0.4)	51 (0.4)	51 (0.4)	50 (0.5)	51 (0.4)
러시아	50 (0.3)	50 (0.3)	50 (0.3)	50 (0.3)	50 (0.5)	50 (0.3)
불가리아	52 (0.4)	54 (0.4)	52 (0.5)	53 (0.4)	52 (0.4)	54 (0.4)
멕시코	54 (0.3)	56 (0.2)	54 (0.4)	55 (0.2)	55 (0.3)	56 (0.3)
페루	55 (0.3)	56 (0.3)	54 (0.3)	56 (0.3)	55 (0.3)	56 (0.4)
콜롬비아	53 (0.3)	54 (0.3)	54 (0.4)	54 (0.3)	55 (0.3)	53 (0.3)
도미니카	60 (0.3)	60 (0.3)	59 (0.3)	61 (0.4)	60 (0.3)	61 (0.6)
ICCS 2016 평균	52 (0.1)	53 (0.1)	52 (0.1)	53 (0.1)	51 (0.1)	53 (0.1)

4. 학교내 폭력(집단 괴롭힘)

왕따 혹은 집단 괴롭힘(bullying)은 신체, 정서, 언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공격적인 행동(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3, Olweus, 1973, Wade & Beran, 2011)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집단괴롭힘은 교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간주한다(예: Olweus, 1973 참조). 그러나 실제로 학교내 집단 괴롭힘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각국의 학교에서는 교내와 온라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또래간 학교폭력 문제를 겪고 있다(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3, Corcoran & McGuckin, 2014, Fisher, Gardella, & Teurbe-Tolon, 2016). 이러한 집단 괴롭힘의 발생률과 유형은 국가와 학교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Atria, Strohmeier, & Spiel, 2007; Salmivalli, 2012).

이런 맥락에서 2016년도 ICCS에서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교사-학교장이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들 세 구성원 설문지에 관련된 문항을 모두 포함시켰다. 문항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ICCS의 학생용 설문지의 집단 괴롭힘 측정문항은 지난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 (a) 어느 학생이 기분 나쁜 별명으로 나를 불렀다
- (b) 어느 학생이 나에게 대해 말한 내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 (c) 어느 학생이 나를 해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 (d)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했다
- (e) 어느 학생이 고의로 내 소유물을 망가뜨렸다
- (f) 어느 학생이 인터넷에 나에게 대한 모욕적인 그림이나 글을 올렸다

2016년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이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 's alpha)는 0.75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표 VI-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이 교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 괴롭힘의 유형은 언어적인 괴롭힘이었다. 전체 청소년 중의 55%가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기분 나쁜 별명으로 불리운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항목의 국가별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크로아티아(70%), 가장 낮은 국가는 대만(36%) 였다. 이 항목에 대한 한국의 결과는 45%로 조사대상국 중에서는 6번째로 낮았다. 또한 다른 학생이 퍼트린 소문 때문에 놀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56%로 조사 문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문항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67%) 였으며 우리나라는 28%로 가장 낮았다.

집단 괴롭힘 중에서 실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전체평균: 10%)과 신체적인 공격(16%)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집단 괴롭힘 경험은 5%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았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13%로 조사대상국 중에서 6번째로 낮았다.

교내 집단 괴롭힘을 경험율이 ICCS 전체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홍콩, 불가리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리투아니아, 몰타, 멕시코, 페루, 슬로베니아 였다. 반면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은 ICCS 2016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대만과 함께 ICCS 2016 평균치보다 4 포인트 낮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 경험 비율은 ICCS 참여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7년 11월에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교육부, 2017, p.4)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경우 지난 1년간 교내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4.1%, 신체적 폭행은 9.7%, 사이버 괴롭힘은 14.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간의 차이, 학령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교육부 조사결과에서 사이버 괴롭힘은 더 낮았고 신체적 폭력은 더 높았다.

표 VI-7 언어적/신체적 학교 폭력 노출 경험 비율(%)

(지난 3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아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국가명	불쾌한 별명으로 부르기	소문으로 놀림당함	해치겠다는 위협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고의로 소유물 파손 피해	사이버 모욕 피해	전체평균
노르웨이	56 (1.1)	59 (1.0)	19 (1.0)	18 (0.8)	19 (1.0)	13 (0.5)	50 (0.3)
독일	43 (1.8)	50 (1.6)	17 (1.2)	17 (1.1)	18 (1.1)	8 (0.8)	49 (0.3)
덴마크	44 (1.1)	60 (1.1)	14 (0.6)	12 (0.6)	14 (0.7)	9 (0.5)	49 (0.2)
네덜란드	48 (1.4)	43 (1.3)	13 (0.7)	11 (0.7)	13 (0.8)	6 (0.6)	47 (0.3)
홍콩	52 (1.6)	66 (1.2)	19 (1.2)	27 (1.3)	18 (1.3)	14 (1.0)	52 (0.3)
스웨덴	44 (1.4)	54 (1.3)	17 (1.2)	16 (1.2)	15 (1.1)	9 (0.6)	49 (0.4)
한국	45 (1.7)	28 (1.4)	5 (0.5)	13 (0.8)	10 (0.7)	5 (0.6)	46 (0.3)
대만	36 (1.0)	42 (1.0)	5 (0.4)	11 (0.6)	8 (0.5)	6 (0.5)	46 (0.2)
벨기에	58 (1.5)	53 (1.2)	21 (1.1)	17 (0.9)	14 (0.8)	6 (0.7)	50 (0.2)
핀란드	42 (1.1)	51 (1.0)	15 (0.8)	14 (0.8)	8 (0.6)	7 (0.5)	48 (0.2)
슬로베니아	58 (1.3)	59 (1.0)	20 (0.9)	17 (0.9)	27 (0.9)	11 (0.8)	51 (0.2)
이탈리아	52 (1.1)	42 (1.0)	17 (0.9)	11 (0.7)	29 (1.2)	6 (0.5)	49 (0.2)
에스토니아	55 (1.4)	64 (1.2)	19 (1.1)	14 (0.8)	16 (0.7)	11 (0.8)	50 (0.3)
몰타	58 (0.8)	65 (0.8)	29 (0.8)	24 (0.6)	20 (0.7)	13 (0.6)	52 (0.2)
리투아니아	59 (1.1)	67 (1.0)	21 (1.0)	14 (0.9)	19 (1.2)	14 (0.9)	51 (0.2)
칠레	52 (0.9)	59 (0.7)	16 (0.7)	15 (0.5)	23 (0.8)	10 (0.5)	50 (0.2)
라트비아	60 (1.0)	44 (1.1)	23 (1.1)	19 (0.9)	24 (1.2)	10 (0.7)	50 (0.2)
크로아티아	70 (1.1)	63 (1.2)	25 (1.1)	20 (1.1)	23 (1.1)	8 (0.7)	52 (0.3)
러시아	61 (1.2)	49 (1.0)	21 (0.9)	9 (0.5)	25 (1.1)	13 (0.8)	49 (0.3)
불가리아	53 (1.3)	60 (1.3)	20 (1.0)	17 (1.1)	17 (1.1)	12 (1.0)	51 (0.3)
멕시코	63 (1.1)	64 (1.0)	19 (0.8)	20 (0.8)	28 (1.0)	11 (0.6)	52 (0.3)
페루	64 (0.9)	60 (0.9)	20 (0.9)	20 (0.8)	27 (0.9)	11 (0.7)	51 (0.2)
콜롬비아	61 (1.2)	61 (1.3)	15 (0.6)	17 (0.6)	31 (1.1)	8 (0.5)	51 (0.3)
도미니카	54 (1.2)	66 (0.9)	27 (1.0)	27 (1.0)	31 (1.0)	10 (0.6)	52 (0.2)
ICCS 2016 평균	55 (0.3)	56 (0.2)	19 (0.2)	16 (0.2)	20 (0.2)	10 (0.1)	50 (0.1)

청소년들의 성별, 기대교육수준, 시민 지식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내 집단 따돌림 경험에서는 성차와 시민지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ICCS 참여국 전체평균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학교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약 4%p 높았다. 이런 성 차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참여국에서 발견되었다. 한국 역시 남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47%임에 비해 여학생은 44%로 3%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집단따돌림 경험한 비율은 시민지식수준이 B 이상인 청소년들(49%)이 그 미만인 청소년들(49%)에 비해서 2%p 정도 적었다. 한국의 경우 이 격차는 1%p 였다.

기대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위의 두 변인의 것보다 크지 않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소년들(50%)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51%)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 경험이 1%p 정도 적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 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ICCS 2016의 학교장 대상 설문조사 내용에도 학교장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문항은 아래와 같다.

- (a) 한 학생이 학교장에게 다른 학생들이 저지른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보고했다
- (b) 학생이 학교장에게 교사로부터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 (c) 교사가 학교장에게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 (d) 교사가 학교장에게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도왔다고 보고했다
- (e) 교사가 학교장에게 학생들로부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f)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표 VI-8 성별/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비율 차이

국가명	성별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수준	
	남	녀	대졸미만	대졸이상	B수준 미만	B수준 이상
노르웨이	52 (0.3)	49 (0.4)	51 (0.4)	50 (0.3)	52 (0.5)	50 (0.3)
덴마크	51 (0.3)	47 (0.3)	49 (0.2)	49 (0.3)	51 (0.5)	49 (0.2)
네덜란드	48 (0.4)	46 (0.3)	48 (0.3)	47 (0.4)	48 (0.5)	47 (0.3)
홍콩	54 (0.4)	50 (0.3)	53 (0.6)	51 (0.4)	53 (0.5)	51 (0.4)
스웨덴	51 (0.4)	48 (0.5)	50 (0.5)	49 (0.4)	51 (0.8)	49 (0.4)
한국	47 (0.3)	44 (0.4)	46 (0.4)	46 (0.4)	47 (0.6)	46 (0.4)
대만	47 (0.3)	44 (0.3)	47 (0.3)	46 (0.2)	48 (0.7)	46 (0.2)
벨기에	52 (0.3)	48 (0.3)	51 (0.4)	49 (0.3)	51 (0.6)	49 (0.3)
핀란드	50 (0.4)	45 (0.3)	48 (0.3)	47 (0.3)	49 (0.7)	48 (0.3)
슬로베니아	52 (0.3)	49 (0.4)	51 (0.3)	51 (0.4)	52 (0.4)	51 (0.3)
이탈리아	50 (0.3)	48 (0.3)	49 (0.3)	48 (0.3)	50 (0.4)	48 (0.3)
에스토니아	52 (0.3)	49 (0.4)	51 (0.3)	50 (0.3)	52 (0.6)	50 (0.3)
몰타	55 (0.3)	49 (0.3)	53 (0.3)	51 (0.3)	54 (0.3)	51 (0.3)
리투아니아	52 (0.3)	50 (0.3)	51 (0.4)	50 (0.3)	52 (0.5)	50 (0.3)
칠레	51 (0.2)	49 (0.3)	51 (0.3)	49 (0.2)	51 (0.3)	48 (0.3)
라트비아	51 (0.3)	48 (0.3)	50 (0.3)	49 (0.4)	51 (0.3)	49 (0.3)
크로아티아	54 (0.3)	51 (0.4)	53 (0.3)	52 (0.4)	54 (0.5)	52 (0.3)
러시아	50 (0.3)	49 (0.3)	50 (0.3)	49 (0.3)	51 (0.5)	49 (0.3)
불가리아	52 (0.4)	49 (0.4)	52 (0.5)	50 (0.4)	53 (0.5)	49 (0.4)
멕시코	54 (0.3)	50 (0.3)	52 (0.5)	51 (0.2)	52 (0.4)	51 (0.3)
페루	53 (0.2)	50 (0.3)	52 (0.3)	51 (0.3)	52 (0.2)	50 (0.3)
콜롬비아	53 (0.3)	49 (0.3)	52 (0.4)	51 (0.3)	52 (0.3)	51 (0.4)
도미니카	53 (0.3)	51 (0.3)	52 (0.3)	51 (0.3)	52 (0.3)	51 (0.6)
ICCS 2016 평균	52 (0.1)	48 (0.1)	51 (0.1)	50 (0.1)	51 (0.1)	49 (0.1)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장 설문조사 결과는 표 VI-9에 제시하였다. 학교장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내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이었다. 교내폭력의 주요 보고 경로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학교장이 1개월에 1회 이상 학생으로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응답의 참여국 평균은 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20%), 학부모(14%)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비율은 4%, 교사로부터는 4%, 학부모로부터는 2%였다.

국가별로는 홍콩, 한국, 대만, 크로아티아, 덴마크, 이탈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사건을 보고받았다는 비율이 참여국 전체평균보다 낮았으며, 도미니카, 멕시코, 벨기에, 독일, 콜롬비아, 몰타, 스웨덴, 페루,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은 평균보다 높았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단, 라트비아는 학생간의 괴롭힘 보고(14%)와 교사의 폭력피해 보고 비율(12%)이 비슷했으며, 도미니카와 멕시코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학교장의 비율이 10% 이상이었다.

응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학교장이 인식한 학교폭력 사례는 실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경험의 비율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편차가 가장 큰 5개국(홍콩, 이탈리아, 대만, 슬로베니아 포함) 중 하나였다. 이 수치는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보고의 효용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사로부터 학생간의 폭력행동을 보고 받았다는 비율(4%)보다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비율(7%)이 더 높았다. 학교폭력 사건 자체의 보고보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례에 대한 보고 비율이 더 많은 국가는 러시아와 한국 뿐이었으며, 그 격차는 한국이 가장 컸다.

표 VI-9 학교폭력 관련 상황 발생을 인지한 비율 (% , 재학생수 기준)

(학교장이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다음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한 학교의 비율)

국가명	학생이 타학생의 폭력행동을 교장, 주임, 담임에게 보고	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력을 교장, 주임, 담임에게 보고	교사가 타학생의 폭력행동을 교장, 주임, 담임에게 보고	교사가 교장에게 괴롭힘 피해학생을 돕는 학생 보고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교장, 주임, 담임에게 보고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괴롭힘 피해를 교장, 주임, 담임에게 보고
노르웨이	26 (3.8)	8 (2.2)	26 (3.6)	12 (2.8)	2 (1.1)	20 (3.7)
독일	38 (4.2)	1 (0.7)	31 (5.8)	17 (2.9)	1 (0.7)	21 (6.5)
덴마크	16 (2.8)	2 (1.1)	12 (2.7)	12 (2.6)	1 (1.0)	10 (2.2)
네덜란드	26 (4.7)	20 (4.2)	27 (4.7)	16 (3.9)	3 (1.6)	16 (3.9)
홍콩	0	0	3 (2.2)	2 (1.7)	0	1 (1.4)
스웨덴	31 (3.8)	5 (1.9)	40 (4.9)	19 (5.3)	2 (0.9)	15 (3.5)
한국	4 (1.8)	1 (1.1)	4 (1.9)	7 (2.8)	0	2 (1.4)
대만	1 (0.9)	1 (0.8)	3 (1.5)	2 (1.0)	1 (0.8)	2 (1.3)
벨기에	42 (4.3)	3 (1.4)	50 (4.2)	25 (3.9)	7 (2.3)	38 (4.0)
핀란드	27 (3.3)	4 (1.4)	42 (4.0)	17 (2.5)	2 (1.0)	15 (2.3)
슬로베니아	7 (2.5)	0	29 (4.4)	7 (2.6)	3 (1.5)	7 (2.6)
이탈리아	3 (1.3)	0	5 (1.7)	1 (0.9)	0	4 (1.5)
에스토니아	28 (4.6)	5 (3.6)	27 (4.8)	13 (3.8)	1 (1.1)	15 (3.6)
몰타	32 (0.4)	7 (0.3)	34 (0.4)	32 (0.4)	0	39 (0.4)
리투아니아	23 (3.3)	4 (1.7)	19 (3.0)	11 (2.9)	6 (1.9)	6 (1.7)
칠레	26 (3.4)	4 (1.6)	10 (2.6)	8 (2.5)	2 (1.1)	14 (3.1)
라트비아	14 (2.0)	2 (1.7)	13 (2.6)	3 (1.7)	12 (2.9)	5 (2.1)
크로아티아	11 (2.5)	1 (0.7)	10 (1.9)	5 (1.5)	2 (1.1)	5 (1.7)
러시아	7 (1.9)	0	1 (0.7)	3 (1.5)	2 (0.5)	3 (1.6)
불가리아	19 (3.3)	3 (1.5)	11 (2.7)	5 (2.0)	2 (1.2)	7 (2.3)
멕시코	42 (3.5)	9 (2.1)	20 (2.9)	8 (2.1)	10 (2.4)	17 (2.9)
페루	29 (3.5)	6 (1.9)	12 (2.5)	8 (2.1)	3 (1.2)	12 (2.3)
콜롬비아	32 (4.0)	6 (2.3)	12 (2.5)	7 (2.0)	4 (1.8)	10 (2.8)
도미니카	51 (3.8)	8 (2.5)	24 (3.7)	20 (3.9)	11 (2.7)	25 (3.9)
ICCS 2016 평균	23 (0.7)	5 (0.5)	20 (0.7)	11 (0.6)	4 (0.4)	14 (0.6)

ICCS에서는 또한 학교장들에게 학교 단위에서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을 2016년에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예/아니오’로 응답). 조사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교내 괴롭힘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모임
- b) 학생들이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사에게 지식, 기술 및 신뢰를 제공하는 특별연수
- c)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 d)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학생 교육프로그램
- e)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모임
- f) 학생간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개발
- g) 괴롭힘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학급활동
- h) 교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가 및/또는 해당 지자체가 주최하는 괴롭힘 방지 회의

이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VI-10에 제시하였다. 조사 참여국들이 가장 많이 실시한 활동은 학급단위 활동(94%)과 사이버 폭력 방지 교육(77%)등 학생 대상 학교 단위 교육이었다. 학부모 교육을 위한 모임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72%). 가장 적었던 것은 교내폭력 관련 전문가회의(41%) 및 사이버 폭력 익명신고 시스템 개발(25%)이었다. 한국은 교내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교내폭력 대응을 위한 노력의 전체 응답평균이 높은 국가는 대만 뿐이었다. 특히 한국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교사대상 교육과 연수를 실시한 비율이 높았다. 교내폭력 관련 교사연수, 사이버폭력 관련 교사교육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각각 91%로 대만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에 학부모 대상 교육모임을 실시했다는 응답은 79%로 ICCS 참여국 평균보다는 높았으나 다른 노력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 설문지에서도 교내 폭력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 설문지에 사용 된 항목은 학교장 설문지의 문항과 거의 같고 응답결과 환산 방식도 동일했다. 교사응답결과는 표 VI-11에 제시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인지한 교내폭력의 빈도는 학교장이 인지한 것보다 적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도미니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에서는 교장이 인식한 폭력빈도가 교사보다 10% 이상 높았다. 반면에 슬로 베니아, 한국, 대만, 불가리아에서는 교사가 인식한 폭력빈도가 교장보다 10% 이상 컸다. 또한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사례의 빈도는 학교장이 인식한 것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교내폭력의 유형에 따라 각 주체(학생, 교사, 교장)가 인식하는 실태의 인식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양상도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도 지적했듯,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교내 폭력의 존재와 유형별 빈도를 명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다(Schulz 외 2018, p.162). 연구진은 정량화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종종 희생자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침묵의 문화"(Smith & Shu, 2000)를 지적했다(Schulz 외 2018, p.162). 그러나 본 조사결과가 교내 폭력의 양상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국제비교 결과임은 분명하다. 향후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분석할 때도 이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VI-10 교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학교의 노력

(해당 학년도에 다음 활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

국가명	교내 괴롭힘에 대한 학부모 교육모임	교내 괴롭힘 대응관련 지식, 기술, 신뢰를 제공 하는 교사 특별연수	사이버폭력 방지 교사 교육	사이버 폭력방지 학생교육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부모 교육 모임	학생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익명신고 체계	괴롭힘 경각심 높이는 학급활동	교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 회의
노르웨이	87 (3.1)	78 (4.0)	34 (4.0)	70 (4.2)	77 (3.7)	25 (3.9)	96 (1.6)	43 (3.9)
독일	53 (7.8)	46 (8.2)	64 (6.1)	93 (3.6)	47 (8.0)	9 (2.9)	97 (2.4)	50 (7.3)
덴마크	80 (2.8)	43 (4.2)	37 (4.2)	83 (2.8)	65 (3.8)	2 (1.4)	93 (2.2)	42 (3.6)
네덜란드	48 (4.9)	37 (5.1)	31 (5.0)	68 (4.3)	49 (5.3)	32 (5.1)	98 (1.3)	36 (5.1)
홍콩	11 (3.5)	53 (6.0)	39 (6.2)	58 (5.7)	23 (5.1)	7 (3.0)	70 (5.4)	39 (5.1)
스웨덴	66 (4.6)	53 (5.0)	45 (5.2)	72 (3.9)	52 (4.6)	10 (2.6)	99 (0.9)	17 (3.4)
한국	79 (4.5)	91 (3.4)	91 (3.0)	96 (2.1)	71 (5.2)	73 (5.9)	92 (3.2)	65 (5.3)
대만	89 (2.5)	97 (1.6)	92 (2.0)	91 (2.4)	75 (3.5)	54 (3.2)	98 (1.1)	72 (3.2)
벨기에	42 (4.3)	38 (3.7)	36 (4.2)	78 (3.9)	41 (4.3)	21 (3.4)	99 (0.9)	45 (4.4)
핀란드	49 (4.6)	46 (3.9)	39 (3.9)	85 (2.6)	46 (3.9)	13 (2.6)	98 (1.2)	46 (3.7)
슬로베니아	55 (4.8)	42 (4.8)	73 (4.1)	86 (3.3)	64 (4.2)	27 (3.7)	95 (1.9)	31 (4.1)
이탈리아	52 (4.2)	40 (3.8)	37 (3.9)	71 (3.5)	49 (4.1)	12 (3.2)	91 (2.8)	62 (3.8)
에스토니아	65 (4.2)	70 (4.7)	66 (5.1)	76 (3.6)	47 (5.5)	10 (2.5)	97 (2.0)	23 (5.4)
몰타	80 (0.2)	62 (0.5)	68 (0.3)	97 (0.0)	74 (0.3)	35 (0.4)	94 (0.1)	48 (0.4)
리투아니아	90 (2.7)	81 (3.6)	63 (4.7)	84 (3.1)	74 (3.7)	19 (3.3)	98 (1.2)	33 (4.1)
칠레	81 (3.1)	75 (3.4)	52 (4.3)	63 (4.2)	62 (4.2)	30 (3.5)	89 (3.1)	40 (4.1)
라트비아	62 (4.3)	67 (4.5)	56 (4.6)	62 (4.3)	53 (3.9)	20 (3.8)	84 (3.2)	12 (3.3)
크로아티아	88 (2.5)	73 (3.1)	69 (4.0)	93 (2.8)	80 (3.5)	37 (3.7)	96 (2.2)	27 (3.6)
러시아	78 (3.9)	63 (4.1)	80 (3.1)	94 (1.7)	84 (2.7)	33 (3.2)	94 (1.8)	27 (3.5)
불가리아	84 (3.4)	77 (3.9)	56 (4.0)	87 (2.9)	48 (4.7)	24 (3.2)	98 (0.7)	33 (4.3)
멕시코	82 (2.9)	66 (3.7)	44 (3.6)	60 (3.6)	64 (3.8)	33 (3.4)	96 (1.5)	68 (3.9)
페루	87 (2.2)	63 (3.7)	38 (3.4)	49 (3.6)	69 (3.1)	36 (3.5)	94 (1.9)	54 (3.3)
콜롬비아	86 (3.4)	81 (3.6)	58 (4.4)	80 (3.9)	72 (3.8)	30 (4.6)	95 (1.7)	72 (3.8)
도미니카	61 (4.7)	65 (4.7)	47 (4.5)	59 (4.3)	64 (3.8)	17 (3.6)	77 (3.9)	38 (4.6)
ICCS 2016 평균	72 (0.8)	63 (0.9)	53 (0.9)	77 (0.7)	62 (0.9)	25 (0.7)	94 (0.4)	41 (0.8)

표 VI-11 교내 괴롭힘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 비율

(교사가 다음 상황이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학생이 타학생의 폭력행동을 알림	자기가 괴롭힘 피해 당했다고 알림	다른 교사가 학생간의 괴롭힘 발생 알림	타교사가 괴롭힘 피해 학생 돕는 학생 알림	학생이 교사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알림	학부모가 자녀의 괴롭힘 피해 알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알림	본인이 학생의 괴롭힘 행동 목격
노르웨이	14 (1.1)	6 (1.1)	8 (1.0)	4 (0.8)	1 (0.3)	2 (0.5)	2 (0.4)	3 (0.7)
덴마크	12 (2.0)	5 (0.9)	5 (0.9)	2 (0.7)	0	2 (0.8)	0	4 (1.1)
네덜란드	9 (1.2)	13 (1.3)	10 (1.2)	4 (0.6)	1 (0.3)	2 (0.5)	1 (0.4)	11 (1.4)
스웨덴	12 (1.3)	5 (0.8)	5 (0.6)	2 (0.4)	0	1 (0.2)	1 (0.3)	11 (1.0)
한국	10 (0.9)	7 (0.8)	4 (0.5)	3 (0.5)	1 (0.3)	1 (0.2)	2 (0.3)	4 (0.7)
대만	7 (0.7)	6 (0.7)	4 (0.6)	2 (0.4)	1 (0.3)	1 (0.2)	2 (0.4)	5 (0.7)
벨기에	11 (0.8)	16 (1.0)	17 (1.2)	6 (0.7)	2 (0.4)	3 (0.5)	3 (0.6)	12 (1.1)
핀란드	15 (1.2)	14 (1.1)	19 (1.4)	5 (0.5)	1 (0.4)	2 (0.3)	3 (0.3)	22 (1.1)
슬로베니아	13 (1.0)	12 (0.9)	8 (0.7)	3 (0.4)	0	1 (0.3)	3 (0.5)	5 (0.6)
이탈리아	6 (0.7)	4 (0.5)	4 (0.5)	1 (0.3)	0	2 (0.3)	1 (0.2)	1 (0.3)
에스토니아	17 (2.7)	16 (2.0)	14 (2.3)	7 (1.9)	3 (0.9)	3 (1.1)	5 (1.5)	13 (2.2)
몰타	11 (1.3)	13 (1.2)	11 (1.3)	4 (0.7)	1 (0.5)	3 (0.6)	5 (0.9)	16 (1.5)
리투아니아	12 (1.0)	12 (1.1)	8 (0.9)	5 (0.7)	2 (0.5)	2 (0.4)	6 (0.7)	24 (1.5)
칠레	14 (1.8)	8 (1.2)	6 (0.9)	4 (0.9)	2 (0.6)	4 (0.8)	3 (0.6)	7 (1.3)
라트비아	10 (1.6)	8 (1.6)	7 (1.3)	3 (0.9)	1 (0.2)	1 (0.7)	5 (1.0)	9 (1.4)
크로아티아	10 (0.9)	8 (0.8)	6 (0.7)	3 (0.5)	1 (0.3)	3 (0.6)	3 (0.5)	6 (0.7)
러시아	2 (0.5)	1 (0.2)	1 (0.3)	1 (0.9)	1 (0.4)	1 (0.4)	1 (0.4)	2 (0.4)
불가리아	18 (1.7)	13 (1.0)	8 (0.8)	6 (0.8)	1 (0.2)	2 (0.4)	0	7 (1.0)
멕시코	17 (1.2)	9 (1.0)	6 (0.7)	4 (0.5)	1 (0.3)	2 (0.4)	2 (0.4)	5 (0.6)
페루	15 (1.3)	9 (1.0)	5 (0.7)	5 (0.8)	2 (0.3)	3 (0.5)	1 (0.3)	5 (0.7)
콜롬비아	18 (1.4)	11 (1.1)	8 (1.1)	6 (1.1)	3 (0.5)	5 (0.9)	2 (0.5)	7 (1.0)
도미니카	22 (2.6)	11 (1.6)	6 (1.5)	5 (1.1)	1 (0.7)	4 (1.3)	1 (0.4)	4 (0.7)
ICCS 2016 평균	13 (0.3)	10 (0.3)	8 (0.2)	4 (0.2)	1 (0.1)	2 (0.1)	3 (0.1)	9 (0.2)

5.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의 실천기회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연계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긍정적인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시민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CS 2009 조사결과, 거의 모든 참가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시민참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 또한 2009년 결과에 따르면 이 주제에 관한 학교장과 교사의 응답 결과가 전반적으로 일치했다(Schulz et al., 2010). 같은 맥락에서 2016년 ICCS의 학교장 및 교사 설문지에서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다음 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교장 및 교사에게 학교 학생들이 외부단체 혹은 기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시민참여 활동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질문했다.

- (a) 지역사회 환경활동(예: 에너지 및 자원절약)
- (b) 인권 프로젝트
- (c) 소외계층 지원활동
- (d) 문화 활동 (예: 연극, 음악 등)
- (e) 지역 사회 내 다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활동 (예: 문화적 다양성 및 먹거리 장터의 홍보나 행사)
- (f) AIDS, 금연의 날 등 홍보를 위한 캠페인
- (g) 지역 사회 내 문화 유산 보호 활동
- (h) 정치 기관 방문 (예: 국회의사당, 청와대)
- (i) 스포츠 행사

조사결과, 참가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장에 따르면 지역 사회에서 최소한 시민 및 시민권 관련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표 VI-12). 조사대상국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참여기회가 높은 활동은 스포츠 행사 (88%), 문화 활동 (80%) 및 환경 보호 활동 (61%)이었으며, 가장 참여기회가 적었던 활동은

정치 기관 방문(20%)과 문화 유산 보호(38%) 활동이었다. 우리나라 학교장들의 응답결과, 한국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참여 활동의 기회는 스포츠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ICCS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에서 경험한 시민참여의 기회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교사의 응답결과 역시 학교장 응답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표 VI-13). 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문화 활동 (75%)과 스포츠 행사(73 %)였으며, 가장 적었던 활동은 정치 기관 방문(16%), 인권 프로젝트 (36%), 문화 유산 보호 활동 (39%), 불우이웃 돕기 활동(39%)이었다.

표 VI-12 학교수준에서 민주시민 활동에 참여할 기회 인식 현황

(지역사회에서 다음 활동에 모두 혹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학교장이 보고한 비율)

국가명	지역사회 환경활동	인권 프로젝트	소외계층 지원활동	문화활동 (연극/ 음악 등)	지역사회 다문화 및 문화교류 활동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 문화유산 보호활동	정치기관 방문	스포츠 행사
노르웨이	49 (4.4)	54 (4.4)	23 (3.6)	92 (2.5)	19 (3.5)	52 (3.9)	27 (3.9)	34 (4.5)	87 (3.0)
독일	37 (7.8)	41 (5.7)	40 (7.6)	69 (7.2)	17 (6.2)	49 (8.5)	5 (3.2)	11 (4.1)	85 (6.2)
덴마크	50 (3.8)	53 (3.9)	33 (3.8)	90 (2.4)	23 (3.2)	23 (3.2)	9 (2.3)	38 (4.1)	90 (2.3)
네덜란드	32 (4.4)	31 (4.7)	52 (5.4)	83 (3.8)	28 (5.0)	24 (4.6)	8 (2.4)	13 (2.9)	91 (3.0)
홍콩	43 (5.7)	14 (3.7)	27 (4.9)	77 (4.2)	12 (3.8)	36 (5.3)	9 (3.2)	9 (2.6)	91 (3.3)
스웨덴	61 (4.9)	64 (5.9)	41 (4.7)	95 (2.0)	27 (3.8)	44 (5.1)	21 (3.4)	33 (4.7)	70 (4.1)
한국	51 (5.2)	37 (5.9)	23 (4.8)	50 (5.0)	36 (4.6)	40 (5.9)	26 (4.6)	9 (3.0)	72 (5.1)
대만	59 (4.4)	32 (3.8)	48 (4.7)	56 (3.4)	44 (4.3)	51 (4.0)	31 (3.9)	15 (2.9)	93 (2.1)
벨기에	66 (4.8)	48 (4.1)	74 (3.5)	97 (1.4)	39 (4.2)	62 (4.1)	5 (2.0)	12 (2.9)	88 (3.0)
핀란드	71 (3.5)	34 (3.9)	56 (4.0)	91 (2.1)	35 (3.5)	95 (1.5)	30 (3.3)	11 (2.0)	92 (2.0)
슬로베니아	83 (3.2)	48 (4.7)	54 (4.8)	94 (1.8)	46 (4.2)	78 (3.9)	55 (4.3)	7 (2.4)	90 (2.8)
이탈리아	70 (3.7)	62 (3.5)	47 (3.9)	87 (2.6)	47 (4.1)	64 (4.0)	47 (4.1)	27 (3.7)	74 (4.3)
에스토니아	63 (5.4)	27 (5.0)	18 (4.3)	92 (2.9)	32 (5.6)	79 (4.6)	53 (5.2)	35 (5.4)	98 (1.1)
몰타	48 (0.4)	20 (0.2)	24 (0.3)	59 (0.5)	33 (0.4)	44 (0.4)	30 (0.3)	32 (0.4)	98 (0.1)
리투아니아	68 (3.9)	27 (3.9)	30 (3.8)	85 (2.8)	46 (3.6)	59 (4.6)	39 (3.7)	28 (3.5)	89 (2.9)
칠레	39 (4.6)	20 (3.1)	45 (4.6)	70 (4.2)	66 (4.1)	48 (3.9)	31 (3.8)	17 (3.2)	77 (3.5)
라트비아	67 (3.6)	31 (4.5)	28 (3.7)	95 (1.8)	61 (4.4)	60 (4.6)	56 (4.8)	31 (4.7)	99 (0.5)
크로아티아	76 (3.5)	65 (3.6)	44 (4.1)	84 (2.7)	43 (4.1)	40 (3.5)	51 (3.9)	17 (2.6)	88 (2.5)
러시아	68 (4.6)	48 (3.4)	49 (4.6)	94 (1.4)	95 (1.6)	48 (4.6)	62 (4.5)	17 (2.4)	99 (0.8)
불가리아	45 (4.5)	15 (3.3)	31 (4.2)	71 (3.6)	43 (4.2)	77 (3.3)	50 (4.3)	9 (2.6)	90 (2.7)
멕시코	73 (3.3)	65 (3.2)	44 (4.0)	60 (4.2)	53 (3.7)	67 (3.4)	55 (3.9)	9 (2.0)	84 (2.7)
페루	62 (3.3)	44 (3.5)	41 (3.3)	70 (3.1)	62 (3.4)	62 (3.5)	38 (3.6)	14 (2.3)	91 (2.3)
콜롬비아	56 (4.4)	46 (4.2)	30 (3.8)	52 (4.2)	42 (3.8)	53 (4.1)	41 (4.2)	5 (1.5)	84 (3.4)
도미니카	76 (3.9)	60 (4.4)	49 (4.9)	66 (4.6)	67 (4.6)	69 (4.0)	66 (4.6)	25 (4.2)	84 (3.1)
ICCS 2016 평균	61 (0.9)	43 (0.9)	41 (0.9)	80 (0.6)	45 (0.9)	57 (0.8)	38 (0.8)	20 (0.7)	88 (0.6)

표 VI-13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학생들과 함께 다음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

국가명	지역사회 환경활동	인권 프로젝트	소외계층 지원활동	문화활동 (연극/ 음악등)	지역사회 다문화 및 문화교류 활동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 문화유산 보호활동	정치기관 방문	스포츠 행사
노르웨이	35 (1.8)	37 (1.9)	26 (1.3)	83 (1.2)	16 (2.3)	43 (2.6)	32 (2.0)	23 (1.6)	72 (1.7)
덴마크	39 (3.5)	32 (3.9)	16 (2.4)	73 (3.3)	15 (2.4)	16 (2.1)	9 (2.5)	22 (3.1)	60 (3.4)
네덜란드	20 (1.5)	15 (1.3)	39 (2.4)	60 (2.0)	16 (1.2)	19 (1.7)	9 (1.0)	8 (0.8)	61 (1.8)
스웨덴	39 (1.7)	46 (2.0)	33 (1.7)	80 (1.9)	29 (2.0)	33 (1.9)	15 (1.2)	20 (1.8)	58 (1.9)
한국	57 (2.2)	34 (1.8)	41 (1.6)	75 (1.6)	36 (1.6)	48 (1.7)	32 (1.6)	14 (1.3)	74 (1.5)
대만	41 (1.5)	19 (1.1)	33 (1.2)	62 (1.3)	33 (1.3)	40 (1.3)	13 (0.9)	7 (0.8)	70 (1.3)
벨기에	50 (2.1)	31 (1.8)	54 (2.2)	84 (1.6)	35 (1.9)	47 (1.9)	9 (0.9)	10 (1.3)	76 (1.3)
핀란드	45 (1.6)	15 (1.4)	31 (1.3)	56 (1.6)	17 (1.2)	61 (1.8)	14 (1.1)	2 (0.3)	48 (2.1)
슬로베니아	70 (1.6)	39 (1.3)	49 (1.4)	87 (1.0)	40 (1.3)	56 (1.3)	48 (1.8)	14 (1.3)	82 (1.1)
이탈리아	54 (2.0)	48 (1.7)	44 (1.9)	84 (1.4)	38 (1.9)	62 (1.4)	41 (1.6)	22 (1.5)	65 (1.6)
에스토니아	60 (3.0)	12 (1.6)	14 (2.1)	91 (1.7)	44 (3.5)	72 (3.5)	67 (3.0)	35 (4.7)	95 (1.0)
몰타	58 (2.1)	27 (1.7)	36 (1.8)	63 (2.0)	32 (1.8)	33 (1.7)	35 (2.1)	32 (1.8)	74 (1.7)
리투아니아	68 (1.8)	36 (1.5)	42 (1.9)	86 (1.1)	54 (1.6)	62 (1.6)	54 (1.4)	31 (2.1)	84 (1.3)
칠레	43 (2.3)	21 (1.8)	45 (2.3)	69 (1.7)	58 (1.8)	51 (2.4)	34 (2.3)	18 (1.9)	70 (1.7)
라트비아	46 (2.5)	17 (1.3)	17 (1.2)	72 (1.5)	48 (1.6)	39 (1.5)	43 (1.4)	14 (1.2)	72 (1.6)
크로아티아	62 (1.9)	43 (1.6)	30 (1.5)	65 (1.7)	38 (2.1)	33 (1.7)	52 (1.6)	10 (1.0)	63 (1.9)
러시아	74 (2.9)	39 (3.0)	52 (3.9)	75 (3.1)	76 (3.1)	55 (2.9)	71 (3.6)	21 (2.7)	82 (2.8)
불가리아	54 (2.8)	15 (1.3)	36 (2.0)	69 (2.8)	51 (1.9)	72 (2.2)	52 (2.3)	8 (1.9)	79 (1.5)
멕시코	76 (1.5)	63 (1.6)	41 (2.1)	72 (1.2)	58 (2.0)	59 (2.2)	50 (1.9)	8 (0.8)	76 (1.5)
페루	70 (2.2)	40 (1.8)	48 (1.9)	77 (1.6)	74 (2.2)	67 (1.8)	56 (1.8)	11 (1.1)	91 (0.8)
콜롬비아	72 (2.4)	54 (3.0)	41 (2.0)	79 (1.6)	63 (2.2)	75 (2.1)	58 (2.2)	10 (1.6)	85 (1.4)
도미니카	84 (3.0)	62 (3.7)	52 (4.5)	80 (3.1)	68 (3.1)	73 (3.6)	66 (3.1)	40 (3.9)	80 (3.2)
ICCS 2016 평균	57 (0.5)	36 (0.5)	39 (0.5)	75 (0.4)	44 (0.5)	53 (0.5)	39 (0.4)	16 (0.4)	73 (0.4)

6.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내 활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중요성의 인식은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지구촌의 한명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시민역량의 일부다. 이 영역의 시민역량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의 보호, 경제적 생존 및 정당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판단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필요하다(UNESCO, 2014, p.12).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이 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Huckle, 2008). 이런 맥락에서 ICCS 2016 학교 설문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회에 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은 다음 5개이다.

- (a) 쓰레기 분리수거
- (b) 쓰레기 감량(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점심 장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 (c) 환경 친화적 물품구입 (예: 재생 프린트용지, 생분해성 제품)
- (d) 에너지 절약 실천 (예: 절전용 전등사용, 사용 후나 일과 후 컴퓨터 전원 끄기, 절전용 컴퓨터/모니터/프린터/복사기/가전제품 사용)
- (e) 학생 대상 친환경 활동 장려 포스터

표 VI-14는 학교장이 이들 질문에 대해 ‘보통 이행’ 혹은 ‘많이 이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해당학교 학생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참가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에너지 절약(81%)과 쓰레기 분리수거(74%)였다. 또한 친환경 활동 장려 포스터 게시 역시 많았다(74%). 쓰레기 감량(67%) 및 환경 친화적 물품 구매(60%)도 비교적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국가간

차이도 뚜렷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대만, 한국,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등에서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 높았으며, 쓰레기 감량이나 환경친화적 물품구입 역시 이들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도미니카 공화국, 불가리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친환경포스터 붙이기의 비율이 ICCS 평균보다 뚜렷이 높았다.

교사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교내 신문이나 잡지에 환경문제에 관한 투고, 환경문제 관련한 청원서 서명, SNS 활동, 물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교육, 학교 외부 환경정화 활동, 지역사회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활동 등에 참여했는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는 표 VI-15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국가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물과 에너지 소비 관련 교육(각각 46%, 48%)이었다. 반면에 청원서 서명(8%), 잡지나 신문 투고(12%), SNS 활동(15%)의 비율은 낮았다. 이들 항목에 대한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페루의 교사 응답은 ICCS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던 반면, 벨기에, 몰타 및 스웨덴의 교사들은 매우 낮았다. 한국은 SNS활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학교에서의 환경보호 활동 실천 현황

(학교장이 학교단위에서 다음 환경친화 활동을 많이 혹은 보통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명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		환경친화적 물품구입		에너지 절약실천		학생대상 친환경 포스터	
노르웨이	78	(3.5)	63	(4.3)	73	(3.9)	74	(4.0)	40	(4.1)
독일	67	(6.9)	61	(6.9)	55	(6.3)	66	(6.6)	36	(7.5)
덴마크	62	(3.9)	38	(3.5)	66	(3.4)	94	(2.0)	57	(3.6)
네덜란드	51	(5.3)	26	(4.7)	37	(5.1)	61	(4.8)	27	(4.7)
홍콩	84	(4.0)	85	(4.0)	71	(5.1)	84	(4.3)	76	(4.4)
스웨덴	78	(3.8)	81	(3.6)	77	(4.1)	66	(5.9)	39	(5.4)
대한민국	99	(0.9)	94	(3.2)	95	(2.0)	99	(1.2)	86	(4.0)
대만	100		99	(0.8)	99	(0.9)	100		98	(1.2)
벨기에	95	(1.9)	71	(4.1)	61	(4.1)	77	(3.6)	61	(4.4)
핀란드	96	(1.5)	96	(1.4)	66	(3.7)	79	(2.9)	67	(3.3)
슬로베니아	99	(0.5)	99	(0.5)	88	(3.0)	99	(0.5)	95	(2.2)
이탈리아	88	(2.6)	57	(4.0)	51	(4.6)	64	(3.8)	66	(3.9)
에스토니아	55	(4.4)	70	(4.8)	40	(5.5)	85	(3.9)	75	(4.7)
몰타	84	(0.3)	78	(0.4)	75	(0.4)	92	(0.3)	91	(0.4)
리투아니아	86	(2.6)	82	(3.4)	46	(4.4)	98	(1.4)	95	(2.1)
칠레	30	(4.2)	42	(4.6)	34	(4.1)	54	(4.4)	63	(4.4)
라트비아	66	(4.8)	55	(4.6)	59	(4.3)	87	(3.7)	85	(4.0)
크로아티아	88	(2.3)	71	(3.3)	53	(3.3)	89	(2.3)	94	(1.9)
러시아	51	(4.8)	44	(4.5)	35	(3.7)	91	(2.7)	80	(2.4)
불가리아	65	(3.7)	62	(3.7)	58	(4.6)	80	(2.9)	87	(3.3)
멕시코	59	(4.0)	72	(3.5)	65	(3.8)	74	(3.3)	89	(2.5)
페루	68	(3.2)	64	(3.5)	51	(3.9)	76	(2.8)	74	(3.0)
콜롬비아	72	(4.1)	54	(5.1)	58	(4.4)	71	(3.7)	86	(2.9)
도미니카	72	(4.1)	75	(4.0)	67	(4.4)	91	(2.6)	91	(2.8)
ICCS 2016 평균	74	(0.8)	67	(0.8)	60	(0.9)	81	(0.7)	74	(0.7)

표 VI-15 교내환경보호 활동 학생과 교사 참여 현황

(해당 학년도에 학생들과 함께 다음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

국가명	환경운동관련 신문잡지 두고		환경문제 관련 청원서 서명		환경운동 지지 SNS활동		물낭비의 환경 영향력에 대한 학생교육		에너지 낭비의 환경 영향력 학생교육		학교 외부 정화활동		지역사회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	
노르웨이	1	(0.3)	1	(0.6)	3	(0.7)	15	(1.3)	26	(1.2)	49	(1.9)	37	(1.5)
덴마크	2	(0.8)	1	(0.3)	3	(0.9)	24	(2.8)	31	(2.8)	14	(3.1)	14	(2.0)
네덜란드	2	(0.5)	1	(0.3)	3	(0.4)	14	(0.8)	20	(1.2)	9	(1.1)	7	(1.0)
스웨덴	5	(0.7)	1	(0.2)	2	(0.4)	24	(1.3)	29	(1.6)	7	(1.0)	14	(1.2)
대한민국	27	(1.5)	7	(1.0)	16	(1.2)	51	(1.6)	70	(1.3)	52	(2.1)	40	(1.4)
대만	8	(0.7)	4	(0.5)	18	(1.0)	38	(1.4)	43	(1.4)	22	(1.7)	13	(1.0)
벨기에	2	(0.4)	2	(0.4)	6	(0.8)	28	(1.5)	40	(1.7)	9	(1.7)	25	(1.7)
핀란드	1	(0.2)	1	(0.3)	2	(0.3)	37	(1.2)	50	(1.2)	20	(1.3)	31	(1.5)
슬로베니아	9	(0.8)	3	(0.4)	13	(1.1)	44	(1.5)	48	(1.4)	29	(1.6)	61	(1.6)
이탈리아	5	(0.6)	3	(0.4)	7	(0.5)	54	(1.4)	59	(1.3)	20	(1.3)	53	(1.6)
에스토니아	2	(0.7)	1	(0.6)	7	(1.5)	28	(2.7)	37	(2.8)	17	(2.2)	13	(2.8)
몰타	9	(1.1)	4	(0.8)	12	(1.3)	37	(2.1)	37	(2.1)	9	(1.4)	30	(1.9)
리투아니아	5	(0.6)	6	(0.6)	18	(1.0)	38	(1.1)	41	(1.2)	53	(1.4)	51	(1.6)
칠레	12	(1.4)	8	(1.2)	16	(1.5)	46	(2.1)	47	(2.1)	26	(1.8)	29	(2.1)
라트비아	4	(0.6)	2	(0.5)	13	(1.2)	21	(1.1)	27	(1.1)	32	(1.5)	29	(1.4)
크로아티아	8	(0.7)	5	(0.7)	15	(1.1)	57	(1.2)	61	(1.7)	40	(2.2)	49	(2.0)
러시아	16	(3.2)	9	(1.8)	21	(2.9)	67	(2.8)	67	(3.0)	88	(2.2)	45	(4.2)
불가리아	4	(0.7)	2	(0.4)	22	(1.9)	44	(2.0)	47	(1.8)	53	(2.5)	38	(2.7)
멕시코	24	(1.3)	12	(0.9)	27	(1.7)	72	(1.4)	65	(1.7)	39	(2.0)	54	(1.6)
페루	46	(1.5)	26	(1.5)	22	(1.5)	69	(1.8)	61	(1.7)	55	(2.0)	53	(2.1)
콜롬비아	22	(2.0)	16	(1.5)	23	(1.9)	71	(2.2)	62	(2.6)	61	(2.5)	69	(1.8)
도미니카	42	(2.9)	45	(3.8)	38	(2.9)	83	(2.2)	72	(2.5)	68	(3.4)	64	(3.7)
ICCS 2016 평균	12	(0.3)	8	(0.3)	15	(0.3)	46	(0.4)	48	(0.4)	35	(0.5)	41	(0.5)

7. 교실내 시민교육 실태 및 교사의 준비수준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조사 참여국의 국가 단위에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맥락 조사결과를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실제 교실에서 시행된 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이 시민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들이 교실 내 시민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에 관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a)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
- (b) 한국에서 법률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방법
- (c)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예: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d) 지역 사회에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 (e)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법
- (f)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이슈 및 사건
- (g)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0으로 매우 높았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원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문항반응이론(IRT)을 기초로 각 국가맥락에 맞춰 조정했다. 최종 산출한 응답 결과는 표 VI-16에 제시했다. 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시민 문제에 대한보고 된 학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참여국 청소년들이 가장 잘 배웠다고 응답한 항목은 (a)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81%)과 (c) 환경보호 방법(64%) 그리고 각 국가에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법(61%) 이었다.

단, 한국 학교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시민교육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시민교육의 수준과 ICCS 평균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투표 교육은 6%p,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은 15%p, 시민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13%p, 외국의 정치적 문제나 사건에 대한 교육은 6%p, 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15%p 나 낮았다.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았던 항목은 환경보호(4%p) 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실내 시민교육이 실제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사회적 관심의 수준,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교육 경험의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치사회적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시민교육경험 점수의 차이는 3점 내외였으며, 시민지식 수준이 B이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 역시 3점 정도였다. 기대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2점으로 나타났다.

교실 내 시민교육에 관한 교사대상 설문은 실제 시민교육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은 다음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a) 학교 밖에서 정보 수집 관련 프로젝트(예: 이웃 인터뷰, 소규모 조사) 수행
- (b) 서로 다른 주제/사안에 대한 소집단 활동
- (c) 역할극
- (d) 교사의 수업 내용 필기
- (e) 현재 사안에 대한 토론
- (f) 웹(예: 위키, 온라인 신문) 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구나 분석
- (g) 학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함
- (h) 학생들이 다음 수업을 위한 주제나 사안을 제안함

교실 내 시민교육방식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VI-18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역시 교과서로 공부

(67%), 토론수업(74%), 교사 수업내용 필기(58%) 였다. 주제별 소집단 활동도 대만(11%)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었다(52%).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교수기법은 프로젝트 작업(16%), 역할극(26%), 학생들이 직접 수업주제나 이슈를 제안(18%) 하는 방법이었다.

이 항목에서 한국은 교과서로 공부(+12%p), 학생들의 주제제안(12%p)를 제외하고는 모두 ICCS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최근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은 ICCS평균보다 38%p 나 낮았으며, 소그룹활동 역시 21%p 낮았다. 역할극(-14%p), 인터넷 활용 정보분석(-12%p), 수업내용 필기(-12%p)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한국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시의성과 역동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16 교실 내 시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수준

(아래 내용에 대해 보통 혹은 상당히 잘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

국가명	지방/국민 투표하는 법	법이 만들어 지고 개정 되는 방법	환경 보호방법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국가가 시민권 보호하는 방법	다른 나라의 정치적 문제나 사건	경제의 작동원리	시민교육 경험 전체
노르웨이	65 (0.9)	42 (1.2)	69 (1.0)	45 (1.0)	46 (1.0)	56 (1.0)	47 (1.2)	48 (0.2)
독일	63 (3.1)	64 (2.7)	70 (2.2)	42 (2.2)	52 (2.3)	73 (1.8)	67 (2.2)	50 (0.7)
덴마크	61 (1.2)	73 (1.2)	61 (1.2)	42 (1.0)	56 (1.0)	67 (1.1)	68 (1.2)	49 (0.2)
네덜란드	44 (1.2)	37 (1.5)	66 (1.3)	35 (1.2)	34 (1.2)	53 (1.3)	64 (2.1)	44 (0.3)
홍콩	52 (1.6)	58 (1.6)	80 (1.0)	59 (0.9)	64 (1.3)	48 (1.1)	48 (1.3)	48 (0.3)
스웨덴	80 (1.5)	82 (2.0)	84 (1.0)	56 (1.8)	61 (2.2)	75 (1.7)	59 (1.8)	53 (0.5)
한국	58 (1.2)	44 (1.2)	85 (1.1)	55 (1.3)	48 (1.1)	46 (1.1)	42 (1.1)	47 (0.3)
대만	88 (0.7)	86 (0.7)	90 (0.6)	71 (0.9)	86 (0.6)	64 (1.0)	59 (1.0)	56 (0.3)
벨기에	50 (1.6)	41 (1.7)	85 (0.8)	39 (0.9)	36 (1.2)	50 (1.2)	66 (2.1)	46 (0.3)
핀란드	57 (0.9)	40 (1.0)	85 (0.8)	41 (1.0)	45 (1.3)	42 (1.1)	31 (1.0)	45 (0.2)
슬로베니아	76 (1.5)	75 (1.2)	76 (0.9)	60 (1.4)	70 (1.3)	58 (1.3)	68 (1.5)	52 (0.3)
이탈리아	70 (1.9)	68 (1.6)	85 (0.9)	54 (1.2)	71 (1.6)	64 (1.1)	70 (0.9)	52 (0.3)
에스토니아	41 (1.4)	48 (1.6)	72 (1.4)	51 (1.1)	53 (1.6)	44 (1.4)	41 (1.9)	46 (0.3)
몰타	55 (0.8)	46 (0.9)	81 (0.7)	51 (0.8)	63 (0.8)	44 (0.8)	50 (0.9)	48 (0.1)
리투아니아	44 (1.4)	46 (1.6)	84 (1.0)	41 (1.2)	46 (1.5)	45 (1.0)	36 (1.0)	46 (0.3)
칠레	71 (1.0)	64 (1.1)	81 (0.8)	63 (0.9)	64 (1.0)	49 (0.9)	60 (0.9)	51 (0.3)
라트비아	44 (1.3)	47 (1.3)	84 (0.9)	43 (1.2)	43 (1.2)	43 (1.2)	51 (1.6)	47 (0.3)
크로아티아	69 (1.6)	61 (1.5)	91 (0.7)	60 (1.3)	67 (1.4)	52 (1.5)	36 (1.4)	50 (0.3)
러시아	55 (1.6)	62 (1.4)	81 (0.9)	50 (1.1)	74 (1.2)	48 (1.1)	63 (1.2)	50 (0.3)
불가리아	64 (1.1)	53 (1.3)	84 (1.0)	57 (1.2)	55 (1.3)	40 (1.2)	45 (1.1)	48 (0.2)
멕시코	72 (1.0)	69 (0.8)	85 (0.6)	73 (0.9)	78 (0.8)	48 (0.8)	68 (0.9)	53 (0.2)
페루	81 (0.8)	75 (0.9)	86 (0.7)	71 (0.9)	79 (0.9)	52 (1.2)	71 (0.8)	55 (0.3)
콜롬비아	78 (1.4)	58 (1.2)	92 (0.5)	74 (0.9)	83 (0.8)	47 (1.4)	73 (1.0)	54 (0.2)
도미니카	73 (1.2)	69 (1.0)	84 (0.8)	74 (1.0)	81 (0.8)	60 (1.1)	73 (1.0)	56 (0.3)
ICCS 2016 평균	64 (0.3)	59 (0.3)	81 (0.2)	55 (0.2)	61 (0.3)	52 (0.3)	57 (0.3)	50 (0.1)

표 VI-17 정치관심/기대교육수준/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이 인식한 시민교육 경험

국가명	시민적관심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수준	
	거의/전혀 관심없음	매우/대체로 관심있음	4년제 대학 미만	4년제 대학 이상	B 레벨 미만	B 레벨 이상
노르웨이	46 (0.2)	50 (0.3)	47 (0.2)	48 (0.2)	46 (0.4)	48 (0.2)
덴마크	48 (0.2)	51 (0.2)	49 (0.2)	51 (0.3)	46 (0.5)	50 (0.2)
네덜란드	44 (0.3)	48 (0.5)	44 (0.3)	44 (0.4)	44 (0.6)	45 (0.3)
홍콩	46 (0.3)	51 (0.3)	46 (0.4)	49 (0.3)	45 (0.4)	50 (0.3)
스웨덴	51 (0.6)	55 (0.4)	51 (0.5)	53 (0.6)	50 (1.3)	53 (0.4)
한국	45 (0.4)	50 (0.3)	46 (0.5)	48 (0.3)	44 (0.8)	48 (0.3)
대만	55 (0.3)	58 (0.3)	53 (0.4)	57 (0.3)	49 (0.8)	57 (0.3)
벨기에	46 (0.3)	48 (0.4)	46 (0.5)	47 (0.3)	46 (0.5)	46 (0.3)
핀란드	44 (0.2)	48 (0.3)	45 (0.2)	46 (0.3)	45 (0.6)	45 (0.2)
슬로베니아	51 (0.3)	54 (0.4)	51 (0.3)	52 (0.4)	50 (0.4)	52 (0.3)
이탈리아	50 (0.3)	54 (0.4)	51 (0.3)	53 (0.3)	50 (0.4)	52 (0.3)
에스토니아	45 (0.3)	48 (0.4)	46 (0.4)	47 (0.4)	44 (0.6)	47 (0.3)
몰타	47 (0.2)	50 (0.2)	48 (0.2)	48 (0.2)	48 (0.3)	48 (0.2)
리투아니아	45 (0.3)	48 (0.4)	46 (0.3)	47 (0.4)	46 (0.4)	46 (0.3)
칠레	50 (0.3)	55 (0.4)	49 (0.4)	52 (0.3)	50 (0.3)	53 (0.4)
라트비아	46 (0.3)	49 (0.5)	47 (0.3)	47 (0.4)	46 (0.4)	47 (0.3)
크로아티아	49 (0.3)	52 (0.4)	50 (0.4)	50 (0.4)	49 (0.4)	51 (0.4)
러시아	48 (0.4)	53 (0.4)	50 (0.3)	51 (0.4)	49 (0.6)	51 (0.4)
불가리아	47 (0.3)	50 (0.4)	47 (0.4)	48 (0.3)	48 (0.4)	48 (0.3)
멕시코	52 (0.2)	56 (0.3)	51 (0.3)	54 (0.2)	52 (0.3)	55 (0.3)
페루	53 (0.3)	56 (0.3)	53 (0.3)	55 (0.3)	53 (0.2)	57 (0.4)
콜롬비아	53 (0.3)	57 (0.3)	52 (0.5)	54 (0.2)	53 (0.3)	55 (0.3)
도미니카	55 (0.3)	59 (0.4)	56 (0.4)	57 (0.4)	56 (0.3)	60 (0.7)
ICCS 2016 평균	49 (0.1)	52 (0.1)	49 (0.1)	51 (0.1)	48 (0.1)	51 (0.1)

표 VI-18 교실에서 교사가 시민교육에 사용하는 교수방법

(시민교육 관련 과목 수업 중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자주/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 %)

국가명	학교밖 정보수집 프로젝트 수행	서로 다른 주제/사안 소집단 활동	역할극	교사의 수업내용 필기	현재 사안에 대한 토론	웹으로 얻은 정보 연구분석	교과서로 공부	학생들이 다음 수업 주제/이슈 제안
노르웨이	10 (2.4)	59 (4.0)	5 (1.0)	61 (3.6)	60 (3.2)	34 (3.0)	75 (3.1)	5 (0.9)
덴마크	15 (3.9)	86 (4.7)	6 (2.4)	63 (5.9)	74 (6.2)	55 (6.4)	50 (6.8)	10 (4.4)
네덜란드	3 (1.0)	33 (2.7)	4 (1.1)	59 (3.1)	47 (3.0)	38 (2.8)	89 (2.1)	4 (1.2)
스웨덴	6 (2.0)	57 (4.6)	8 (2.0)	60 (4.1)	89 (2.4)	47 (3.8)	62 (4.1)	17 (2.7)
한국	12 (1.9)	31 (4.1)	12 (2.8)	46 (4.0)	36 (3.7)	31 (3.4)	79 (3.6)	30 (3.0)
대만	4 (1.7)	11 (3.1)	11 (2.9)	86 (2.8)	62 (4.0)	18 (2.8)	84 (3.1)	16 (3.5)
벨기에	5 (0.9)	36 (2.1)	16 (1.6)	66 (2.4)	62 (1.6)	37 (1.8)	46 (2.1)	5 (0.9)
핀란드	6 (1.4)	50 (3.1)	5 (1.1)	42 (2.6)	67 (1.9)	33 (2.3)	69 (2.3)	13 (1.9)
슬로베니아	10 (1.5)	36 (2.9)	33 (2.2)	49 (2.3)	74 (2.0)	35 (2.7)	58 (2.1)	11 (1.4)
이탈리아	9 (1.5)	38 (2.6)	11 (1.2)	56 (2.4)	87 (1.6)	65 (2.3)	83 (2.1)	26 (2.0)
에스토니아	6 (3.2)	35 (6.8)	7 (3.7)	40 (6.6)	55 (6.0)	49 (6.3)	78 (5.2)	5 (3.5)
몰타	9 (2.3)	57 (4.0)	39 (4.1)	26 (3.4)	83 (4.3)	32 (4.5)	24 (4.5)	9 (2.1)
리투아니아	8 (1.4)	47 (4.2)	15 (3.4)	51 (4.3)	87 (2.5)	51 (4.4)	85 (2.3)	19 (2.7)
칠레	14 (2.8)	55 (3.2)	22 (3.0)	50 (3.1)	54 (4.6)	38 (3.2)	63 (3.4)	23 (3.4)
라트비아	22 (3.0)	59 (3.9)	27 (4.3)	55 (4.3)	76 (3.0)	45 (4.0)	65 (3.7)	17 (3.6)
크로아티아	10 (1.1)	41 (1.3)	25 (1.2)	42 (1.4)	69 (1.6)	41 (1.3)	49 (1.3)	19 (1.3)
러시아	26 (5.6)	53 (7.7)	28 (6.1)	54 (6.3)	85 (3.9)	46 (5.7)	73 (7.2)	20 (3.9)
불가리아	15 (4.3)	34 (4.5)	28 (4.8)	70 (4.7)	63 (5.1)	28 (5.2)	86 (3.3)	9 (2.7)
멕시코	52 (5.1)	88 (1.8)	52 (3.3)	74 (5.3)	87 (3.8)	57 (5.1)	89 (2.3)	19 (3.3)
페루	32 (4.7)	64 (4.5)	55 (5.1)	78 (3.6)	78 (4.5)	43 (3.2)	77 (3.5)	24 (3.5)
콜롬비아	18 (1.9)	69 (2.5)	46 (2.4)	47 (3.1)	72 (2.0)	56 (2.9)	43 (2.9)	25 (3.0)
도미니카	41 (5.6)	84 (4.3)	44 (4.8)	79 (4.4)	88 (3.1)	71 (4.5)	84 (3.8)	41 (5.8)
ICCS 2016 평균	16 (0.7)	52 (0.8)	26 (0.8)	58 (0.9)	74 (0.8)	43 (0.9)	67 (0.7)	18 (0.7)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준비수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OECD, 2009, 2014; Torney-Purta, Richardson, & Barber, 2005). 이런 맥락에서 2009년도 ICCS에서는 시민교육 담당 교사들이 특정한 시민교육 관련 주제와 기술의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했다. 2009년도 조사결과, 교사들은 ‘인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잘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산업, 사법체계 등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 이에 ICCS 2016에서도 교사 대상 설문에 유사한 항목을 포함했다. 이 문항의 총 11개(유럽 국가의 경우는 12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인권
- (b) 투표 및 선거
- (c) 글로벌 공동체와 국제 기구
- (d) 환경 및 환경 지속성
- (e) 이민 및 이주
- (f) 남녀의 균등한 기회
- (g) 시민의 권리 및 책임
- (h) 헌법 및 정치 체제
- (i) 올바른 인터넷 사용 (예: 개인정보, 출처의 신뢰도, 소셜 미디어)
- (j)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 (k) 갈등 해결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위에 제시된 시민교육의 주제들에 대해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시민권과 책임’(90%), 남녀의 기회평등(90%)이었다. 반면에 ‘국제 공동체와 국제기구’(67%), ‘헌법과 정치 제도’(73%)에 대한 자신감은 가장 낮았다. 또한 ‘국제이민 및 이주’

주제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은 국가 간 편차가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시민교육 담당교사들이 전통적인 시민교육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된 반면, 최근 각국에서 부각되는 새로운 이슈들을 다룰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자신감은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평균대비 교사들의 자신감이 가장 낮은 항목은 ‘국제이민과 이주’로서 전체평균보다 44%p 나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 공동체와 국제기구(-24%p), 인권(-23%p), 환경과 지속가능성(-19%p), 헌법과 정치제도(-19%p), 투표와 선거(-15%p), 남녀의 기회평등(-13%p), 시민권과 책임(-12%p),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12%p), 갈등해결(-7%p)순이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신감이 국제평균보다 높았던 항목은 책임있는 인터넷 사용(2%p)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민교육 담당 교사들의 실질적인 자신감과 충분한 기술과 정보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갈수록 다문화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국제이민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질적 준비는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I-19(1) 시민교육 주제 및 기술별로 교사로서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

국가명	인권	투표와 선거	국제 공동체와 국제기구	환경과 지속가능성	국제이민과 이주	남녀의 기회 평등
노르웨이	95 (1.3)	96 (0.8)	80 (3.7)	80 (3.6)	94 (2.0)	94 (1.4)
덴마크	95 (1.9)	97 (1.6)	81 (5.8)	77 (4.6)	86 (5.1)	91 (4.1)
네덜란드	75 (2.7)	69 (2.8)	63 (3.0)	77 (2.5)	73 (2.9)	85 (2.1)
스웨덴	98 (1.0)	94 (1.9)	94 (1.7)	92 (2.2)	95 (1.4)	99 (0.8)
한국	64 (3.9)	66 (4.1)	43 (3.9)	65 (3.6)	32 (3.4)	77 (4.5)
대만	86 (2.7)	96 (1.7)	84 (2.3)	88 (2.2)	44 (5.1)	95 (1.2)
벨기에	68 (2.5)	64 (2.1)	56 (2.3)	80 (1.6)	68 (1.9)	80 (1.6)
핀란드	85 (1.6)	60 (1.9)	63 (2.9)	84 (2.1)	70 (2.0)	93 (1.1)
슬로베니아	87 (1.6)	67 (2.2)	52 (1.9)	73 (1.8)	61 (2.4)	80 (1.8)
이탈리아	96 (0.8)	80 (2.3)	81 (1.9)	87 (1.6)	94 (1.1)	93 (1.3)
에스토니아	62 (7.5)	64 (5.2)	49 (6.6)	84 (4.8)	56 (7.4)	51 (9.3)
몰타	88 (2.6)	72 (4.4)	61 (4.7)	86 (2.9)	79 (4.4)	94 (1.8)
리투아니아	89 (2.4)	89 (2.2)	87 (3.5)	84 (2.6)	94 (1.8)	88 (2.5)
칠레	84 (2.3)	77 (4.0)	56 (4.6)	72 (3.2)	66 (3.0)	87 (2.1)
라트비아	88 (3.8)	91 (1.9)	67 (3.4)	89 (2.0)	68 (4.6)	89 (2.7)
크로아티아	81 (1.2)	67 (1.5)	50 (1.4)	78 (1.2)	52 (1.6)	79 (1.1)
러시아	97 (1.7)	92 (4.2)	86 (4.1)	96 (2.0)	79 (5.7)	99 (0.6)
불가리아	90 (3.1)	92 (2.4)	82 (2.5)	83 (3.4)	82 (3.8)	88 (2.8)
멕시코	89 (2.4)	81 (3.7)	52 (4.3)	87 (2.8)	87 (2.0)	95 (1.7)
페루	88 (2.4)	92 (1.7)	66 (3.9)	86 (3.1)	86 (2.6)	96 (1.3)
콜롬비아	77 (2.9)	73 (2.9)	52 (3.2)	81 (3.0)	62 (2.8)	85 (2.7)
도미니카	93 (3.3)	86 (4.3)	64 (5.1)	92 (2.3)	92 (2.5)	97 (1.6)
ICCS 2016 평균	87 (0.6)	81 (0.6)	67 (0.8)	84 (0.6)	76 (0.7)	90 (0.4)

표 VI-19(2) 시민교육 주제 및 기술별로 교사로서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

국가명	시민권과 책임	헌법과 정치 제도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 (사생활 보호 등)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갈등 해결	유럽연합
노르웨이	93 (1.1)	92 (1.4)	90 (1.7)	95 (0.9)	85 (1.7)	70 (3.7)
덴마크	94 (4.0)	95 (3.8)	70 (6.4)	93 (4.1)	88 (3.1)	76 (5.3)
네덜란드	73 (2.7)	56 (2.8)	90 (1.8)	96 (1.1)	78 (2.4)	60 (2.2)
스웨덴	98 (1.2)	93 (2.1)	93 (2.0)	95 (1.8)	91 (2.5)	79 (3.4)
한국	78 (3.3)	54 (3.3)	81 (3.6)	77 (3.5)	80 (3.9)	-
대만	96 (1.7)	94 (1.9)	84 (2.6)	85 (2.7)	87 (2.5)	-
벨기에	68 (1.7)	43 (2.1)	83 (1.7)	92 (1.2)	79 (1.7)	48 (2.2)
핀란드	86 (1.4)	47 (1.8)	82 (1.8)	94 (1.1)	83 (2.0)	51 (2.4)
슬로베니아	86 (1.9)	65 (2.2)	80 (1.8)	92 (1.4)	87 (1.6)	67 (1.9)
이탈리아	98 (0.8)	90 (1.5)	72 (2.3)	91 (1.1)	83 (1.9)	91 (1.7)
에스토니아	79 (5.4)	57 (7.0)	70 (7.6)	72 (8.1)	69 (5.1)	73 (5.8)
몰타	92 (3.0)	56 (4.6)	87 (3.4)	84 (3.0)	83 (3.0)	57 (5.2)
리투아니아	94 (1.3)	84 (2.6)	80 (2.8)	82 (2.8)	89 (2.0)	98 (0.7)
칠레	88 (2.3)	65 (3.5)	75 (3.7)	86 (2.6)	81 (3.1)	-
라트비아	94 (1.9)	70 (4.7)	87 (2.9)	93 (1.3)	93 (2.3)	82 (3.3)
크로아티아	78 (1.5)	53 (1.3)	82 (1.4)	87 (1.0)	88 (1.0)	58 (1.2)
러시아	99 (0.4)	99 (0.5)	79 (5.0)	77 (6.0)	94 (2.4)	-
불가리아	89 (2.9)	85 (3.2)	80 (3.2)	88 (3.0)	88 (2.7)	96 (1.8)
멕시코	97 (1.1)	73 (4.7)	65 (4.5)	84 (2.9)	93 (1.8)	-
페루	94 (1.6)	80 (3.9)	71 (3.4)	87 (3.0)	86 (3.0)	-
콜롬비아	83 (2.2)	65 (2.4)	67 (2.1)	82 (1.8)	86 (1.7)	-
도미니카	96 (2.2)	90 (3.2)	72 (5.6)	95 (2.1)	96 (1.7)	-
ICCS 2016 평균	90 (0.4)	73 (0.7)	79 (0.7)	89 (0.5)	87 (0.5)	73 (0.8)

제VI장 결론

- 1. 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
- 2.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매 주말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뤄졌던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이 집회의 결과, 입법부는 하야금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했으며, 결국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탄핵되었고, 이후 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촛불집회의 의미는 단지 한국 헌정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이해집단간의 세력 다툼이 아닌,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항한 헌법 수호를 요구하는 집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혁명이었다. 또한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집회가 총 22번이나 이어졌지만 집회 내내 뚜렷한 폭력행위나 파괴사건이 없는 평화집회였다는 점, 그리고 그런 평온한 집회가 국가 집권세력의 탄핵을 이루어냈다는 점 역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5개월간 사회의 나머지 시스템은 별다른 혼란 없이 온전하게 기능을 유지했다는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평일에는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말에만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지극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했다. 다시 말해 2016년의 촛불집회는 국가권력의 급속한 변혁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혁명이지만, 그 혁명이 시민사회의 시스템과 원칙을 준수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합법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성취를 통해서 시민문화의 성숙함을 증명한 한국 사회는 2018년 현재 새로이 부각된 사회적 갈등 들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각된 ‘미투(metoo) 운동’이나 ‘페미니즘’ 이슈, 그리고 이슬람 난민 수용 이슈 등은 그러한 균열과 변화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은 종로지점이 없으며 한 단계를 넘으면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등장하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류역사는 공동체 진보의 역사이다. 인류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바버라 로고프(B.Rogoff)는 이러한 사실을 ‘개인의 인지발달은 언제나 한사람 이상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로 표현했다. 그녀는 이를 ‘확장된 대화’ 라고 명명했다(Rogoff, 2003, p.314).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참고하며 이 ‘확장된 대화’에 참여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축적된 창안들을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왔다. 요컨대 인류의 진보는 언제나 공동체, 그것도 포용력이 큰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규범과 공동의 개념, 즉 상식(common sense)은 거대하고 복잡해진 사회에 발맞추어 점차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은 단지 공중 질서나 준법 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와 발전의 근간인 공동체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류의 진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여 이 대화의 기술과 동반자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결국 모든 인간 활동과 발화에 성격을 부여하고 입지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대화이기 때문이다’(Oakesshott, 1962, p.199; Rogoff, . 2003, p314에서 인용), 청소년 세대에게 민주시민역량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확장된 대화의 상대로 수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진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OECD의 DeSeCo에서 미래세대의 3대 핵심역량 중 하나를 ‘이질적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김기현 외, 2010)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성패는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 공동체가 수용 가능한 이질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와 문화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왔다. 그리고 이렇게 빨라진 변화는 한 세대가 공유하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규범에 균열을 가져오고 변화를 강요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는 전 인류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서로간의 이질성과 이해관계의 대립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나 집단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며, 복잡해질수록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상식과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발전한다.

시민역량은 일터에서 필요한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나 지역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시민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Gould, 2011). 산업계 지도자들이 전문적 기술(technical skills)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점차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고용주들이 사회변화,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 literacy), 윤리적 판단, 인도주의적 가치, 사회적 책임, 시민참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승진시킬 것이다(OECD, 2015).

2.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과 실천에 대한 ICCS2016 연구 결과의 잠재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의 일부 특징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본 연구는 횡단조사로서 본 조사의 결과로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다. 시민지식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사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한계를 야기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민 및 시민권 교육에 대한 연구에 많은 흥미로운 발견을 분명하게 제공했으며, 그 중 일부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긍정적인 결과는 2009년 이래로 약 절반의 국가에서 대상학년 학생들의 시민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향상은 시민 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국가의 청소년들에게서 양성평등과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아마도 시민지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국가 안팎의 시민 지식에는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었다. 평균적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및 시민의식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평균적인 청소년들이 간신히 기초적인 개념만을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시민 지식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과 최저 점수를 기록한 학생들 간에도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은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매우 우수한 편이었으며 청소년들간의 편차 역시 적은 편이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다.

2009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았다. 또한 남녀 평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 영역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이 더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시민참여의 기회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내실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실내 시민교육의 부실은 매우 뚜렷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지식 점수 혹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요구되며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성차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주시민교육의 환경 맥락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국가마다 혹은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공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비슷한 수준의 우수하거나 아쉬운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내 시민참여경험이 청소년들이 미래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다. 본 조사 결과 역시 교내에서의 시민참여 경험이 미래의 시민 참여와 관계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세계 각국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청년층이 얼마나 기권을 많이 하느냐가 실제 한 국가의 투표결과를 결정짓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토론에 얼마나 개방적이라고 여겨 지는지, 그리고 교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을 하는지가 미래의 시민 참여 의지와 시민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준다. 따라서 시민 지식, 학교 참여 경험, 시민 참여와 미래 시민 참여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내에서 형식적 및 비형식적 경로로 민주시민의식을 교육하고 시민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역할 수행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의 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본 조사결과는 한국의 시민교육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청소년 시민교육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대상 교육과 훈련의 강화와 보다 개방적인 교실풍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이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부 (2017). 학교폭력실태조사 주요 결과.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cesi.kedi.re.kr/post/6662608?itemCode=03&menuId=m_02_03_03
에서 2018년 12월 26일 인출.

Abs, H. (2013). Die Vermessung des guten Bürgers: Zur empirischen (De-)konstruktion eines Ideals [The measurement of the good citizen: About the empirical (de-)construction of an ideal]. Zeitschrift für Soziologie der Erziehung und Sozialisation, 33(3), 267-282.

Ainley, J., Schulz, W., & Friedman, T. (Eds.) (2013). ICCS 2009 Encyclopedia. Approaches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round the world.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ERA). (2013). Prevention of bullying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Research report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Author.

- Amnå, E., & Ekman, J. (2014). Standby citizens: Diverse faces of political passivity.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6, 261-281.
- Angvik, M., & von Borries, B. (Eds.). (1997). *Youth and history: A comparative European survey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attitudes among adolescents (Vols. A-B)*. Hamburg, Germany: Korber-Stiftung.
- Atria, M., Strohmeier, D., & Spiel, C. (2007). The relevance of the school class as social unit for the prevalence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4), 372-387.
- Bäckman, E., & Trafford, B. (2007). *Democratic governance of schools*. 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Bear, G., Yang, C., Pell, M., & Gaskins, C. (2014). Validation of a brief measure of teachers' perceptions of school climate: Relations to student achievement and suspensions.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17(3), 339-354.
- Corcoran, L., & McGuckin, C. (2014). Addressing bullying problems in Irish schools and in cyberspace: A challenge for school management. *Educational Research*, 56(1), 48-64.
- Edmonds, R. R. (1979). Effective schools for the urban poor. *Educational Leadership*, 37(10), 15-24.
- Ekman, J., & Amnå, E.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22, 283-300.
- Eurydice. (2005). *Citizen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Brussels, Belgium: Author.
- Eurydice. (2012).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Brussels, Belgium: Author.

- Eurydice. (2013). Key data on teachers and school leaders in Europe. Brussels, Belgium: Author.
- Fisher, B. W., Gardella, J. H., & Teurbe-Tolon, A. R. (2016). Peer cyber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associa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9), 1727-1743.
- Hahn, C. (1998). *Becoming political: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icks, D. (2003). Thirty years of global education: A reminder of key principles and precedents. *Educational Review*, 55(3), 265-275.
- Holden, C. (2007). Young people's concerns. In D. Hicks & C. Holden (Eds.), *Teaching the global dimension: Key principles and effective practice* (pp. 31-42). London, UK: Routledge Falmer.
- Hooghe, M., & Quintelier, 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intentions of adolescents and a participatory democratic climate at school in 35 countrie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9(5), 567-589.
- Huckle, J. (2008). Sustainable development. In J. Arthur, I. Davies, & C. Hahn (Eds.), *The Sage hand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pp. 342-354).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Huddleston, T. (2007). *From student voice to shared responsibility: Effective practice in democratic school governance in European schools*. London, UK: Citizenship Foundation.
- Husfeldt, V., & Nikolova, R. (2003). Students' concepts of democracy.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396-409.

- Ishimaru, A. (2013). From heroes to organizers: Principals and education organizing in urban school reform.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9(1) 3-51.
- Marzano, R. J. (2003). What works in schools: Translating research into action. Alexandria, Egypt: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SCD).176
- Morris, S. D., & Blake, C. H. (2010). Corrupt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In S. D. Morris & C. H. Blake (Eds.), *Corrupt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pp. 1-29). Boulder, CO: Lynne Rienner.
- Olweus, D. (1973). Hackkycklingar och översittare: Forskning om skolmobbing [Chopper chicks and bullies: Research on school bullying]. Stockholm, Sweden: Almqvist & Wicksell.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9). *Creating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First results from TALIS*. Paris, France: Author.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Paris, France: Author.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5).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aris, France: Author.
- Oscarsson, V. (1996). Pupils' views of the future in Swede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3), 261-277.
- Pancer, S. M. (2015). *The psychology of citizenship and civic engage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owell, J. E., Powell, A. I., & Petrosko, J. M. (2015). School climate as a predictor of incivility and bullying among public school employees: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4(2), 217-244.
- Quin, D. (2017). Longitudinal and contextual associations betwee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student engagement: A systematic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7(2), 345-387.
- Ranson, S., Farrell, C., Peim, N., & Smith, P. (2005). Does governance matter for school improvement?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6(3), 305-325.
- Rogoff, B. (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Oxford Univ. Press.
- Rubin, A. (2002). Reflections upon the late-modern transition as seen in the images of the future held by young Finns. In G. Gidley & S. Inayatullah(Eds.), *Youth futures: Comparative research and transformative visions*(pp. 99-109), Westport, CT: Praeger.
- Salmivalli, C. (2012). KiVa antibullying program: Overview of evaluation studies based 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national rollout in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6(2), 294-302.
- Sammons, P., Gu, Q., Day, C., & Ko, J. (2011). Exploring the impact of school leadership on pupil outcomes: Results from a study of academically improved and effective schools 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5(1) 83-101.
- Scheerens J., Glas, C., & Thomas, M. S. (2003). *Educational evaluation, assessment, and monitoring: A systematic approach*. London, UK and New York, NY: Taylor & Francis.

- Schulz, W. (2005). Political efficacy and expecte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lower and upper secondary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ECPR) General Conference, Budapest, September 8-10, 2005.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 eight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 Agrusti, G. (2016).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grusti, G., & Friedman, T., (2018).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Internation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Smith, P. K., & Shu, S. (2000). What good schools can do about bullying: Findings from a survey in English schools after a decade of research and action. *Childhood*, 7(2), 193-212.
- Torgler, B., & Valev, N. T. (2004). Corruption and age (Working Paper No. 2004-24). Basel, Switzerland: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Management and the Arts.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 Torney-Purta, J., Richardson, W. K., & Barber, C. (2005). Teachers' educational experience and confidence in relation to students' civic knowledge cross-natio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Citizenship and Teacher Education*, 1(1), 32-57.
- Torrance, D. (2013). Distributed leadership: Still in the gift of the headteacher. *Scottish Educational Review*, 45(2), 50-63.
- Trafford, B. (2003). *School councils, school democracy, school improvement: Why, what, how*. Leicester, UK: Secondary Heads Association.
- UNESCO. (2014). *UNESCO 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France: Author.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France: Author.
- Van Houtte, M. (2005). Climate or culture? A plea for conceptual clarity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6(1), 71-89.
- Wade, A., & Beran, T. (2011). Cyberbullying: The new era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1), 44-61.
- Burnouf, L. (2004). Global awareness and perspectives in global education. *Canadian Social Studies*, 38(3). Retrieved from http://www.educ.ualberta.ca/css/Css_38_3/ARburnouf_global_awareness_perspectives.htm.
- Central Intelligence Agency(2015). *The World Facebook 201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download/download-2015/index.html> 에서 10월 26일 인출.
- Gould, J. (Ed.). (2011). *Guardian of democracy: The civic mission of schools*. Washington, DC: National Conference on Citizenship. Retrieved from

<http://civicyouth.org/wp-content/uploads/2011/09/GuardianofDemocracy.pdf>.

Homana, G., Barber, C., & Torney-Purta, J. (2006). Assessing school citizenship education climat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studies (Circle Working Paper 48). Retrieved from http://www.civicyouth.org/PopUps/WorkingPapers/WP48_Homana.pdf.

<http://archive.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에서 10월 26일 인출.

[http://focustaiwan.tw/news/asoc/\(201409180039.aspx](http://focustaiwan.tw/news/asoc/(201409180039.aspx) 에서 2018년 10월 26일 인출.

[http://polling\(2014.belgium.be/en/vla/results/results_start.html](http://polling(2014.belgium.be/en/vla/results/results_start.html) 10월 26일 인출.

<http://statbel.fgov.be/nl/statistieken/cijfers/bevolking/> 에서 2018년 10월 26일 인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w.html> 에서 2018년 10월 26일 인출.

<https://www3.arbeitsagentur.de/web/content/DE/service/Ueberuns/Regionaldirektionen/NordrheinWestfalen/ZahlenDatenFakten/Strukturdaten/index.htm> 에서 2018년 10월 26일 인출.

Kennedy, K. (2006).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tive and passive citizenship. Unpublished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academia.edu/1243639/towards_a_conceptual_framework_for_active_citizenship.

UNDP (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Human Development for Everyone.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2016_human_development_report.pdf 에서 2018년 10월 26일 인출.

ABSTRACT

ICCS 2016 is an extension of the ICCS 2009 as a survey to identify the outcome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youth in different countrie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being taught.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rincipal of more than 3800 schools in 24 countries, more than 94,000 eighth graders, and more than 37,000 teachers. The three main goal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ch principals and teachers in each country thought, were critical and independent thinking, recogni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conflict resolution skills and technology development 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past seven years, youth have increased their knowledge of citizenship in almos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dolescents who are opposed t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or race and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ies. However, there was still a large variation in the knowledge of citize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and there was a gender gap in the level of citizen knowledge among the nation.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itizen knowledge, the low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traditional citizenship and the lower the citizen knowledge level, the higher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vot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not delivered to all youth,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efforts to reduce gender gap and differences among students. In addition, the

experienc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ampus we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will and motivation for the students to participate as future citizen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ovision of democratiz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ampus is very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e IEA, the research organization of the ICCS, publishes all of the data from this survey and expects further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third ICCS in 2022. In a changing world,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pare young people to play a role as citizens of the future, but the value of this survey will increase as the only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democratic civic competence and education.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대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희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 (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 (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 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연구보고 18-R15-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15-5 94330
979-11-5654-213-1 (세트)



연구보고 18-R15-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15-5
ISBN 979-11-5654-213-1 (세트)